

Vol.15 2025 Summer

P 해외개발 review

국 가 개 요 | 최 근 동 향 | 사 업 여 건 | 주 요 제 도 | 개 발 사 례



필리핀
Philippines



P 해외개발 Preview

발행일 2025년 6월 30일

발행인 정창무

발행처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편집인 (총괄) 정연우
(편집위원) 성장환, 송영일, 이상현, 김소연

34047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539번길 99
(대표번호) 042. 866. 8668 <http://lhri.lh.or.kr>

편집디자인 토마디자인스튜디오

I 국가개요 05

1. 국가개황
2. 정치·행정
3. 경제
4. 주요 사회개발지표
5. 한국과의 관계
6. 주요 정부기관 소개

II 최근동향 29

1. 정치·사회 동향
2. 경제 동향
3. 산업 동향
4. 도시개발 동향

III 사업여건 51

1. 인프라 여건
2. 투자 여건
3. 한국의 對필리핀 수주현황
4. 對필리핀 국제개발협력사업 현황

IV 주요제도 87

1. 도시화 관련 국가 정책
2. 도시계획 및 개발 관련 법률
3. 투자 관련 법률

V 개발사례 109

1. 특별경제구역(SEZ) 조성사례
2. 필리핀 국민주택 프로그램 (4PH 프로그램)

P 해외개발 Preview

국 가 개 요

국가개황

정치·행정

경제

주요 사회개발지표

한국과의 관계

주요 정부기관 소개

I 국가개요

01 국가개황

- 국명 : **필리핀 공화국** (Republic of the Philippines)
(약칭 : 필리핀(Philippines))
- 1898년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하고 제1공화국을 수립하였으나, 미국-스페인 전쟁 후 미국 식민지가 되었고, 1946년 7월 4일 미국으로부터 완전 독립하여 제3공화국을 수립하고 대통령 중심제를 채택하였음
 - 1986년 피플 파워 혁명 이후 민주주의 체제가 강화되었으며, 현재 대통령 중심제(6년 단임)와 양원제를 유지하고 있음
- 위치 : 동남아시아, 남중국해와 필리핀해 사이, 베트남의 동쪽
 - 북쪽으로 타이완, 서쪽으로 남중국해, 동쪽으로 필리핀해, 남쪽으로 인도네시아 및 말레이시아와 접함
- 면적 : 300,179km² (세계 72위로 한반도 면적의 약 1.4배)
 - 7,107개의 도서로 구성, 전체의 65%가 산악지대
- 수도 : 마닐라(Manila)
 - 헌법상 수도는 마닐라지만, 메트로 마닐라 전체가 국가의 정치, 경제, 문화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어 실질적인 수도의 기능을 하고 있음
 - 대다수의 중앙정부 부처는 메트로 마닐라 내에 있는 퀘존시(Quezon City)나 파사이(Pasay), 마카티(Makati) 등에 위치하고 있음
- 인구 : 약 1억 1천 명(2024년 기준, 한국수출입은행(2025)) / 세계 13위
 - 주요 도시: 마닐라(Manila), 세부(Cebu), 다바오(Davao)
 - 메트로 마닐라 인구 : 약 1,384만 명 ('24, 외교부)
- 언어 : 필리핀어(타갈로그어) 및 영어, 지방 토착언어(보조 공용어)

- 공용어는 필리피노(Filipino)와 영어이며, 정부, 교육, 법률, 비즈니스 분야에서는 영어를 주로 사용
- 지역별로 세부아노어(Cebuano), 일로카노어(Ilocano), 타갈로그어(Tagalog) 등 170개 이상의 언어 사용
 - 각 지역의 방언과 전통 문화는 보호되며, 스페인어와 아랍어는 선택적으로 교육됨
 - 필리피노(Filipino)의 보급을 위해 국가언어위원회(Commission on the Filipino Language)를 운영

○ 정치 및 경제 중심지

- 정치 중심지는 메트로 마닐라 전역이며, 경제 중심지는 메트로 마닐라(Metro Manila) 내의 마카티(Makati), 보니파시오 글로벌 시티(BGC)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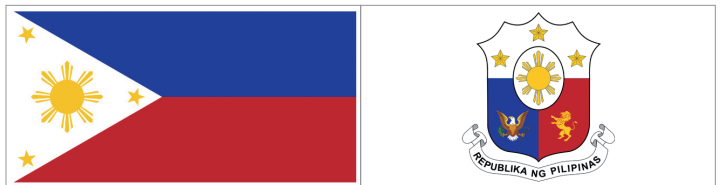
○ 종교

- 천주교(약 80%) : 1521년 마젤란 도착 이후 전파되기 시작하였으며, 스페인의 가톨릭화 정책에 따라 16세기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전파됨
- 개신교(약 9%) : 미국의 식민지 시대부터 전파되기 시작하였으며, 교육 및 의료 분야 등에 적극적으로 진출하며 세력을 확장함
- 이슬람교(약 6%) (주로 민다나오 지역) : 1380년경 술루 군도를 시작으로 민다나오섬에 전파되어 16세기 후반에는 루손섬 남부까지 전파되었으나 스페인 지배 이후 가톨릭이 전파되면서 세력을 확장하지는 못함
- 기타(약 5%) : 불교, 힌두교, 민간신앙 등

○ 기후

- 고온다습한 아열대성 기후 지역으로 평균기온 24~30℃ 사이이며, 건기(11월~5월)와 우기(6월~10월)로 나뉨
- 6~10월은 고온다습하나 스콜성 소나기가 1~2시간 내리는 정도이며 7~9월 사이에는 태풍이 올 수 있음기후

출처 : 필리핀 관광부



필리핀 국기

필리핀 국가문장

○헌법

- 1987년 헌법은 1986년 피플 파워 혁명(EDSA 혁명) 이후 코라손 아키노 정부에 의해 제정되었으며, 독재 정권을 종식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근간이 됨
- 삼권분립, 인권 보장, 지방분권, 대통령 중심제, 단일국가 체제를 기본 원칙으로 함
- 스페인 및 미국 식민지 시대의 영향을 받아 대륙법과 영미법 요소가 혼합되어 있음
- 법체계는 의회의 제정법과 행정부의 명령 형태가 공존
 - 공화국법(Republic Act, RA): 의회 통과 후 대통령 서명으로 제정
 - 행정명령(Executive Order): 헌법 또는 법률에 근거해 대통령이 제정
 - 대통령령(Presidential Decree): 계엄령 기간(마르코스 시기)에 대통령이 제정한 법률
 - 시행규칙(IRR): 개별법의 위임을 받아 소관 부처가 제정
 - 대통령은 포고령(Proclamation), 집행명령(Administrative Order), 메모 명령(Memorandum Order), 회람(Memorandum Circular) 등을 발행할 수 있음
- 민주주의와 다당제
 - 필리핀은 대표 민주주의 체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대통령은 국민의 직접 투표로 선출됨
 - 1987년 헌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입법권은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된 의회에 부여됨
 - 다당제 시스템을 운영하며, 정당 설립이 자유로우나 정당보다는 개인 중심의 정치 문화가 강함
- 국가 통합과 민족 화해
 - 다양한 민족과 종교 집단이 공존하며, 헌법은 국가 통합과 평화적 공존을 강조함
 - 무슬림 민족의 자치권 확대를 위해 방사모로 자치구(BARMM)를 설립하여 민족 화해를 도모

○정부 구조 및 제도

- 대통령 중심제와 양원제 입법부를 갖춘 공화국으로, 삼권분립 체제를 채택하여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는 각각 독립적인 기능과 권한을 가짐
- 행정부
 - 대통령과 부통령으로 구성되며, 헌법에서는 대통령에게 내각을 임명할 권한을 부여

- 입법부

- 필리핀 의회에 부여된 권한을 통해 법률을 제정·변경·폐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상원(Senate)과 하원(House of Representatives)으로 나뉨
- 상원은 전국을 선거구로 하여 선출된 24명으로 구성되며, 하원은 소선거구제(의석의 최대 80%)와 비례대표제(의석의 20% 이내)로 선출함

- 사법부

- 사법부는 독립된 헌법 기관으로, 대법원(Supreme Court)을 정점으로 함
- 판사의 임명은 대통령이 하되, 사법 및 변호사 위원회(Judicial and Bar Council)의 추천을 거쳐야 함
- 헌법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보장하며, 판사의 임기 보장과 급여 삭감 금지 등의 조항을 포함

- 인권과 기본권 보호

- 1987년 헌법은 광범위한 기본권을 보장하며,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의 자유, 집회 및 결사의 자유 등을 명시함
- 국가인권위원회(Commission on Human Rights)가 독립 기관으로 설립되어 인권 보호와 증진을 담당

- 지방 자치와 분권화

- 지방정부는 지방정부법(Local Government Code)에 따라 자치권을 보장받으며, 자체적인 정책 수립과 시행이 가능함
- 지방자치 단위는 주(province), 시(city), 구(municipality), 바랑가이(barangay)로 구성됨
- 각 지방자치 단위는 자체적인 선출직 공무원과 입법 기관을 가짐

○ 대통령

- 대통령의 임기

- 필리핀 대통령은 1987년 헌법에 따라 국민의 의해 직접 선출되며, 대통령의 임기는 6년 단임제이고 부통령과 함께 선출, 부통령은 유고시 잔여 임기를 승계하는 등 별도의 임무를 수행
- 현 대통령은 페르디난드 봉봉 마르코스 주니어(Ferdinand Bongbong Romualdez Marcos Jr, 제17대 대통령)이며 2022년 6월에 임기를 시작
- 현 부통령은 사라 두테르테이며 대통령과 함께 선출되어 임기가 동일하고 1회 중임이 가능

- 대통령의 지위와 역할

- 대통령은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으로서 행정권을 행사
- 군 통수권자로서 군대를 지휘하며, 외교 정책을 수립하고 조약을 체결
- 재난상황 등에서 비상조치 권한을 일부 갖음

- 대통령의 권한
 - 법률 집행 및 행정명령 발동
 - 내각 및 주요 기관장 임명 (상원 인준 필요)
 - 외교 사절 및 조약 체결 (상원 동의 필요)
 - 군 통수권 행사
 - 사면 및 감형 권한 행사 가능
- 대통령과 의회의 관계
 - 입법부는 대통령과 별도로 구성되며, 견제와 균형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음
 - 대통령은 의회가 통과시킨 법률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의회는 2/3 이상의 찬성으로 이를 무효화할 수 있음
- 대통령직의 책임과 제한
 -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통치하며, 탄핵 대상이 될 수 있음
 - 중대한 범죄(반역, 부패, 배임 등)가 있을 경우 하원이 탄핵소추, 상원이 탄핵심판을 수행함

○ 내각(Cabinet)

- 내각은 대통령이 임명하며, 정책에 따라 의회 인준위원회의 동의를 필요
- 내각은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들로 구성되며, 대통령을 보좌함
- 각 부처 장관은 상원의 동의를 거쳐 임명되며, 대통령의 신임에 따라 언제든지 해임될 수 있음
- 내각은 일반적으로 집단적 결정권이 아닌 대통령 중심의 자문기구 성격이 강함

○ 국회

- 필리핀 국회는 1987년 헌법 제정 이래로 양원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원과 하원으로 구분됨
- 국회는 법률 제정, 행정부에 대한 감독, 국가 예산의 심의 및 승인, 조약의 비준, 대통령의 권한 견제 등의 역할을 수행함
- 입법부는 헌법 제6조에 근거하여 주권을 대표하며, 필리핀의 입법권을 행사함
- 3년 주기의 중간선거마다 상원의원 12명과 하원의원 전원이 교체됨
- 상원은 전국을 선거구로 하여 직접 선거로 선출된 24명으로 구성되며, 3년마다 12명씩 개선되고, 각 의원의 임기는 6년으로 연속 2회까지 연임이 가능함
- 상원은 필리핀의 조약 비준, 대통령의 고위 공직자 임명 동의, 탄핵 재판의 심판 권한을 가짐
 - 법률안을 발의하고 심의할 수 있으며, 하원과 함께 입법권을 행사함
 - 상원 자체적으로 국정 청문회를 통해 행정부를 조사하고 감시할 수 있음
 - 고위공직자에 대한 승인권을 보유

부처명	장관	임명일
행정	루카스 베르사민 (Lucas Bersamin)	2022년 09월 27일
공공사업도로부	마누엘 보노안 (Manuel Bonoan)	2022년 06월 30일
과학기술부	레나토 솔리둠 주니어 (Renato Solidum Jr.)	2022년 07월 22일
관광부	크리스티나 프라스코 (Christina Frasco)	2022년 06월 30일
교육부	소니 앙가라 (Sonny Angara)	2024년 07월 19일
교통부	빈스 디존 (Vince Dizon)	2025년 02월 21일
국가경제개발부	아르세니오 발리사칸 (Arsenio M. Balisacan)	2022년 06월 30일
국방부	길버트 테오도로 주니어 (Gilberto Teodoro Jr.)	2023년 06월 05일
내무지방자치부	존빅 레물라 (Jonvic Remulla)	2024년 10월 08일
노동고용부	비엔베니도 라게스마 (Bienvenido Laguesma)	2022년 06월 30일
농업개혁부	콘라도 에스트렐라 3세 (Conrado Estrella III)	2022년 06월 30일
농업부	프란시스코 라우렐 주니어 (Francisco Laurel Jr.)	2023년 11월 03일
법무부	달린 마리 베르베라베(Darlene Marie Berberabe)	2025년 05월 29일
보건부	테오도로 허보사 (Teodoro Herbosa)	2023년 06월 05일
사회복지개발부	렉스 가차리안 (Rex Gatchalian)	2023년 01월 31일
에너지부	샤론 가린 (Sharon Garin)	2025년 05월 23일
예산관리부	아메나 팡간다만 (Amenah Pangandaman)	2022년 06월 30일
외교부	마리아 테레사 라자로 (Maria Theresa Lazaro)	2025년 7월 31일 취임예정
재무부	랄프 렉토 (Ralph Recto)	2024년 01월 12일
정보통신기술부	헨리 아구다 (Henry Aguda)	2025년 03월 20일
인간정주 및 도시개발부	호세 라몬 알릴링 (Jose Ramon Aliling)	2025년 05월 26일
통상산업부	마리아 크리스티나 알데게르-로케	2024년 08월 02일
환경자원부	라파엘 로틸라 (Raphael Lotilla)	2025년 05월 23일

- 하원은 선거구별로 선출하는 소선거구제(의석의 최대 80%)와 비례대표제로 선출하는 비례대표제(의석의 20% 이내)로 구분함
 - 2025년 5월 중의원 선거에서는 하원은 최대 317석으로 지역구 선출의원 약 254석과 비례대표 63석으로 선출되었으며, 임기는 3년이며 최대 3회 연임이 가능
 - * 254명은 지역구 대표이고, 63명은 정당명부 대표임
- 하원은 법률안을 발의하고 심의하는 입법 권한을 가짐
 - 예산안, 세금, 국채 관련 법안은 하원에서 먼저 발의할 수 있는 재정 관련 우선권을 가짐
 - 대통령 등 고위 공직자에 대한 탄핵소추권을 보유함
 - 국정감사와 청문회를 통해 행정부를 감시·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짐

- 현 하원은 집권당인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이 소속된 Partido Federal ng Pilipinas(PFP)와 이를 지지하는 Lakas-CMD, Nacionalista Party(NP), NUP, NPC 등의 여당계열 정당이 전체 317석 중 약 227석을 차지하여 여당의 지위를 득하고 있음
- 야당계열 정당은 총 27석을 확보하였으며, 주요 정당으로는 PDP-Laban(2석)과 Liberal Party(6석) 등이 있음
- 필리핀 상원 및 하원의 현 의장단은 다음과 같음
 - 상원의장은 프란시스 "치즈" 에스쿠데로(Francis "Chiz" Escudero)이며, 2024년 5월 선출됨
 - 하원의장은 페르디난드 마틴 G. 로몰루데스(Ferdinand Martin G. Romualdez)이며, 2022년부터 하원의장으로 재임중임

[정당별 의석수(2025년 5월 12일 기준)] 출처 : Wikipedia¹

정당명			의석 수(석)	득표율(%)
여당 계열	Lakas-Christian Muslim Democrats	Lakas-CMD	103	32.87
	Nacionalista Party	NP	22	9.36
	National Unity Party	NUP	31	12.05
	Nationalist People's Coalition	NPC	31	11.83
	Partido Federal ng Pilipinas	PFP	27	10.47
	기타 여당 계열 정당 및 무소속		13	-
합계			227	-
야당 계열	Philippine Democratic Party-People's Power	PDP-Laban	2	1.32
	Liberal Party	LP	6	3.08
	Aksyon Demokratiko	AD	3	2.66
	Laban ng Demokratikong Pilipino	LDP	2	0.62
	기타 야당 계열 정당 및 무소속		14	-
합계			27	-

01 Wikipedia, "2025 Philippine House of Representatives elections" 내용을 기반으로 하여 작성, https://en.wikipedia.org/wiki/2025_Philippine_House_of_Representatives_elections (검색일자:2025.05.26.)

○ 사법부

- 필리핀의 사법체계는 단일한 통합 법원 구조를 갖고 있으며, 최고법원인 대법원을 중심으로 독립된 사법권을 행사
- 헌법 제8조에 근거하여 사법권은 대법원과 하급 법원에 위임됨
- 사법부는 입법·행정부와 독립된 권력 기관으로, 법률 해석 및 위헌 심사, 판결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

- 대법원(Supreme Court)
 - 필리핀 사법제도의 최고 법원
 - 대법원장(Chief Justice) 1인과 부대법관(Associate Justices) 14인으로 구성
 - 위헌법률심사, 대통령 탄핵 관련 법적 판단, 판례 형성 등 국가 최고 사법권 행사
 - 현 대법원장은 알렉산더 게스문도(Alexander Gesmundo)로 2021년 임명되었으며, 과거 법무부 차관으로 항소법원 판사 경력을 보유하고 있음
- 하급 법원 구조
 - 항소법원(Court of Appeals): 대법원 다음의 상급 법원으로, 전국 3개 지역에 걸쳐 구성
 - 세무법원(Court of Tax Appeals): 조세 관련 사건 전문 심리
 - 샌드가반(Sandiganbayan): 고위 공직자 부패, 공공 자금 유용 사건 담당
 - 지방법원(Regional Trial Courts, RTCs): 민·형사 재판 1심 관할
 - 지방법원 외 기타 법원: 시법원(Municipal Trial Courts), 시/군 순회법원 등
- 사법 및 변호사 위원회(Judicial and Bar Council, JBC)
 - 판사 및 대법관 임명 추천 권한을 가진 헌법기구
 - 사법부의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하는 장치로 기능

○ 주요 국가지도부

- 페르디난드 봉봉 마르코스 주니어 (Ferdinand Bongbong Marcos Jr.) 대통령 (1957년생)
 - 마르코스 독재정권 시기의 전 대통령 페르디난드 마르코스의 아들
 - 1974년, 런던의 Worth School 졸업
 - 1978-1983년, 필리핀 대학 시스템(UP) 및 옥스퍼드대학 정치학과 재학
 - 1980년, 일로코스노르테 주 부지사로 정계 입문
 - 1992-1995년, 하원의원(일로코스노르테 2지구)
 - 1998-2007년, 일로코스노르테 주지사
 - 2010-2016년, 필리핀 상원의원
 - 2022년, 대통령 선거 승리(득표율 약 58.8%)
 - 2022년 6월 30일, 제17대 필리핀 대통령 취임
 - 대외적으로는 중국과의 균형 외교, 대내적으로는 농업, 인프라, 교육 개혁 중심 정책 추진
- 사라 두테르테(Sara Duterte) 부통령 (1978년생)
 - 전 대통령 로드리고 두테르테의 장녀
 - 산 베다 대학교 법학 졸업, 변호사 자격 보유
 - 2010-2013년, 다바오 시장
 - 2016-2022년, 다바오 시장(2선)
 - 2022년 부통령 선거에서 마르코스와 러닝메이트로 당선
 - 현직 부통령이자 초대 교육부 장관(Secretary of Education) 겸직



Ferdinand “Bongbong” Marcos Jr.
대통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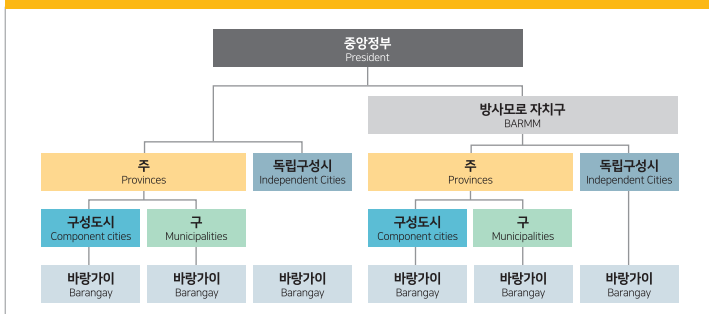


Sara Duterte
부통령

○ 지방자치 및 행정구역

- 필리핀의 행정구역은 국가-지방정부 체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헌법상 보장됨
 - 헌법 제10조 및 『지방정부법(Local Government Code, 1991)』에 근거함
 - 단일국가 체제이나 지방정부의 행정 및 재정 자율성을 강하게 보장함
- 행정구역은 18개의 지방(Region), 82개의 주(Province), 148개의 시(City), 1,488개의 구(Municipality), 42,027개의 바랑가이(Barangay)로 구성
 - 기본 행정단위는 주/시/구/바랑가이로 총 4개이고 지방자치단체장은 3년마다 주민의 직접투표로 선출되며, 3회 중임 가능

필리핀 지방자치제도의 위계와 구성 출처: Philinlove 홈페이지



지방(Region) 18개	· 주(Province) : 82개	
	· 시(City) : 148개	· 고도로 도시화된 도시(HUC): 33개 · 독립구성시(ICC): 5개 · 구성시(CC): 11개
	· 구(Municipality) : 1,488개	
	· 바랑가이(Barangay) ² : 42,027개	

02 한국의
동에 해당하는
최소 행정단위

- 18개 지방은 중앙정부가 행정 편의상 분류한 것으로, 행정단위는 아니며 지방행정단위는 기본행정단위와 마찬가지로 주, 시, 구로 구성
- 지난 2024년 6월 11일 네그로스섬을 위한 네그로스 아일랜드 지방(NIR, Negros Island Region)이 신설되면서 지방(Region)수가 18개로 늘어남

[지방행정단위(2024년 6월 기준)] 출처: 필리핀 관광부와 통계청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아일랜드 그룹	지방		주	시	구
루손 Luzon	NCR	메트로 마닐라(National Capital Region)	0	16	1
	CAR	코르디예라 행정구(CAR)	6	2	75
	Region I	일로코스 지방(Ilocos)	4	9	116
	Region II	카가얀밸리 지방(Cagayan Valley)	5	4	89
	Region III	중앙 루손 지방(Central Luzon)	7	14	116
	Region IV-A	칼라바르손 지방(Calabarzon)	5	21	123
	Region IV-B	미마로파 지방(MIMAROPA Region)	5	2	71
	Region V	비콜 지방(Bicol Region)	6	7	107
비사야 Visayas	Region VI	서부 비사야 지방(Western Visayas)	6	16	117
	Region VII	중부 비사야 지방(Central Visayas)	4	16	116
	Region VIII	동부 비사야 지방(Eastern Visayas)	6	7	136
	NIR	네그로스섬 지방(Negros Island Region)	3	19	44
민다나오 Mindanao	Region IX	잠보앙가 반도지방(Zamboanga Peninsula)	3	5	67
	Region X	북민다나오 지방(Northern Mindanao)	5	9	84
	Region XI	다바오 지방(Davao Region)	5	6	43
	Region XII	소크사르젠 지방(Soccsksargen)	4	5	45
	Region XIII	카라가 지방(Caraga Region)	5	6	67
	BARMM	방사모로 민다나오 이슬람 자치구(Bangsamoro Autonomous Region in Muslim Mindanao)	5	3	116
합 계			82	148	1,488

주1) 주(Provinces)는 추가 없는 특별지역이 포함되어 있어 합산방식에 차이가 있음

주2) 독립시(HUC), 구성시(CC), 독립구성시(ICC)를 구분하지 않고 있어 합산방식에 차이가 있음

- 무슬림 민족지역의 자치권 보장을 위해 18개 지방 중 4개는 특별행정구역인 BARMM으로 구분
- 메트로 마닐라(NCR)와 코르디예라 행정구(CAR), 네그로스섬 지방(NIR), 방사모로 민다나오 이슬람 자치구(BARMM)는 특별지역으로 구분

[특별행정구역] 출처 : Philinlove

메트로 마닐라 National Capital Region, Metro Manila	17개 시로 구성 Manila, Caloocan, Makati, Mandaluyong, Pasay, Pasig, Quezon, Muntinlupa, Las Piñas, Marikina, Parañaque, Valenzuela, Malabon, Taguig, Navotas, Pateros, San Juan
코르디예라 행정구 Cordillera Administrative Region	6개 주와 1개 시로 구성 Abra, Apayao, Benguet, Ifugao, Kalinga, Mountain Province(이상 주), Baguio(시)
방사모로 민다나오 이슬람 자치구 (Bangsamoro Autonomous Region in Muslim Mindanao, BARMM)	5개 주와 1개 시로 구성 Sulu, Tawi-Tawi, Lanao del Sur, Maguindanao, Basilan(이상 주), Marawi(시)
네그로스섬 지방 (Negros Island Region)	3개 주와 19개 시로 구성 (네그로스 옥시덴탈) Bacolod, Bago, Cadiz, Escalante, Himamaylan, Kabankalan, La Carlota, Silay, Sipalay, Talisay, Victorias (네그로스 오리엔탈) Bais, Bayawan, Canlaon, Dumaguete, Guihulngan, Tanja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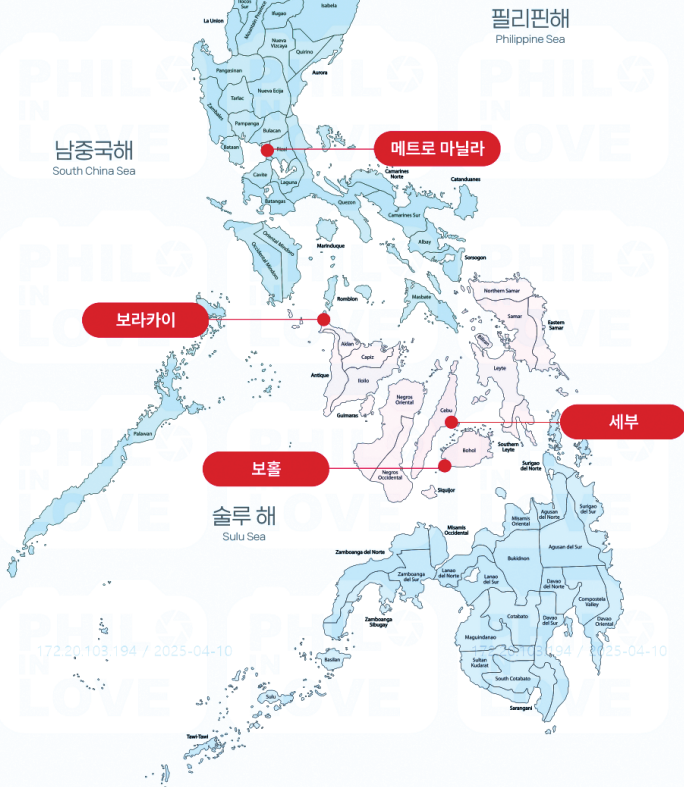


172.20.103.194 / 2025-04-10

172.20.103.194 / 2025-04-10

82개의
주(Province)

2024년 8월 현재



Provinces of the Philippines (as of 2024)

이 지도에 표기된 정보는 대략적인 위치만 나타낼 뿐 지리적으로 정확하지 않습니다

○ 경제성장(한국수출입은행(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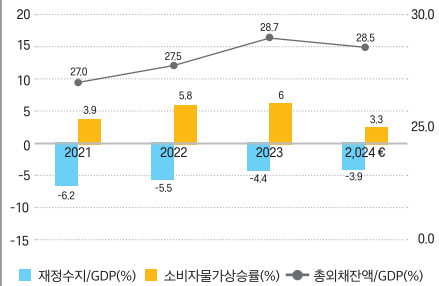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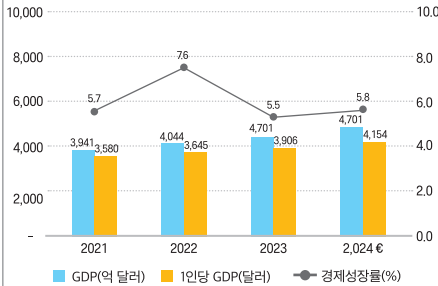
- GDP: 4,701억 달러, 2024(e)
 - 2024년 경제성장률은 정부 목표치인 6~7%에는 미치지 못하였으나, 가계소비 활성화, 관광 산업 회복, 제조업 성장 등에 힘입어 동남아 최고 수준인 5.8% 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며, 인프라 투자, 내수소비 및 상품수출 증가 등에 힘입어 2025년은 6.1%대 경제성장을 전망
 - 경제성장률이 정부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 요인으로는 연초 정부의 재정지출 부족, 물가상승 압력에 대처하기 위한 긴축통화정책, 글로벌 경기 침체 등이 꼽힘
- 1인당 GDP: 4,154달러, 2024(e)

○ 물가 및 재정(한국수출입은행(2025))

- 소비자물가상승률: 3.3%(2024(e))
 - 2023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중앙은행 목표 범위인 2~4%를 훨씬 상회하는 6.0%를 기록하였으나, '24년은 3.3%까지 하락하였으며, '25년에는 3.0%로 점차 하향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추정
- '24년 2월 중앙은행(BSP)은 다양한 경제적 압박 속에서 인플레이션 기대를 관리하기 위해 오버나이트 금리를 6.50%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으나, 2024년 10월 통화정책회의에서 두 달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25bp 인하하여 6.0%로 조정하였음
- 필리핀의 경제구조는 GDP의 60%이상을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반면 농업의 비중은 감소하고 제조업 발달이 취약하여 대부분의 공산품을 수입에 의존
- 한편, 해외근로자 송금 및 BPO(Business Process Outsourcing)산업은 필리핀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이 경쟁력은 우월한 영어구사능력과 낮은 임금에서 비롯된다는 점에서 향후 자동화 기술, 로봇 등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있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발전에는 한계가 있음
- 재정수지/GDP(%)는 '24년 -3.9%로 재정적자 지속
 - '22년 -5.5%, '23년 -4.4%로 재정적자 감소 추세
 - 식량안보, 인프라 건설 재원 확보 등으로 당분간 높은 수준의 재정수지 적자 지속 전망
- 총외채잔액/GDP(%)는 '24년 28.5%로 전년(28.7%) 대비 소폭 감소하였으며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필리핀의 주요 경제지표 추이

출처 : 한국수출입은행 "2025 세계국가편람" 자료를 토대로 저자 작성



○화폐단위 : 필리핀 페소(PHP)

- 환율 : 1(USD) = 57.15(PHP), 1(PHP) = 25.62(KRW) (2025.04.03.)

○국제신인도 : 외채상환태도는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국제신용평가3사는 필리핀에 대해 투자적격 등급을 유지

- 중장기적으로 높은 경제성장 잠재력, 양호한 외채비중 및 정부채무 비율, 안정적이고 회복력 있는 은행 시스템 등을 고려하여 투자적격 등급을 유지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출처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2024)

평가기관	최근 평가등급	종전평가등급
OECD	3등급(2024.06)	3등급(2023.06)
Moody's	Baa2(2022.09)	Baa2(2020.07)
Fitch	BBB(2024.06)	BBB(2023.11)

○산업구조 (2023, 한국수출입은행(2025), Kotra(2025))

- 부가가치 기준: 서비스업(62%), 제조업(29%), 농업(9%),
 - 2000년대 들어 필리핀의 서비스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 이상으로 증가하였으며, 이는 주로 관광 및 레저, 숙박업, IT-BPO(콜센터) 등에 기반을 두고 있음
 - 2000년 이후 농업과 제조업의 GDP 기여도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서비스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문제가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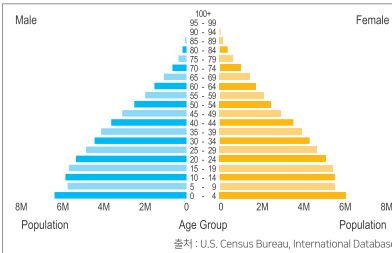
○무역 (한국수출입은행(2025))

- 경상수지 : -12,883(백만 달러, 2024(e)), -11,817(백만 달러, 2023)
- 상품수지 : -77,646(백만 달러, 2024(e)), -65,899(백만 달러, 2023)
- 상품수출 : 57,671(백만 달러, 2024(e)), 55,394(백만 달러, 2023)

- 상품수입 : 135,317(백만 달러, 2024(e)), 121,293(백만 달러, 2023)
- 주요 수출입 품목 : (수출) 집적회로, 기계 부품, 금, 반도체
(수입) 집적회로, 정제유, 석탄, 자동차

○ 주요 부존자원 : 임산자원, 석유, 니켈, 코발트, 은, 금, 소금, 구리

04 주요 사회개발지표³

인구와 보건	
중위 연령 (Median Ag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5.7세(남자 25.1세, 여자 26.3세) (2024 추정)
인구구조	<div>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14세(30.2%) • 15~64세(64.3%), • 65세 이상(5.6%)(2024 추정) </div>  </div>
출생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00명당 25명(2024 추정)
사망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 1,000명당 22.1명(2024 추정) • 임산부 및 유아사망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산부) 100,000명당 78명(2020 추정) - (유아) 1,000명당 22명(2024 추정)
건강부문 지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DP의 7.3%(2020)
의사 밀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사) 1,000명당 0.79명(2021)
비만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4%
알콜 및 담배 소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알콜 소비량: 1인당 4.85리터(2019 추정) • 흡연율: 22.9%(2020 추정)
식수 및 위생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수원 접근 : 전체 인구의 97%(2020 추정) • 현대식 위생시설 접근 : 전체 인구의 93.4%(2020 추정)

03 인구와 보건, 도시화, 에너지 부문의 통계는 World Factbook ‘필리핀’ 참고 (검색일자: 2025.05.26.)

인적자원과 교육

교육부문 지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DP의 3.7%(129위)(2020 추정)
교육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무교육체계는 K to 12(유치원1년+초등6년+중등6년)으로 진행 • 유아교육은 유치원에서 1년간 진행(5세) • 초등교육은 초등학교에서 6년간 진행(6~11세) • 중등교육은 Junior High School(JHS)와 Senior High School(SHS)로 구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Junior High School(JHS)는 공통 교육과정으로 4년간 진행(12~15세) - Senior High School(SHS)는 2년간 진행하며 4가지 트랙 중 선택하여 2년간 진행(16~17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cademic Track (STEM, HUMSS, ABM 등) · Technical-Vocational-Livelihood (TVL) Track · Sports Track · Arts and Design Track • 필리핀의 고등교육은 고등교육위원회(CHED)에서 감독하고 있으며, 공립(SUCs, LUCs)과 사립(Private HEIs)대학, 기술 교육 기관, 단기전문대 등에서 학사(4~5년), 석사(2년), 박사로 구분
식자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세 이상 인구 중 96.3%가 읽고 쓸 수 있음 • 남자 95.7%, 여자 96.9%(2019)
노동 및 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DP 비중 : 농업(9.4%), 산업(28.2%), 서비스업(62.4%) (2023 추정) • 전체실업률 14.9%(2023 추정) • 15세~24세 청년인구의 실업률 6.9%(남자 5.9%, 여자 8.4%, 2023 추정)

도시화

도시화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8.3%(2023) • 도시화율 증감 : 연간 2.04% 증가(2020~2025년 추정)
주요 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닐라(Manila), 세부(Cebu), 다바오(Davao)

에너지

전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전용량 : 2,754만 2,000kW(2022 추정) • 전력소비 : 1,028억 3,400kWh(2022 추정) • 전기사용 인구비율 : 전체 인구의 50.6%(2021) • 전력생산 : 화석연료(78.2%), 지역(10.2%), 수력(8%), 태양광(1.4%), 풍력(1.1%), 바이오매스 및 폐기물(1.1%)(2022 추정)
석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제 석유 소비 453,000BBL/일(2022 추정)
천연가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 : 22억 5,100만m(2022 추정) • 소비 : 22억 5,100만m(2022 추정)
에너지 사용으로 인한 CO ₂ 배출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억 3,627만 3,000톤(2022 추정)

통신과 커뮤니케이션	
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선전화 사용 : 463만 명(100명당 4명 이하)(2023 추정) 휴대전화 보급 : 135백만 명(100명당 144명)(2023 추정)
방송 및 언론 ⁴	<ul style="list-style-type: none"> 400개 이상의 TV 방송국 및 1,500여개의 케이블TV, 1,400개의 라디오 방송국이 있음
인터넷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터넷 이용자 : 751만 명(전체 인구의 75%)(2023 추정) 국가도메인 : .ph

05 한국과의 관계⁵

외교관계 및 주요협정	
외교관계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49.3.3 정식 수교 체결(북한과는2000.7.12. 수교)
주요 체결협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필리핀 사증수수료면제각서교환('60) 한·필리핀 무역협정('61) 한·필리핀 소포우편협정('61) 한·필리핀 항공운수협정('69) 한·필리핀 외교관·관용사증면제각서교환('70) 한·필리핀 문화협정('73) 한·필리핀 무역협정('78) 한·필리핀 경제·기술협정('85) 한·필리핀 이종과세회피·탈세방지협약('86) 한·필리핀 과학·기술협정('86) 한·필리핀 범죄인인도조약('96) 한·필리핀 투자증진·보호협정('96) 한·필리핀 대외경제기금차관협정('03) 한·필리핀 형사사법공조조약(2008.11.발효) 한·필리핀 무상원조 기본협정(2014.04.발효) 한·필리핀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2016.02.발효) 한·필리핀 사회보장협정('24)

04 외교부(2024)

05 한국수출입은행(2025), Kotra(2025), 한국무역협회(2025)

무역 및 교류 현황	
교역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對필리핀 교역규모(2024년 기준, 한국무역협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 102.5억 달러 - (수입) 44.3억 달러
주요 교역품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 석유제품, 반도체, 무선통신기기 • (수입) 반도체, 산업용 전기기기, 곡실류
투자교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對필리핀 투자: 23건, 56백만 달러(2024년 상반기) - 누적건수: 1,909건, 4,997백만 달러(2024년 6월 기준)
교민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리핀 내 한국인 : 34,148명(2024, 재외동포청) • 한국 내 필리핀인 : 64,055명(2024, 법무부)
OD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12.3억 달러(1987-2023년 누계, 총지출 기준, OECD) - 무상원조 : 5.1억 달러 - 유상원조 : 7.2억 달러

주요 공휴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리핀의 공휴일은 역사적 사건을 기념하기 위한 날과 종교와 연관된 휴일로 구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립기념일이나 리잘데이처럼 역사적인 날을 기념하는 공휴일은 날짜가 일정하나, 종교와 연관된 휴일은 매년 날짜가 변경 • 주요 공휴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월 1일 : 새해 첫 날 (New Year's Day) - 1월 29일 : 설날 (Lunar New Year's Day) - 4월 9일 : 용사의 날 (Araw ng Kagitingan) - 4월 17일 : 성목요일 (Maundy Thursday) - 4월 18일 : 성금요일 (Good Friday) - 4월 19일 : 부활절 (Black Saturday) - 5월 1일 : 근로자의 날 (Labor Day) - 6월 12일 : 독립기념일 (Independence Day) - 8월 21일 : 니노이 아키노 데이 (Ninoy Aquino Day) - 8월 25일 : 영웅의 날 (National Heroes Day) - 10월 31일 : 만성절 이브 (All Saints' Day Eve) - 11월 1일 : 만성절 (All Saints' Day) - 11월 30일 : 보니파시오 데이 (Bonifacio Day) - 12월 8일 : 성모마리아 축일(Feast of the Immaculate Conception of Mary) - 12월 24일 : 크리스마스이브 (Christmas Eve) - 12월 25일 : 크리스마스 (Christmas Day) - 12월 30일 : 리잘 데이 (Rizal Day) - 12월 31일 : 연말 (Last day of the year)

정부기관

- 대통령실 <https://www.op-proper.gov.ph>
- 부통령실 <https://www.ovp.gov.ph>
- 공공사업도로부 <https://www.dpwh.gov.ph>
- 과학기술부 <https://www.dost.gov.ph>
- 관광부 <https://www.tourism.gov.ph>
- 교육부 <https://www.deped.gov.ph>
- 교통부 <https://www.dotr.gov.ph>
- 국가경제개발부 <https://www.depdev.gov.ph>
- 국방부 <https://www.dnd.gov.ph>
- 내무지방자치부 <https://www.dilg.gov.ph>
- 노동고용부 <https://www.dole.gov.ph>
- 농업개혁부 <https://www.dar.gov.ph>
- 농업부 <https://www.da.gov.ph>
- 법무부 <https://www.doj.gov.ph>
- 보건부 <https://www.doh.gov.ph>
- 사법부 <https://www.judiciary.gov.ph>
- 사회복지개발부 <https://www.dswd.gov.ph>
- 에너지부 <https://www.doe.gov.ph>
- 예산관리부 <https://www.dbm.gov.ph>
- 외교부 <https://www.dfa.gov.ph>
- 재무부 <https://www.dof.gov.ph>
- 정보통신기술부 <https://www.dict.gov.ph>
- 인간정주 및 도시개발부 <https://www.dhsud.gov.ph>
- 통상산업부 <https://www.dti.gov.ph>
- 환경자원부 <https://www.denr.gov.ph>

⁰⁶ 주세부 대한민국 분관, 주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홈페이지 내 필리핀 주요 정부기관(2024-09-11기준) 및 필리핀 관련 주요 웹사이트 (2025-03-18 업데이트) 자료를 활용하여 제작함

위원회 및 산하기관, 연구소 등

- 국가주택청 <https://www.nha.gov.ph>
- 국가통계청 <https://www.psa.gov.ph>
- 기지 전환 및 개발청 <https://www.bcda.gov.ph>
- 메트로마닐라개발청 <https://www.mmda.gov.ph>
- 민다나오개발청 <https://www.minda.gov.ph>
- 바탄 자유무역지역청 <https://www.afab.gov.ph>
- 삼보앙가시 특별경제구역청 <https://www.zfa.gov.ph>
- 수빅만 경제구역청 <https://www.mysubicbay.com.ph>
- 오로라 태평양 경제자유구역청 <https://www.apeco.gov.ph>
- 카가얀 경제구역청 <https://www.ceza.gov.ph>
- 투자청 <https://www.boi.gov.ph>
- 필리핀 경제구역청 <https://www.peza.gov.ph>
- 해양산업청 <https://www.marina.gov.ph>
- 공무원인사위원회 <https://www.csc.gov.ph>
- 선거관리위원회 <https://www.comelec.gov.ph>
- 옴부즈맨 <https://www.ombudsman.gov.ph>
- 고등교육위원회 <https://www.ched.gov.ph>
- 국가경쟁력위원회 <https://www.competitive.org.ph>
- 국가기록위원회 <https://www.nationalarchives.gov.ph>
- 국가통계조정위원회 <https://www.nscb.gov.ph>
- 국가통신위원회 <https://www.ntc.gov.ph>
- 기후변화위원회 <https://www.climate.gov.ph>
- 빈곤퇴치위원회 <https://www.napc.gov.ph>
- 에너지규제위원회 <https://www.erc.gov.ph>
- 주택도시개발위원회 <https://www.hudcc.gov.ph>
- 주택토지이용규제위원회 <https://www.hlurb.gov.ph>
- 민다나오이슬람자치지역 <https://www.armm.gov.ph>
- 필리핀중앙은행 <https://www.bsp.gov.ph>
- 필리핀개발은행 <https://www.devbankphil.co.ph>
- 필리핀토지은행 <https://www.landbank.com>
- 사회주택금융공사 <https://www.shfc.dhsud.gov.ph>
- 클락개발공사 <https://www.clark.com.ph>
- 필리핀개발연구원 <https://www.dap.edu.ph>
- 필리핀 대학교 <https://www.up.edu.ph/>

[참고문헌]

- » 세계법제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s://world.moleg.go.kr/>
- » 외교부 홈페이지, <https://www.mofa.go.kr/>
- » 외교부 주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홈페이지, <https://ph.mofa.go.kr/>
- » 외교부(2019),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필리핀 개황(2019.11)
- » 외교부(2024), 필리핀 약황
- » 위키피디아, https://en.wikipedia.org/wiki/Cabinet_of_the_Philippines
- » 위키피디아, https://en.wikipedia.org/wiki/2025_Philippine_cabinet_reshuffle
- » 필리핀 관광부 홈페이지, <https://philippinetourism.co.kr/>
- » 필리핀 정부 홈페이지, <https://www.gov.ph/>
- » 필리핀 통계청 홈페이지, <https://psa.gov.ph/>
- » 필인러브 홈페이지, <https://www.philinlove.net/>
- » 한국수출입은행 홈페이지, <https://keri.koreaexim.go.kr/>
- » 한국수출입은행(2024)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필리핀-
- » 한국수출입은행(2025), 2025 세계국가편람(필리핀)
- » 현대경제연구원(2024) “세계 인구구조 분석 - UN의 ‘2024년 세계인구전망 보고서’를 중심으로-”
- » KOTRA 해외시장뉴스, KOTRA 국가정보 '필리핀',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ation/actionNatlemList.do?pageNo=&pagePerCnt=10&SITE_NO=3&MENU_ID=220&CONTENTS_NO=1&pRegnCd=01&pNatCd=608&chkNatSn=608#none
- » KOTRA(2025), 2025 필리핀 진출전략
- » KOTRA(2024), 한-필리핀 FTA 발효에 따른 수출유망상품 및 협력기회
- » World factbook 홈페이지, <https://www.cia.gov/the-world-factbook/countries/philippines/>
- » Worldometer 홈페이지, <https://www.worldometers.info/demographics/philippines-demographics/#tfr>

P 해외개발 Preview



최근 동향



정치·사회 동향

경제 동향

산업 동향

도시개발 동향



II 최근동향

01 정치·사회 동향

정치 동향

○ 민주주의 구축 및 정치 엘리트 중심 정치

- 필리핀은 스페인과 미국의 식민 통치, 마르코스 독재와 민주화 과정 등 복잡한 역사적 배경 속에서 민주주의를 구축해 왔으며, 현재는 정치 엘리트와 가문 중심의 정치 구조가 특징임
- 1986년 '피플 파워 혁명'을 통해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대통령의 21년 독재 정권이 무너진 후 민주적 정부 체제로 전환함
- 2016년부터 2022년까지 로드리고 두테르테 전 대통령은 강력한 법과 질서 모델을 기반으로 점차 권위주의적 정치 시스템으로 이행함
- 2022년 대선에서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과 사라 두테르테 부통령은 '유니팀(UniTeam)'을 슬로건으로 연대하여 압도적인 표차로 승리함
- 이 연합은 필리핀 정치에서 강력한 두 가문의 결합으로 평가받았으며, 두테르테 전 대통령의 정책을 계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임
- 그러나 집권 이후 마르코스 대통령과 사라 두테르테 부통령 간의 정치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는 두 가문 간의 세력 다툼으로 비화되는 양상임
- 2025년 2월, 필리핀 하원은 사라 두테르테 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으며, 탄핵사유는 부패, 공공신뢰 저해, 대통령 암살 위협 발언 혐의 등임
- 탄핵안은 상원의 심판을 앞두고 있으며, 이 결과는 두테르테 부통령의 정치적 미래와 2028년 대선 구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거버넌스 문제와 인권 이슈

- 로드리고 두테르테 전 대통령 시기부터 시작된 권위주의적 통치 경향이 마르코스 주니어 행정부에서도 지속되고 있다는 평가가 제기되고 있음
- 이는 시민권과 정치적 자유의 약화, 법치주의를 내세운 강압적 통치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과거 독재자 마르코스 시니어의 아들인 현 대통령의 집권으로 권위주의로의 회귀 가능성이 제기됨

- 인권 침해 문제와 언론 탄압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정부에 비판적인 활동가나 언론인들을 공산주의 동조자로 낙인찍는 '레드태깅(red-tagging)'이 횡행하고 있음
-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다수의 사법 외 살해, 불법 체포, 강제 실종 등의 인권 침해 사례가 보고되었으며, 시민사회와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한 테러 자금 조달 혐의 기소도 급증함
- 2023년 11월, 필리핀 정부는 이전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 당시 단절되었던 공산주의 반군과의 평화회담을 재개하기로 합의함
-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은 공산주의에 대한 기존 공격적 정책을 평화적 방향으로 전환하였으나, 레드태깅 등 인권문제에 관해서는 보수적 관점을 유지함

○ 2025년 필리핀 총선과 연립정부 갈등

- 2025년 5월 12일에는 하원의원 전체(317석)와 상원의원 24석 중 12석을 선출하는 총선이 이루어졌으며, 이번 선거는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 임기의 중간 평가 성격을 지님
- 이번 총선은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과 사라 두테르테 부통령 진영의 분열 이후 처음 치러진 전국적 선거로, 양 진영의 대립이 극명하게 드러남
- 상원(12석) 선거 결과,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 연합에 속한 당선자들은 5~6명에 불과하고 지방선거에서도 야당의 우세로 나타나 정치 집단 간 갈등 가능성이 높아짐
- 이러한 선거결과는 엄격한 법 집행으로 치안을 안정시킨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에 대한 필리핀 국민들의 지지가 상당함을 시사함(로드리고 두테르테 전 대통령은 현 정부에 의해 체포되어 국제사법재판소로 이송됨)
- 이번 선거결과는 부패혐의로 형사고발된 사라 두테르테 부통령에 대한 탄핵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으며, 정치 엘리트 간 갈등 체계가 존속됨을 시사함
- 의회 내 대통령 측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통령 탄핵이 결정되기 위해서는 상원 24석 중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함
- 향후 정책 중심의 정당 간 경쟁보다는 인물 중심의 정치 엘리트 계파 간 대결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짐

○ 남중국해 갈등 심화와 대외 정책

-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공세적인 해양 활동이 지속됨에 따라 필리핀과의 영유권 분쟁이 격화되고 있음
- 중국은 '구단선'을 근거로 남중국해 대부분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필리핀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서의 활동을 방해하고 있으며, 이는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음
-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은 남중국해 문제에 있어 중국의 공세에 대해 강경한 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있음
-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은 필리핀의 주권을 침해하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저항할 것이며, 필리핀 국민의 사망을 초래하는 고의적 행위는 '전쟁 행위'로 간주하겠다고 천명함
- 남중국해(서필리핀해) 영유권 분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 마르코스 주니어 정부는 국제법에 기반한 외교적 해결을 강조하는 등 해양 안보 및 국제협력을 추진함
- 2023~2024년 필리핀은 해양구역법 등 관련 법률을 제정해 자국의 해양 경계와 권리를 국제법(유엔해양법협약, UNCLOS) 기준에 따라 명확히 규정하고, 영유권 강화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 해양 안보 정책 강화를 위해 '국가해양위원회' 신설 등 정부 조직을 개편하고, 해양 안보 및 국제 협력을 확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함



○ 미국 및 우방국과의 동맹·안보 협력 복원 및 강화

- 마르코스 주니어 행정부는 두테르테 전 대통령 시기 소원했던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복원하고, 남중국해 문제 공동 대응을 위해 군사 및 안보 협력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외교 정책을 전환함
- 양국은 방위협력확대협정(EDCA)을 통해 필리핀 내 미군 주둔 및 군사시설 접근을 확대하고, 연합 군사훈련의 규모와 빈도를 늘려감
- 필리핀은 일본과의 국방 협력을 새로운 수준으로 격상시키며, 양국 군대의 상호운용성을 높이는 상호접근협정(RAA) 체결을 추진하고 공동 순찰 및 군사 정보 공유를 확대함
- 일본은 필리핀에 해안 감시 레이더 및 순찰선을 제공하는 등 필리핀의 해양 안보 역량 강화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며 중국 견제에 동참함
- 필리핀은 미국, 일본, 호주가 참여하는 '스쿼드(Squad)'와 같은 다자간 안보 협의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캐나다와도 방문군 지위 협정(SOVFA)을 체결하는 등 전통적 동맹 외의 파트너십도 확대함
- 이러한 '소다자주의(minilateralism)'를 통해 필리핀은 남중국해뿐만 아니라 대만해협 문제 등 보다 광범위한 역내 안보 이슈에 공동으로 대응하려는 전략적 움직임을 보임

○ 아세안 및 역내 주요국과의 다자외교 노력과 지정학적 고려

- 필리핀은 아세안(ASEAN)의 틀 내에서 남중국해 행동준칙(COC) 협상 등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나, 회원국 간 이해관계의 차이로 인해 실질적인 진전 한계
- 2025년은 아세안 공동체 비전 달성의 중요한 해로, 필리핀은 아세안의 전략적 중요성을 높이고 '포스트-2025 비전' 수립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역내 질서 형성에 기여하고자 함
- 필리핀 정부는 대만 해협의 군사적 긴장이 자국의 경제적 안정, 잠재적 난민 유입, 그리고 15만 명이 넘는 재외 필리핀인의 안전에 미칠 심각한 영향을 국가 안보의 주요 우려 사항으로 인식하고 있음
- 지리적 근접성으로 인해 대만 유사시 필리핀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 필리핀은 한국과 수교 75주년을 맞아 외교·안보, 방산, 해양안보, 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미래지향적인 실질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발전시키고 있음
- 양국은 정기적인 해양 대화를 개최하는 등 역내 현안에 대한 공조를 강화하며, 필리핀은 미국의 동맹국이자 한국의 중요한 협력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한국과의 관계

- 필리핀과 한국은 1949년 수교 이후 한국전쟁에서의 혈맹 관계를 초석으로, 2024년 수교 75주년을 맞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됨
- 필리핀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다섯 번째 수교한 오랜 우방국으로서, 한국전쟁 당시 7,420명의 병력을 파병하여 자유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협력함
- 양국은 필리핀 군 현대화 사업 협력,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2016년) 등 국방·안보 분야에서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며 역내 안정과 평화에 기여하고 있음
- 특히 남중국해 및 한반도 안보 문제에 대한 상호 이해와 지지를 바탕으로 공동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있음
- 한-필리핀 FTA 발효를 통한 교역 증대, 한국 기업의 대 필리핀 투자 확대, 그리고 연간 140만 명이 넘는 인적 교류 등 활발한 경제사회적 교류가 진행 중임

02 경제 동향

주요 경제
지표

[필리핀의 주요 경제지표 (2020~2024)] 자료 : KOTRA(2025), 한국수출입은행(2025)

지표	단위	2020	2021	2022	2023	2024
명목GDP	십억 달러	361.5	393.7	404.3	435.7	461.6
1인당 명목GDP	달러	3,298.8	3,571.8	3,623	3,860	4,079
경제성장률	%	-9.6	6.3	7.6	5.5	5.7
실업률	%	5.1	6.6	5.7	4.7	3.8
물가상승률	%	2.5	3	5.8	5.4	3.2
재정수지 (GDP대비)	%	N/A	-6.2	-5.5	-4.4	-3.9
총수출	백만 달러	65,214	74,644	78,836	73,522	72,664
총수입	백만 달러	89,811	117,779	137,155	125,946	128,963
무역수지	백만 달러	-24,596	-43,134	-58,318	-52,424	-56,299
환율(연평균)	현지화페/달러	51.8	51.3	56.9	55.5	57.3
이자율	%	4	2	4.75	6.5	5.75

○ 견조한 성장세 유지 및 2025년 전망

- 필리핀 경제는 2025년 1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5.4%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기록하며, 코로나19 팬데믹의 충격에서 벗어나 점진적인 회복세를 이어감
- 이는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견조한 내수 회복과 정부 지출 확대에 힘입은 결과로 분석됨
- 다수의 경제분석기관들은 2025년 필리핀 경제가 신흥국들 중에서도 높은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글로벌 무역 불확실성 확대로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고 있음
- 캐피탈 이코노믹스 및 아시아개발은행(ADB)은 2025년 6% 경제성장률을 전망하며, 내수 증가와 사회 서비스 투자 확대를 주요 성장 동력으로 꼽음
- 반면, 세계은행은 글로벌 무역 불확실성 및 주요 교역국 간 무역 분쟁 가능성 등을 이유로 2025년 전망치를 기존 6.1%에서 5.3%로 하향 조정함

○ 내수 중심의 성장 동력 강화

- 2025년 1분기 경제 성장의 주요 동력은 가계 최종 소비 지출 증가(5.3%)와 정부 최종 소비 지출의 높은 증가율(18.7%)이었음
- 최저임금 인상, 해외근로자(OFW)로부터의 송금 유입, 그리고 선거 관련 지출 등이 내수 소비 증가를 견인하는 주요 요인으로 분석됨
- 필리핀 정부는 적극적인 재정 정책과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통해 경제 성장을 더욱 가속화한다는 방침임
- 2025년 필리핀 정부 예산은 전년 대비 9.7% 증가했으며, 특히 사회 서비스 분야의 재정 지출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필리핀 중앙은행(BSP)의 정책 완화 가능성도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 주요 산업 동향 및 물가 안정세

- 2025년 1분기에는 도매 및 소매업(6.4% 증가), 금융 및 보험업(7.2% 증가), 제조업(4.1% 증가) 등이 성장을 주도하며 경제 회복세를 이끌었음
- 농업, 임업 및 어업(2.2% 증가), 광업을 포함한 산업 부문(4.5% 증가), 서비스업(6.3% 증가) 등 모든 주요 경제 부문이 균형 잡힌 성장세를 나타냄
- 신재생에너지, 통신 등 주요 분야의 외국인 지분 제한 완화와 정부의 직업훈련 프로그램은 일자리 창출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됨
- 해외로부터의 순수취 요소 소득 증가에 힘입어 2025년 1분기 국민총소득(GNI)은 전년 동기 대비 7.5% 증가함

- 2025년 필리핀의 평균 물가상승률은 글로벌 원자재 가격 안정화와 쌀값 하락을 기반으로 3% 수준을 유지하며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
- 이는 필리핀 중앙은행의 목표 범위(2~4%)에 부합하는 수치로, 경제의 안정적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

대외경제 동향

○필리핀 경제구조 변화

- 필리핀 경제는 내수 소비가 경제 성장을 주도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총 국민 지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함
 - 해외 근로자(OFW)의 송금액 유입은 소비를 촉진하는 주요 요인이나, 이러한 소비 중심 경제는 외부 충격에 취약할 수 있음
- 필리핀 정부는 과거 농업 및 저임금 제조업 중심에서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첨단 제조산업으로의 전환을 통해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는 것에 주력 중임
 - BPO(비즈니스 프로세스 아웃소싱), IT, 디지털 서비스, 크리에이티브 산업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을 경제성장의 핵심동력으로 육성 중임
 - 또한 4대 산업 클러스터로 '산업기계 및 운송', '기술 미디어 및 통신', '보건 및 생활과학', '농업 및 식량안보'를 지정함
- 필리핀 정부는 외국인 투자 유치에 위해 외국인 소유 제한 완화, 세금 감면, 특별경제구역 인센티브 제공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CREATE MORE법'¹ 시행령을 통해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세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등 투자 환경 개선에 힘쓰고 있음

○무역 현황

- 필리핀은 만성적인 무역적자 국가로서, 2024년 필리핀의 총 수출은 약 726억 달러, 총 수입은 약 1,289억 달러로 무역수지가 약 -562억 달러를 나타냄
- 주요 수출품은 전자제품, 기계류, 광물, 코코넛 오일, 과일 및 야채 등임
 - 전자집적회로, 광섬유 케이블, 자동자료처리기계, 팜유, 농산물 세정기, 변압기, 반도체 관련 제품이며, 전자 및 반도체 제품은 다국적 전자회사의 반제품 및 완제품이 주를 이룸
- 주요 수입품은 전자 부품, 광물성 연료, 기계류, 교통장비, 철강 등임
 - 석유류(휘발유, 경유), 전자집적회로, 승용차, 토탄(석탄의 일종), 전자부품 등으로 전자 및 반도체 제조를 위한 중간재 수입 비중이 높음
- 주요 교역국으로는 미국, 일본, 중국, 싱가포르, 홍콩, 한국, 태국 등이 있음
- 필리핀 정부는 무역 다변화를 통해 경제 성장을 촉진하려는 노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유럽연합(EU)과의 자유무역협정(FTA) 논의를 재개하고 칠레와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협상에 착수함

01

기존 2021년의 CREATE 법을 보완, 개정하여 필리핀의 투자매력도를 높이기 위한 포괄적인 세제개혁 법안으로 2024년 제정됨

- 또한 한국과의 FTA를 통해 필리핀 바나나에 대한 관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여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 한국산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 철폐로 산업 협력을 강화할 계획임

[필리핀의 수출 상위 5개국(2022~2024)] 출처 : KOTRA(2025)

단위 : 백만 달러

구분	2022		2023		2024	
	국가	금액	국가	금액	국가	금액
1	미국	12,839	미국	11,411	미국	12,068
2	중국	11,853	중국	10,648	일본	10,254
3	일본	11,424	일본	10,425	홍콩	9,600
4	홍콩	10,669	홍콩	8,772	중국	9,422
5	상가폴	5,041	상가폴	3,521	한국	3,564

[필리핀의 수입 상위 5개국(2022~2024)] 출처 : KOTRA(2025)

단위 : 백만 달러

구분	2022		2023		2024	
	국가	금액	국가	금액	국가	금액
1	중국	29,913	중국	30,934	중국	34,497
2	인도네시아	13,971	인도네시아	12,283	인도네시아	11,290
3	일본	13,112	일본	10,920	일본	10,673
4	한국	12,776	미국	9,086	한국	10,020
5	미국	9,741	한국	8,879	미국	8,817

[필리핀의 수출입 상위품목(2024)] 출처 : KOTRA(2025)

단위 : 천 달러

수출 품목		수입 품목	
구분	금액	구분	금액
기타(854239)	10,416	기타(854239)	9,404
프로세서, 컨트롤러	7,959	기타(271019)	7,143
메모리	3,723	경질유와 조제품	3,925
와이어링 세트	2,456	석유와 역청유	3,710
기억장치	1,781	그 밖의 석탄	3,053
음극과 음극 형재	1,347	구리광과 그 정광	2,318
구리광과 그 정광	1,305	정미	2,261
조유	1,239	기타(100199)	2,034
기타(080390)	1,231	소형차량	1,685
정지형 변환기	1,191	소형운반차량	1,636

○ 한국과의 관계

- 한국의 對필리핀 투자 규모
 - 2023년 한국기업의 對필리핀 투자는 신규법인 47건, 투자금액 101,737천 달러로 증가추세에 있으며, 법인 설립 기준으로는 투자국가 중 12위, 전체 투자액 기준으로 35위임
 - 2024년 6월말까지 한국기업의 필리핀 투자 누적 신규법인수는 1,909건, 누적 투자금액은 4,996,702천 달러
- 한국의 對필리핀 투자 업종
 - 한국의 對필리핀 투자금액은 대부분 제조업에 집중되어 있으며, 2023년 기준 제조업 총 투자금액은 62,994천 달러임
 - 제조업에 이어 부동산, 건설, 정보통신, 도매 및 소매, 교육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 순으로 투자금액이 나타남

[한국의 對필리핀 투자 추이]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2025)

단위 : 천 달러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6월말 누계
신규법인수	17	42	47	1,909
투자금액	85,587	88,344	101,737	4,996,702

- 교역(한국무역협회, 2025)
 - 2024년 기준, 한국의 對필리핀 수출액은 102.5억 달러로 전년 대비 13.7% 증가하였으며, 수출국가 순위 13위임
 - 對필리핀 수출 상위 품목은 경유, 반도체, 휘발유, 무선통신기기부품 등임
 - 2024년 기준, 한국의 對필리핀 수입액은 44.3억 달러로 전년 대비 4.6% 증가하였으며, 수입국가 순위 28위임
 - 對필리핀 수입 상위 품목은 산업용 전기기기, 반도체, 곡실류, 동제품 등임

[한국·필리핀의 주요 수출입 상위 품목(2023~2024 기준)] 출처 : KOTRA(2025)

순위	필리핀 → 한국	필리핀 ← 한국
1	집적회로반도체	경유
2	전동기	집적회로반도체
3	제어용케이블	휘발유
4	과실류	무선통신기기부품
5	동괴 및 스크랩	동조가공품
6	변성기	개별소자반도체
7	연초류	제트유 및 등유
8	동광	철도차량
9	음향기기부품	합성수지
10	기타섬유제품	안료

외국인투자 관련

○ 주요 외국인직접투자(FDI) 동향

- 필리핀의 외국인직접투자 금액은 최근 5년간 연간 60~120억 달러를 나타내고 있으며, 2023년 외국인직접투자 금액은 약 62억 달러로 전년 대비 증가하였음
- 2023년 외국인직접투자 금액은 전년 대비 4.5% 증가하였으나,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및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과거 외국인투자금액 대비 높지 않은 수준

○ 필리핀 정부는 외국인직접투자의 지속적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유치 제도 개정을 통해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있음

- 2022년 기업회복 및 세제혜택법(CREATE Act) 시행으로 법인세율 인하 및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 외국인투자법(FIA), 공공서비스법(PSA), 소매업자유화법(RTLA) 등의 개정을 통해 외국인 소유 제한을 완화하고 투자절차 간소화 및 원스톱 서비스 확대

【對필리핀 외국인직접투자 규모】 자료 : KOTRA(2025)

단위 : 백만 달러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투자액	8,671	6,822	11,983	5,939	6,210

○ 투자 현황 및 환경

- 필리핀 정부는 외국인 투자유치를 확대하고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2025~2028 전략적 우선 투자계획(SIPP)을 수립하여 시행함
- 12개 선호 산업 분야는 ▲국가 위기(코로나19 등) 대응 관련 산업 ▲Balik Probinsya Program 연계 지방 투자 ▲제조업 ▲농업, 수산업, 임업 ▲전략 서비스 산업 ▲보건 서비스 및 재난 위험 경감 ▲대중 주택 공급 ▲인프라 및 물류 ▲혁신주도산업 ▲중소기업 연계산업 ▲환경 및 기후변화 ▲에너지 등
- 필리핀의 대표적인 외국인 투자유치 기관은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경제구역청(PEZA)과 투자청(BOI), 그리고 특정 특별경제구역을 기반으로 하는 수빅만 경제구역청(SBMA), 클락개발공사(CDC)가 있음
- BOI와 PEZA는 모두 필리핀 통상산업부(DTI) 산하기관이며, CDC, SBMA는 독립기관 성격
- PEZA는 제조업, IT, 관광, 의료관광, 농업 지원을 위해 특정 지역 또는 기업 자체 소재지를 특별경제구역으로 지정하고 인센티브를 부여
- 반면 BOI는 프로젝트 베이스로 기업 투자 건을 심사하며, 주로 천연자원, 신재생 에너지, 인프라 사업에 대한 인센티브 심사, 부여업무를 수행

- 2024년 11월, 필리핀 정부는 동남아시아 지역 내 투자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존 CREATE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CREATE MORE법'을 제정함
-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필리핀 내 모든 과세 대상 법인에 적용되며, 주요 내용으로는 법인세율을 기존 25%에서 20%로 추가 인하함
- 특별법인소득세율(SCIT) 및 Enhanced Deduction(ED) 인센티브 적용 기간을 17년에서 27년으로 연장함
- 또한, 부가가치세 면세범위를 확대하여 수출 기업 및 등록된 내수 기업이 프로젝트 활동에 직접적으로 투입된 경비와 서비스 비용에 대해 VAT 영세율을 적용하고 지방세 간소화를 시행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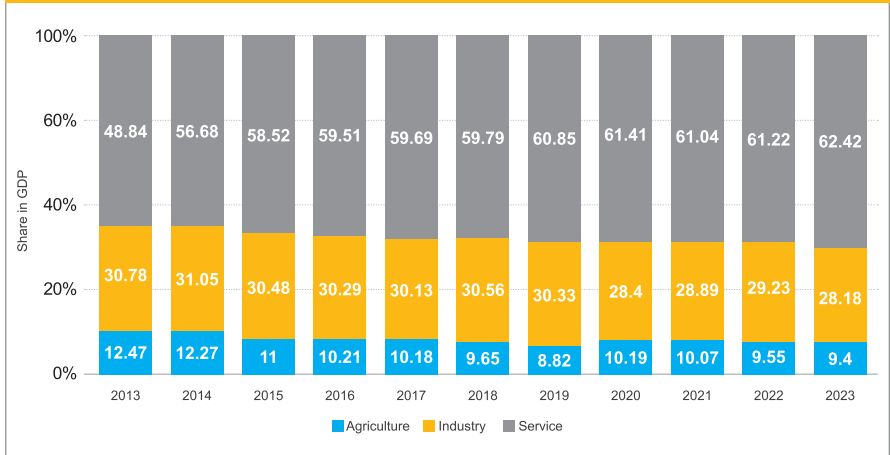
03 산업 동향

산업 개요

○ 필리핀 산업 주요 특징

- 필리핀 경제는 서비스업이 국내총생산(GDP)의 60% 이상을 차지하며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제조업 비중은 낮음
- 서비스업 중에서는 '도매 및 소매업' 비중이 가장 크며, '금융 및 부동산', '운송, 통신 및 보관' 등의 순으로 나타남
- 특히 관광, 비즈니스 프로세스 아웃소싱(BPO), 건설 등의 비중이 높으며, 약 1,000만 명에 달하는 해외 근로자의 송금을 기반으로 한 소비 중심 경제의 특징이 나타남
- 제조업 부문은 전자 및 반도체 등 일부 특정 분야에 집중되어 있으며, 전반적인 산업 기반은 다소 취약함
- 역사적으로 필리핀 산업 부문의 상당 부분은 외국 다국적 기업이 주도하는 전자제품 및 기타 첨단 부품의 가공 및 조립 작업에 기반을 두고 있음
- 농업 부문은 전체 고용의 20% 내외를 차지하며 국가경제의 중요한 축임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업과 제조업에 비해 GDP 기여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
- 신흥 산업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필리핀은 여전히 규모가 큰 농업 부문을 보유한 경제 구조를 가짐

필리핀 주요산업별 GDP 비중(%) (2013~2023) 출처 : Statista(2025, Philippines : Share of economic sectors in GDP)



○ 주요 산업발전 정책

- 필리핀 정부는 '필리핀 개발계획(PDP) 2023~2028'과 '전략적 우선 투자 계획 (SIPP)'을 통해 경제 성장, 빈곤 감소 및 중상 소득국가로의 전환을 목표로 하는 포괄적인 산업 발전 방향을 제시함
 - 이 계획들은 투자와 소비 활성화, 생산성 향상, 농촌 개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사회 보호 강화 등 다양한 정책 목표를 포함함
- 핵심 전략으로 산업 및 농업의 현대화, 디지털 전환 가속화, 혁신 생태계 조성, 서비스업 고도화 등을 추진하여 경제 다각화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도모함
 - 특히 제조업 부흥 정책을 통해 고부가가치 창출 및 글로벌 가치사슬 편입을 목표로 하며,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농업 기반 제조업 육성에도 주목함
-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관련 법 개정, 소매업 부문 개방, 법인세 인하 등 투자환경 개선 노력과 함께 'Build Better More(BBM)' 프로그램과 같은 대규모 인프라 구축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산업 발전의 기반을 강화함
 - 더불어 2022년 창조산업발전법(Creative Industries Development Act) 제정 등 특정 유망 산업에 대해서는 연구개발(R&D) 지원, 디지털화 지원, 인프라 제공과 같은 맞춤형 육성책도 병행함

정보기술- 사업프로세스 관리 (IT-BPM) 산업

○글로벌 경쟁력 확보

- 필리핀 IT-BPM 산업은 세계 시장에서 인도에 이어 2위의 점유율(17~18%)을 차지할 정도로 강력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음
- 2024년 기준 필리핀 국내총생산(GDP)의 약 8%를 점유하고 180만 명 이상을 고용하는 등 경제 기여도가 높음
- 높은 영어 구사 능력, 서구 문화에 대한 이해도, 비교적 저렴한 인건비 등이 타 국가와 대비한 주요 경쟁력으로 작용함

○주요 추진사업 및 발전정책

- 필리핀 경제구역청(PEZA)을 중심으로 IT 기업 단지 및 센터를 조성하고 외국 기업 유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음
- 전통적인 콜센터 업무를 넘어 소프트웨어 개발, 데이터 분석, 의료 정보 관리, 애니메이션 제작, 게임 개발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음
- 글로벌 기업들의 디지털 전환 수요 증가에 따라 고객 지원, 소프트웨어 개발, 데이터 분석 등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고 있음
-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도 재택근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5년까지 연 매출 350억 달러 달성이 예상됨
- 필리핀 정부는 특별경제구역법(Special Economic Zone Act)을 통해 IT-BPM 기업에 세금 감면, 통관 및 입국 절차 간소화 등의 혜택을 제공하며 산업 성장을 지원함
- 정부는 디지털 전환 가속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를 통해 IT-BPM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

반도체 및 전자산업 중심의 제조업

○필리핀 수출 견인

- 제조업은 2023년 필리핀 GDP의 16% 이상을 차지하고 노동력의 약 7%를 고용하는 주요 산업으로, 특히 반도체 및 전자기기는 필리핀 최대 수출 품목(전체 수출의 약 45% 견인)
- 외국인 직접투자(FDI) 증가와 내수 시장 성장에 힘입어 회복 및 확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주요 분야는 전자, 자동차, 식품 가공 등임

○주요 추진사업 및 발전정책

- 단순 조립을 넘어 보다 복잡하고 고부가가치를 지닌 전자부품 생산으로 전환을 추진 중임

- 특히,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패널 등 녹색 산업 관련 제품 생산 확대를 위한 노력을 기울임
- 정부의 'Build Better More(BBM)' 인프라 개발 프로그램이 제조업 성장을 간접적으로 지원함
- 최근 '반도체·전자 산업 자문위원회'를 신설하여 산업 성장 지원 및 로드맵 수립을 추진하고 있음
- 규제 간소화, 현지 공급업체 육성, 연구개발(R&D) 투자 강화 및 노동력 숙련도 향상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공급망 인프라를 확충하고 있음

신재생에너지 산업

○ 미래 성장동력 확보

- 필리핀은 지리적 위치로 인해 기후변화에 매우 취약한 국가로 평가되며(세계 4위), 이에 따라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고 있음
- 풍력 및 태양광을 중심으로 약 99GW 규모의 프로젝트가 확보되어 있으며, 높은 신재생에너지 잠재력과 생산 비용 하락을 바탕으로 성장 가능성이 큰 분야임
- 현재 에너지 부문은 2024년 약 7%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신재생에너지 발전이 주요 동력임

○ 주요 추진사업 및 발전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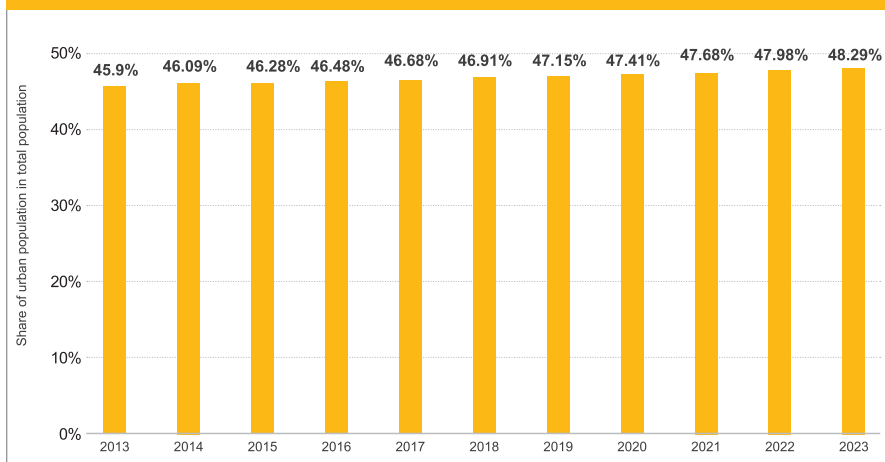
- 잉여 신재생에너지 용량을 활용해 대만 등 인근 아시아 국가로 전력을 수출하는 방안을 추진 중임
- 세계 2위 수준의 막대한 니켈 매장량을 활용하여 배터리 생산 등 관련 산업 육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15억 달러 규모의 국내 시장을 목표로 하고 있음
- 2030년까지 전력원 내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35%, 2040년까지는 50%로 확대한다는 명확한 목표를 설정함
 - 태양광 발전 부문에서 2023년부터 2030년까지 연간 생산량을 두 배 이상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함
-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외국인 자본 100% 소유를 허용하여 투자 유치를 적극적으로 장려함
 - 약 260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와 미국·일본 등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동남아 신재생에너지 수출 허브로 자리매김하려는 구상을 추진 중임

필리핀의
도시화 및
건설동향

○ 도시화 현황

- 필리핀의 도시화율은 2023년 기준 약 48.3%로, 전체 인구의 절반 미만이 도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는 아세안 평균 도시화율(50%대)보다는 다소 낮은 수치임
- 그러나 필리핀의 연평균 도시인구 증가율은 세계 평균보다 높아 꾸준히 도시화가 진행 중이며, 2025년 도시화율이 약 52%에 이를 것으로 전망함
- 특히 메트로 마닐라와 같은 주요 대도시들은 극심한 인구 집중 현상을 보이며, 마닐라 시의 경우 2020년 기준 인구밀도가 1km²당 43,062명에 달해 서울의 약 2.7배 수준임
- 이러한 과도한 인구 집중은 도시 지역의 주택 부족, 교통 혼잡, 공공 서비스 부담 가중, 환경 문제 등 다양한 도시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 필리핀의 도시화는 농촌에서 도시로의 이주 및 자연 인구 증가가 주요 원인이며, 유엔(UN)은 2050년까지 필리핀 인구가 1억 4,800만 명에 이르고 이 중 대다수가 도시에 거주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 이러한 급격한 도시화는 메트로 마닐라 등 특정 대도시에 개발이 집중되는 불균형적 양상을 보여, 관리되지 않을 경우 혼잡, 슬럼, 오염 등의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필리핀의 도시화율 출처 : Statista(2025)



○ 도시화 대응 프로그램

- 필리핀 정부는 도시화로 인한 문제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해 2024년 초 'PLANADO(Plan and Do)' 프로그램을 출범시켜, 종합토지이용계획(CLUP) 및 지방개발물리기본계획(PDPFP) 수립을 현대화하고 디지털화함
- 이 프로그램은 2028년까지 모든 지방 정부 단위의 토지 이용 계획 수립 지원을 해소하고, 기후변화에 탄력적이며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하고 사회적으로 포용적인 도시와 커뮤니티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함
- 마르코스 행정부는 국가의 전략적 인프라 개발을 촉진하는 'Build Better More(BBM)' 계획의 일환으로, 2023년 12월 새로운 공공-민간 파트너십(PPP) 법안에 서명하여 도시 인프라 확충 및 개선을 적극 추진함
- 신규 PPP 법안은 기존 BOT(건설-운영-이전)법을 대체하며 합작 투자, 임대 계약 등 다양한 형태의 민관 협력을 포괄하고 프로젝트 승인 절차를 명확히 하여,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고 도시 기반 시설 부족 문제를 해결함
- 정부는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첨단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시티 개발 사업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도시화의 질을 높이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려는 노력임
- 대표적인 프로젝트로 뉴 클락 시티, 클락 스마트시티 개발사업 등이 있음
- '디지털 시티 2025' 계획과 같이 특정 도시를 중심으로 IT 역량을 강화하고 관련 산업 육성을 추진하고 있음

○ 필리핀의 건설시장 동향

- 필리핀 건설시장은 정부의 적극적인 인프라 투자 확대와 도시화에 따른 수요 증가에 힘입어 꾸준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 IMARC 그룹은 필리핀 건설시장이 2025년부터 2033년까지 연평균 4.80% 성장하여 2033년에는 600.8억 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예측함
- 정부의 'Build Better More(BBM)' 프로그램은 도로, 공항, 항만 등 교통 인프라와 디지털 연결망, 수자원 관리 등 다양한 분야의 대규모 프로젝트를 포함하며 건설시장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동력임
- BBM 프로그램은 총 1,570억 달러 규모의 197개 인프라 플래그십 프로젝트(IFP)를 추진 중이며, 이는 국가의 전략적 인프라 개발을 촉진하고 민간 투자를 확대하는 데 기여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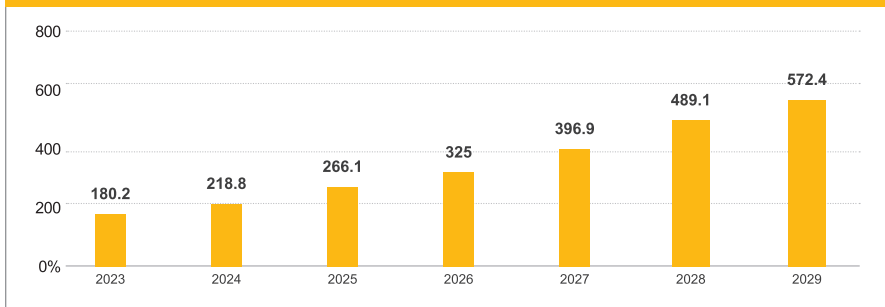
스마트시티 추진 동향

○스마트시티 추진 여건

- 도시화 문제해결과 스마트시티
 - 필리핀의 도시인구 비율은 2015년 46.3%에서 2023년 48.3%로 급속하게 증가하였으며, 2050년에는 1억2백만 명이 도시에 거주할 것으로 전망됨
 - 급격한 도시화에 따른 인프라, 공공서비스, 자원제공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리핀 정부는 스마트시티를 촉진하는 프로그램과 정책을 시행 중임
- 스마트시티 시장규모 및 전망
 - 필리핀의 2025년 스마트시티 시장규모는 약 266백만 달러(추정치)로 2024년 대비 21.7% 증가함
 - 필리핀의 스마트시티 시장규모는 2025년에서 2029년까지 연평균 21.1%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어, 2029년의 시장규모는 약 572백만 달러에 이를 전망임

필리핀 스마트시티 시장규모 전망 출처 : Statista(2024), KOTRA(2024b)에서 재인용

단위: 백만 달러



○스마트시티 관련 정책

- 과학기술부(DOST), 스마트 지속가능 커뮤니티 프로그램(SSCP)
 - SSCP는 과학기술부 및 관련부처 그리고 지방정부 간의 협력을 통해 디지털 전환, 환경 보존, 재난 회복력 향상 등 시민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함
 - 2016년 SSCP 로드맵이 발표되었으며, 2024년 정보통신기술부, 내무부, 지방정부, 관광부 등과 공식 협약(MOU)을 체결하여 추진 중임
 - 과학기술부는 지방정부 단위(LGU)가 스마트 이니셔티브를 구현할 수 있도록 지역 및 지방 사무소의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자금 지원, 연구 지원, 기술 배포 등을 지원함
- 디지털 시티 2025 (Digital Cities 2025)
 - 정보통신기술부(DICT)는 필리핀 정보기술경영협회(IBPAP), 리치우 부동산 컨설턴트(LPC)와 협력하여 '디지털 시티 2025' 이니셔티브를 시작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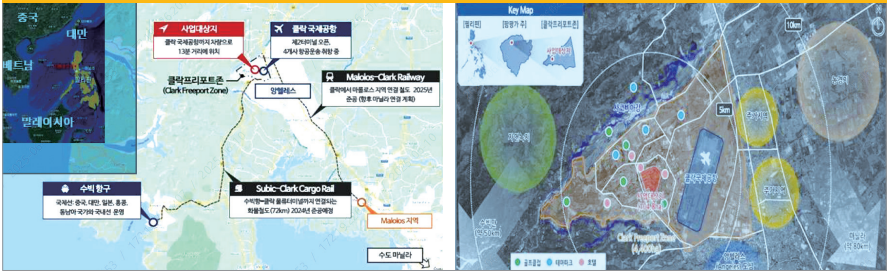
- 정보 기술 및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IT-BPM) 부문의 급속한 성장을 유지하고 지방 개발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선정된 25개 도시를 중심으로 ICT 허브를 조성하여 투자 유치 및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며, 이를 통해 수도권 외 지역의 경제를 강화하고 거버넌스 시스템을 개선함

○ 주요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 뉴 클락 시티(New Clark City) 프로젝트
 - 뉴 클락 시티는 필리핀 최초의 스마트하고 친환경적이며 재해에 강한 도시를 목표로 하는 국가적 핵심 프로젝트이며, 국가균형발전에도 기여함
 - 클락 특별경제구역 내 탈락(Tarlac)주 카파스(Capas)에 위치하며, 면적은 9,450(ha)이고, 120만 명의 인구 및 60만 명 이상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함
 - 개발사업시행은 기지전환개발청(BCDA)이 총괄하고 있으며, 클락 국제공항 확장, PNR 마닐라-클락 철도연결 사업 등 인프라사업이 추진 중에 있음
 - 스마트 ICT 인프라, 스마트 전력 및 에너지, AI 기반 스마트 모빌리티 시스템이 구축 중에 있으며, 100(ha) 규모의 산업단지도 추진 중임
- 클락(Clark)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 필리핀 팜팡가주에 위치한 클락프리포트존(Clark Freeport Zone) 내 약 104(ha) 규모로 계획된 스마트시티 개발 프로젝트임
 - 필리핀 정부와 한국 정부 간 협력(G2G) 하에 추진되고 있으며, LH(한국 토지주택공사)와 현지 파트너(클락개발공사 등)가 참여해 스마트시티 기술과 한국형 도시개발 노하우를 접목하려는 특징이 있음
 - 클락국제공항과 연계한 물류 허브 도시, MICE(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 및 관광·휴양 도시, 항공정비 산업도시로 개발할 계획임



클락 스마트시티 개발사업 입지 출처: 한국토지주택공사(2022)



[참고문헌]

- » 국제통상신문(2025.1.9), "필리핀, 2025년 무역 다변화로 경제 성장 모색"
- »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22.5), "2022년 필리핀 대선 결과 평가와 주요 정책 방향 전망". KIEP 세계경제 포커스
- »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25.5), "세계은행, 2025년 필리핀 경제성장률 전망치 5.3%로 하향", AIF 아세안
- »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25.4), "ADB, 2025년 필리핀 경제성장률 6% 달성 전망", AIF 아세안
- »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25.2), "필리핀 하원, 사라 두테르테 부통령 탄핵안 가결...중간선거에 앞서 정치권 분열 심화", AIF 아세안
- »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25.2), "필리핀, 2025년 신흥국 경제성장률 선두 전망", AIF 아세안
- »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25.1), "필리핀, 남중국해 내 '괴물 함정' 배치 관련 공식 항의 제기", AIF 아세안
- »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24.11), "필리핀 대통령,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속 신규 해양법 서명", AIF 아세안
- »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24.6), "필리핀 국민의 중국 불안감 고조...남중국해 분쟁 ...", AIF 아세안
- »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23.8), "필리핀, 국가 안보 정책 보고서에서 대만 문제 언급", AIF 아세안
- » 필리핀 뉴스케이(2025.5.11), "필리핀 경제, 2025년 1분기 5.4% 성장"
- » 세종연구소(2025.12), "2024년 아세안 정세 평가와 2025년 전망", 세종포커스
- » 연합뉴스(2025.4.30.), "필리핀 남중국해 영유권 '전방위대응'"
- » 한국무역협회(2025), 글로벌 무역통계 서비스(필리핀)
- » 한국수출입은행(2024), 2025 세계국가편람
- » 한국토지주택공사(2022), "LH, 필리핀 최초 한국형 스마트시티 개발사업 추진", 보도자료
- » BCDA(2022), Clark Primer
- » KOTRA(2025), 해외시장뉴스-국가지역정보-필리핀
- » KOTRA(2024a), 2025 필리핀 진출전략
- » KOTRA(2024b), 2024 SMART CITY 해외진출 전략보고서
- » KOTRA(2017), 해외시장뉴스("필리핀의 스마트도시(뉴 클락시티) 개발사업")
- » 주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https://www.mofa.go.kr/ph-ko/index.do>
- » 필리핀 통계청(Philippine Statistics Authority), <https://psa.gov.ph/>
- » 필리핀 중앙은행(Bangko Sentral ng Pilipinas), <https://www.bsp.gov.ph/>
- » 필리핀 재무부(Department of Finance), <https://www.dof.gov.ph/>
- » 필리핀 에너지부(Department of Energy), <https://www.doe.gov.ph/>
- » 필리핀 농업부(Department of Agriculture), <https://www.da.gov.ph/>
- » 필리핀 무역산업부(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https://www.dti.gov.ph/>
- » APFC, <https://www.asiapacific.ca/publication/marcos-jr-duterte-fight-steer-philippines-for-foreign-policy>
- » BKCF, https://www.bimp-korea.org/trend_test/news.php
- » BTI, <https://bti-project.org/en/reports/country-report/PHL>
- » East Asia Forum, <https://eastasiaforum.org/2024/01/19/politics-and-press-under-pressure-in-the-philippines/>
- » IDEA, <https://www.idea.int/democracytracker/country/philippines/>
- » STATISTA, <https://statista.com/>

P 해외개발
Preview

사업여건

인프라 여건

투자 여건

한국의 對필리핀 수주현황

對필리핀 국제개발협력사업 현황

III 사업여건

유종훈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전문위원

01 인프라 여건

인프라 여건 총평

- 필리핀은 극심한 교통체증, 국제공항의 수용능력 부족, 항만 혼잡 등으로 대표되는 열악한 인프라환경을 가지고 있으며¹ 주변 국가에 비해 인프라개발이 상대적으로 뒤쳐져 있다는 평가²를 받고 있음
 - 원인은 여러 가지가 지적되고 있으나 재정적 한계, 행정절차 지연, 토지권한 및 수용 문제, 인프라 적시공급·대응 미흡, 항만·공항인프라의 구조적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연계
 - 필리핀 정부는, 현 마르코스 행정부 출범 이후 국가적 개발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 법제도적 보완 등 인프라 수요에 대응하고자 여러 정책적 대안을 모색 중임
- 필리핀의 인프라개발시장·산업 등 개발여건에 대한 외부의 평가를 종합하면, 내부적 리스크 저감, 자원 확보 등 여러 도전과제가 존재하나 정부의 인프라개발 의지, 준비도 측면 등에서 성장잠재력을 인정받고 있으며, 향후 민관협력 확대, 행정절차 간소화 및 사업적시성 확보 등 정책적 노력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01 필리핀 주요 도시의 교통체증 등은 국제기구도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것으로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 ADB)은 마닐라가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교통체증이 심하며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도 상당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동남아시아에 많은 인프라투자를 하는 일본국제협력기구(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JICA) 역시 교통체증으로 인한 마닐라의 경제적 손실이 일평균 35억 페소(2019년 기준)로 추산하면서 이러한 교통체증이 지속될 경우 2035년경, 손실규모는 일평균 54억 페소 수준으로 커질 것으로 우려(https://www.emerics.org:446/aif/issueDetail.es?brdctNo=309796&mid=a30200000000&search_option=ALL&search_keyword=&search_year=&search_month=&search_tagkeyword=&systemcode=03&search_region=&search_area=2¤tPage=69&pageCnt=10, 검색일자 : 2025.3.10.)

02 <https://www.trade.gov/country-commercial-guides/philippines-transport-infrastructure>(검색일자 2025.3.10.)

- Global Infrastructure Hub(GI Hub)³에서 조사·제공하는 InfraCompass⁴에 따르면, 계획(Global Leader), 규제 프레임워크·조달(Top performer) 부문이 필리핀 인프라건설시장을 주도하는 주요 성과요인으로 평가하고 있음
- ‘계획’ 부문 평가의 상세내용을 살펴보면, 인프라계획 및 프로젝트 파이프라인 공개, 경제분석·시장조사·환경영향분석 수행 등이며, 특히 전문기관을 통한 PPP 준비(Preparation of PPPs)가 높은 평가를 받음
- 다만, 경제성장을 통한 자금조달 능력 확충(특히, 정부부채 감소), 금융시장 확대(거래 주식규모) 등이 필리핀 인프라건설시장 확대를 위한 선결과제로 제시됨

[필리핀 인프라건설시장 평가결과] 출처 : GI Hub InfraCompass 홈페이지(검색일자 2025.3.10.)

구분	순위(1-81)	점수(0-100 best)	성과(Best practice)
거버넌스(Governance)	59	46.5	Contender
규제 프레임워크 (Regulatory frameworks)	32	62.8	Top performer
허가(Permits)	61	48.5	Contender
계획(Planning)	7	97.7	Global Leader
조달(Procurement)	40	74.6	Top performer
활동(Activity)	21	44.9	Contender
자금능력(Funding capacity)	39	36.0	Aspiring
금융시장(Financial markets)	36	38.2	Aspiring

- 인접 국가와 비교한 결과,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과 유사한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들 국가는 공통적으로 인프라갭(Infrastructure Gap)이 GDP의 1% 내외 수준임

03 세계은행 민간인프라자문기구(Public-Private Infrastructure Advisory Facility, PPIAF)의 일부로, G20이니셔티브의 상설 이행기구로 출범하였으며 G20회원국의 인프라개발 프로젝트를 공유하고 개발도상국 등에 건설기술 지원 등을 수행함

04 InfraCompass는 GI Hub가 운영하는 인프라 평가 도구로, 전세계 GDP의 93%와 세계 인구 86%를 차지하는 주요 81개국의 데이터를 집계하여 인프라건설시장과 환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있음. InfraCompass에서 제공하는 평가항목은 거버넌스, 규제, 허가, 계획, 조달, 활동, 자금조달능력, 금융시장이며, 각 평가항목마다 세부 평가항목이 있어 국가별 상세 평가항목 확인은 GI Hub InfraCompass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음(<https://infocompass.gihub.org/>)

구분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미얀마	캄보디아
1인당 GDP	3,576	4,361	3,718	7,232	1,217	1,662
인구(백만 명)	110.2	272.2	98.5	70.0	53.6	15.8
인프라 질(1-100)	57.8	67.7	65.9	67.8	-	54.9
인프라투자 (% of GDP)	3.7	5.0	6.3	3.1	4.1	7.6
인프라갭 (% of GDP)	0.5	0.2	1.2	0.7	3.9	3.3
거버넌스	46.5	64.9	53.4	48.7	37.0	39.6
규제 프레임워크	62.8	60.0	53.5	63.8	42.4	59.4
허가	48.5	70.9	63.5	82.0	57.5	15.7
계획	97.7	94.4	75.3	88.9	7.0	62.2
조달	74.6	61.6	64.0	78.3	56.5	46.9
활동	44.9	33.9	65.1	40.2	30.4	35.2
자금능력	36.9	36.5	28.0	40.4	41.5	22.2
금융시장	38.2	33.7	46.7	72.3	41.7	42.0

- 한편, 글로벌 컨설팅사인 Fitch Solution에서 조사·발표한 ‘아·태지역 인프라 부문 위험/보상지수(Risk/Reward Index, RRI)⁵를 살펴보면, 필리핀의 RRI는 61.3(2021년 기준)으로 역대 21개국 중 8위(글로벌 19위)에 해당(글로벌 평균 50.0, 역대 평균 56.3)
- 역대 국가의 RRI 분포를 살펴보면, 필리핀은 인도,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캄보디아와 함께 고수익·고위험(High Rewards-High Risks)군에 포함

05
인프라건설사업
추진시 보상(건설산업
가치, 건설산업
실질성장률 등), 위험
(인프라경쟁구도,
적시성, 계약, 법적 환경,
노동시장 등) 요인분석,
국가위험도(장·단기
경제·정치적 리스크,
운영리스크 등) 관련
평가를 통해 해당국의
인프라개발시장 현황
등 파악하기 용이함

아시아 · 인프라 지역 인프라 부문 RRI(2021년 기준) 출처 : Fitch Solution(2021)



[역내 인프라 부문 RRI 종합(2021년 기준)] 출처: Fitch Solution(2021)

구분	산업보상	국가보상	보상	산업위험	국가위험	위험	RRI (위험/보상)	역내 순위	글로벌 순위
호주	66.3	59.0	63.4	92.9	81.3	87.1	72.9	1	2
싱가포르	61.5	56.3	59.4	96.4	88.5	92.5	72.6	2	3
홍콩	62.9	51.5	58.3	88.4	78.9	83.7	68.5	3	5
말레이시아	72.2	56.9	66.1	70.2	69.4	69.8	67.6	4	7
베트남	82.4	50.3	69.5	52.8	59.5	56.1	64.2	5	12
뉴질랜드	37.5	51.5	43.1	93.7	91.9	92.8	63.0	6	14
중국	65.0	59.0	62.6	53.0	72.7	62.8	62.7	7	15
필리핀	76.7	56.5	68.6	50.4	50.1	50.2	61.3	8	19
인도네시아	76.1	56.9	68.4	42.6	54.4	48.5	60.4	9	21
인도	78.0	51.7	67.5	42.2	51.2	46.7	59.2	10	24
타이완	35.9	46.4	40.1	83.0	86.2	84.6	57.9	11	28
대한민국	35.0	50.3	41.1	75.0	86.4	80.7	56.9	12	32
일본	34.0	54.6	42.2	72.2	78.2	75.2	55.4	13	36
태국	63.1	42.3	54.8	53.1	52.4	52.8	54.0	14	43
방글라데시	79.9	53.6	69.4	12.2	35.8	24.0	51.2	15	53
몽골	53.6	51.5	52.7	44.6	35.8	40.2	47.7	16	65
파키스탄	69.3	56.1	64.0	21.7	18.7	20.2	46.5	17	69
캄보디아	71.2	38.6	58.2	11.5	25.7	18.6	42.3	18	77
라오스	65.7	39.6	55.3	15.7	23.0	19.4	40.9	19	82
스리랑카	47.9	37.7	43.8	27.4	42.4	34.9	40.2	20	85
미얀마	59.5	41.4	52.3	15.5	10.4	12.9	36.5	21	90
글로벌 평균	50.0	50.0	50.0	50.0	50.0	50.0	50.0	-	-
역내 평균	61.6	50.6	57.2	53.1	56.8	54.9	56.3	-	-

주. 100점 만점 기준, 점수가 높을수록 낮은 위험도(SCORES OUT OF 100; HIGHER SCORE = LOWER RISK)

· (보상 관련 지표) 건설산업 가치(Construction Industry Value)는 79.6, 건설 산업 실질성장률(Construction Industry Real Growth)은 99.0, 프로젝트 파이프라인의 산업가치 비중(Project pipeline, % of Industry Value)은 51.5로, 인프라건설시장의 잠재력은 높은 것으로 평가됨

[역내 인프라 산업 보상 관련 지표(2021년 기준)] 출처: Fitch Solution(2021)

구분	건설산업 가치	건설산업 실질 성장률	프로젝트 파이프라인의 산업가치 비중	산업보상도 (Industry Rewards)
호주	91.3	63.1	44.7	66.3
싱가포르	51.5	68.0	65.0	61.5
홍콩	54.4	49.0	85.4	62.9
말레이시아	60.2	75.7	80.6	72.2
베트남	66.0	90.8	90.3	82.4
뉴질랜드	53.4	29.1	30.1	37.5
중국	100	70.9	24.3	65.0
필리핀	79.6	99.0	51.5	76.7
인도네시아	94.2	87.4	46.6	76.1
인도	96.1	81.6	56.3	78.0
대만	68.0	12.6	27.2	35.9
한국	90.3	5.8	8.7	35.0
일본	98.1	1.9	1.9	34.0
태국	59.2	64.1	66.0	63.1
방글라데시	76.7	92.2	70.9	79.9
몽골	4.9	56.8	99.0	53.6
파키스탄	35.9	76.7	95.1	69.3
캄보디아	39.8	97.1	76.7	71.2
라오스	15.5	88.3	93.2	65.7
스리랑카	34.0	89.3	20.4	47.9
미얀마	41.7	72.8	64.1	59.5
글로벌 평균	50.0	50.0	50.0	50.0
역내 평균	62.4	65.3	57.1	61.6

주. 100점 만점 기준, 점수가 높을수록 우수한 사업여건 보유(SCORES OUT OF 100; HIGHER SCORE = LOWER RISK)

- (위험 관련 지표) 인프라경쟁구도(Infrastructure Competitive Landscape)는 72.3, 적시성(Construction-Timeliness)은 38.8, 건설 계약(Construction-Contracts)은 56.3, 법적 환경(Legal Environment)은 34.0, 노동시장의 위험도(Labour Market Risk)는 50.5로 나타나 사업추진의 적시성 확보, 법제도적 환경 구축이 주요 과제로 평가됨

[역내 인프라 산업 위험 관련 지표(2021년 기준)] 출처 : Fitch Solution(2021)

구분	인프라 경쟁구도	적시성	계약	법적 환경	노동시장 위험도	산업위험도 (Industry Risks)
호주	87.4	93.2	99.5	95.1	89.3	92.9
싱가포르	95.6	96.1	91.3	100.0	99.0	96.4
홍콩	72.3	97.1	86.4	91.3	95.1	88.4
말레이시아	72.3	88.3	38.8	73.8	77.7	70.2
베트남	34.0	76.7	73.8	35.9	43.7	52.8
뉴질랜드	95.6	99.0	85.4	97.1	91.3	93.7
중국	8.7	41.7	96.1	59.2	59.2	53.0
필리핀	72.3	38.8	56.3	34.0	50.5	50.4
인도네시아	51.9	37.9	33.0	38.8	51.5	42.6
인도	51.9	51.5	48.5	40.8	18.4	42.2
대만	51.9	100.0	97.1	84.5	81.6	83.0
한국	34.0	94.2	89.3	80.6	76.7	75.0
일본	34.0	72.8	80.6	83.5	90.3	72.2
태국	51.9	61.2	40.8	46.6	65.0	53.1
방글라데시	2.9	12.6	7.8	6.8	31.1	12.2
몽골	34.0	78.6	30.1	30.6	49.5	44.6
파키스탄	51.9	8.7	17.5	21.4	8.7	21.7
캄보디아	18.4	3.9	1.0	4.9	29.1	11.5
라오스	8.7	31.1	3.9	17.5	17.5	15.7
스리랑카	8.7	53.4	19.4	23.3	32.0	27.4
미얀마	18.4	36.9	0.0	2.9	19.4	15.5
글로벌 평균	50.0	50.0	50.0	50.0	50.0	50.0
역내 평균	45.6	60.7	52.2	50.9	56.0	53.1

주. 100점 만점 기준, 점수가 높을수록 위험도가 낮음(SCORES OUT OF 100; HIGHER SCORE = LOWER RISK)

○(국가비전) 필리핀 정부는, '2040년까지 필리핀을 번영하는 중산층 국가로 발전'시키기 위한 국가 장기비전인 'AmBisyon Natin 2040'(이하 '국가비전 2040')을 발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실행계획으로서 '필리핀개발계획 2023~2028(Philippines Development Plan 2023~2028, PDP 2023~2028)'을 발표(2023년 1월 대통령 행정명령 제14호)

- 국가비전 2040은 2016년부터 2040년까지 경제 성장, 생활 수준 향상,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침적 장기 비전으로, 필리핀 국가개발의 방향성과 목표를 제시하는 전략적 청사진임
- 빈곤층이 없는, 중산층 위주의 번영한 사회를 목표로 하며, 경제성장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강조
- 주택 및 도시개발, 제조업, 연계성, 교육서비스, 관광, 농업, 보건서비스, 금융서비스 성장을 중점분야로 제시(관계부처합동, 2023)

○(개발계획) 필리핀 정부는, 국가경제개발청(National Economic and Development Authority, NEDA)⁶ 주도로 PDP 2023~2028을 수립·추진하고 있으며, 매 5년마다 새롭게 수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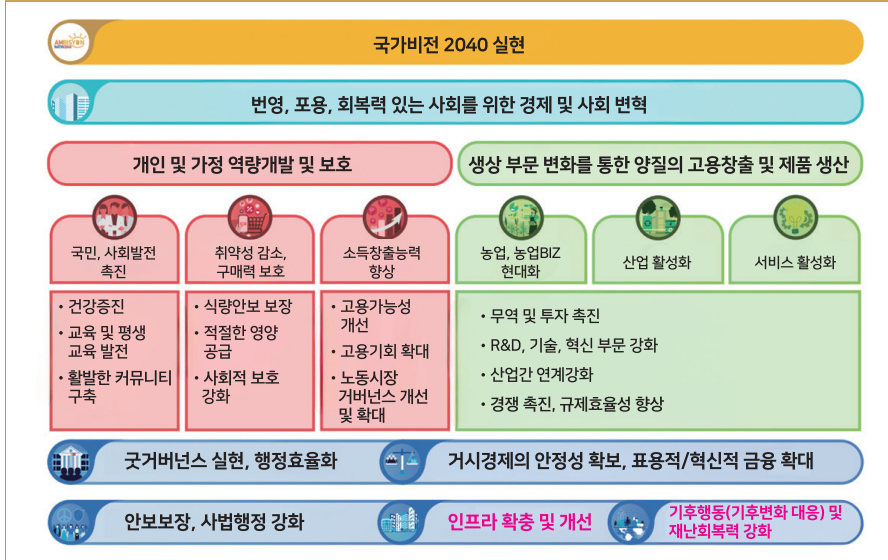
- 필리핀 경제를 고성장 궤도에 재안착시키고, 풍요롭고 포용적이며 회복력 있는 사회로 이행하기 위한 분야별 목표 제시(관계부처합동, 2023)
- PDP 2023-2028 보고서는 전체 4개 부문(Part)의 16개 장(Chapter)으로 구성됨
- 인프라 및 기후변화 대응 및 그린전환 관련 추진전략은, 제4부(발전을 위한 환경 구축, Enabling Environment) 중 제12장(인프라 확충 및 개선, Expand and Upgrade Infrastructure), 제15장(기후행동 가속과 재난회복력 강화, Accelerate Climate Action and Strengthen Disaster Resilience)에서 제시⁷

06

2025년 4월 10일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은 NEDA를 경제·계획 및 개발부(DEPDev)로 확대 개편 및 명칭 변경하는 법안에 서명하였음(기존 청(Authority)에서 부(Department) 단위로 격상 조치). 다만, 격상 이후에도 수행 업무나 인력 편제 등에 큰 변화가 없는 상황이며, 본고 작성시점(25.3)을 고려하여 본문에서는 NEDA로 표기함

07

PDP2023-2028에 따른 공공투자프로그램 2023-2028(Public Investment Program 2023-2028, PIP2023-2028)의 우선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 목록은 NEDA 홈페이지에서 PDP 카테고리별 다운로드 및 확인 가능(https://neda.gov.ph/public-investment-programs/?appgw_azwaf_jsc=Y-L-Pkj2QxfawE5xFuolAD9LQKTSJeafrEp4SpmpY, 확인일자 2025.3.10.)



[PDP 2023-2028 중 인프라 및 기후변화 관련 전략 주요 내용(요약)] 출처 : NEDA(2023a)를 활용하여 저자 요약·정리

구분	<제12장> 인프라 확충 및 개선	<제15장> 기후행동 가속 및 재난회복력 강화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제 전환과 포용적 성장의 기초로서, 지속 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인프라 구축 “Build-Better-More” 프로그램 원칙에 따라 교통, 물, 에너지, 디지털, 사회 인프라 전 부문 현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후 변화 리스크 관리와 저탄소 경제 전환을 가속화 기후 회복력 강화 및 녹색 인프라 투자 확대를 통해 장기적 기후 목표 달성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결성(Connectivit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 인프라 확충 및 현대화(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 · 디지털 인프라 확장 - 수자원(Water Resourc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 수자원 관리(IWRM) 및 효율적 물 공급 시스템 구축 - 에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후 발전 설비 교체 및 신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 그리드 현대화를 통한 전력 안정성 강화 - 사회 인프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 교육, 고형폐기물 관리 등 공공·사회인프라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 및 기후 리스크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재해(태풍, 홍수, 가뭄 등)에 대비한 인프라 강화와 조기 경보 시스템 구축 - 녹색 인프라 및 에코시스템 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안·내륙 생태계 복원, 도시 녹화, 자연기반 해법(NBS) 도입 - 신재생에너지 및 탈탄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재생에너지의 에너지믹스 비중 확대 (2030년 35%, 2040년 50% 목표) · 전기차, 친환경 물류, 산업 프로세스 효율화 등 탈탄소 전략

구분	<제12장> 인프라 확충 및 개선	<제15장> 기후행동 가속 및 재난회복력 강화
전략 및 실행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 마스터 플랜: 중앙 및 지방 정부 간 협업을 통한 체계적 계획 수립 • 자산 관리 및 유지보수: 인프라 자산의 수명 주기 평가와 효과적 관리 • 민관협력(PPP) 확대: 민간 투자 및 국제 기금 활용을 통한 자원 확보 • 디지털 기술 도입: 스마트 모니터링 및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지원 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 대비 및 조기 경보: 기후 리스크를 반영한 내진 설계와 재난 대응 인프라 강화 • 녹색 투자 인센티브: 세제 혜택 및 금융 지원을 통한 민간 부문 참여 유도 • 산업·운송 탈탄소화: 친환경 기술 및 정책 도입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 규제 개선: 저탄소 전환 촉진을 위한 법·제도 정비 및 인센티브 마련
제약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 조달의 한계와 예산 분배 • 중앙·지방 정부 간 계획 및 자산 관리의 비효율성 • 기후 변화에 따른 인프라 취약성 및 자연재해 대응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 변화의 불확실성과 심화되는 기후 리스크 •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투자 확대에 따른 기술·제도적 문제 • 산업 전반의 탈탄소화 추진 시 민간 참여 등 제약사항 존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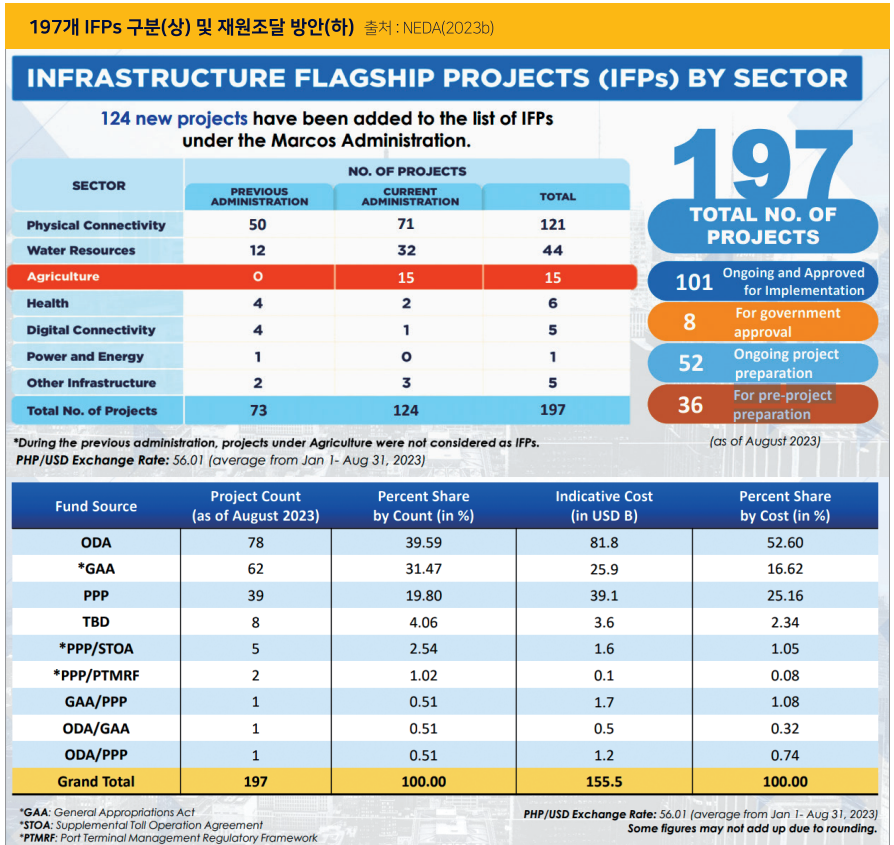
- (실행계획) 필리핀 정부는 PDP 2023-2028에 따른 인프라 투자전략으로서, 'Build Better More' 프로그램(이하 'BBM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음
- BBM 프로그램은 전임 두테르테 정부가 추진한 'Build Build Build' 프로그램을 계승·확장시킨, 인프라개발종합계획의 성격을 지님
 - 필리핀 정부는 2028년까지 매년 GDP의 5~6%를 인프라 투자에 활용한다는 방침

2028년까지의 인프라개발 투자계획 출처 : NEDA(2023b)							
Medium-Term Infrastructure Program*							
Infrastructure Program*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Actual	Projections					
In PHP billions	1,278.5	1,292.7	1,352.3	1,467.5	1,607.8	1,907.2	2,298.1
In USD billions	22.8	23.1	24.1	26.2	28.7	34.1	41.0
As % of GDP	5.8	5.3	5.1	5.1	5.1	5.5	6.0

*Projections pertain to disbursements from NG infrastructure, infrastructure subsidy/equity to GOCCs, and transfers to LGUs intended for infrastructure activities. Includes payables from current year's budget and prior years' obligations (DBCC - FY 2024 BESF).

- BBM 프로그램에 따른 197개 인프라 플래그십 프로젝트(Infrastructure Flagship Projects, IFPs)를 추진 중이며, 전체 투자액은 약 1,560억 달러에 달함. NEDA에 따르면, 197개 IFPs 중 이전 정부 프로젝트는 73개, 현 정부 프로젝트는 124개로 집계

- 대부분의 프로젝트가 도로·공항·항만 등 인프라 투자(물리적 연결성, Physical Connectivity)에 집중됨
- 전체 IFPs 중 15개만 종료되어 향후 잠재력이 큰 시장이며, 향후 인플레이션 안정화, 내수경제 성장 등에 따라 지방도시의 인프라개발과 도시화에 더 많은 투자개발이 예상됨(KOTRA, 2024)



○ 필리핀 정부는, PDP 2023-2028을 통해 마르코스 대통령의 정책방향을 구체화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경제·사회발전을 도모해 코로나19 이후 필리핀이 직면한 인플레이션, 고실업, 빈곤, 재정적자, 무역적자 등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지 관심이 주목됨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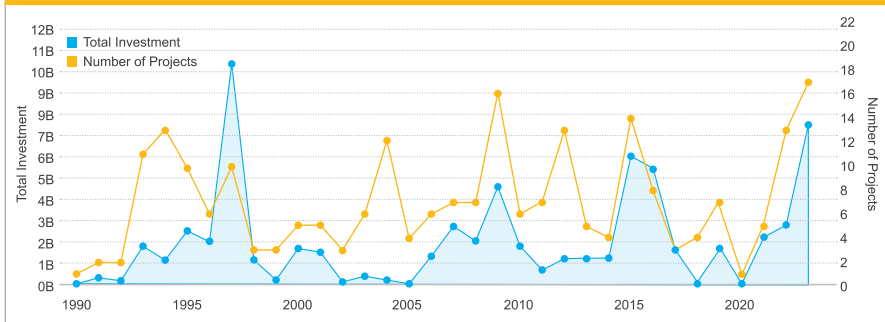
08

[https://www.kiep.go.kr/aif/issueDetail.es?brdctNo=343677&mid=a10200000000&search_option=ALL&search_keyword=&search_year=&search_month=&search_tagkeyword=&systemcode=03&search_region=03011000&search_area=5¤tPage=1&pageCnt=10\(검색일자 2025.3.10.\)](https://www.kiep.go.kr/aif/issueDetail.es?brdctNo=343677&mid=a10200000000&search_option=ALL&search_keyword=&search_year=&search_month=&search_tagkeyword=&systemcode=03&search_region=03011000&search_area=5¤tPage=1&pageCnt=10(검색일자 2025.3.10.))

민간 부문의 인프라투자

- 필리핀 정부는 2023년 12월, BBM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자 PPP 법안을 마련하였음⁹(PPP 전담기관은 NEDA 산하의 PPP센터임)
- 인프라개발 부문 민간투자 규모를 가늠할 수 있는 World Bank PPI(Private Participation in Infrastructure)에 따르면, 필리핀의 인프라개발 부문 민간투자 프로젝트는 1990년부터 2023년까지 202개 프로젝트(약 700억 달러)가 수행되었음(대부분 전력 분야 프로젝트에 집중됨)

필리핀의 인프라 개발 부문 민간투자 추이(1990~2023) 출처 : World Bank PPI(검색일자 2025. 3. 10.)



도로

- 필리핀 공공사업도로부(Department of Public Works and Highways, DPWH)¹⁰에 따르면, 필리핀 전역 도로총연장은 약 22만 km로, 이 중 국도(National Road)는 35,164km로 집계됨(2023년 10월 기준)
 - DPWH에 따르면, 필리핀 국도의 위계는 주요 도로(Primary), 2차 도로(Secondary), 3차 도로(Tertiary)로 구분하며, 국도총연장의 98.7%는 포장도로임
 - 주요 도로(Primary) : 인구 10만 명 이상의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국가 도로망의 간선 노선(7,454km 구간)
 - 2차 도로(Secondary) : 주요 도로 또는 주요 도시 범주에 속하지 않는 지역을 연결하는 도로로, 주요 항만, 터미널, 공항, 대형 인프라를 주요 도로에 연결하는 기능 수행(15,432km 구간)

09

PPP 프로젝트 목록, PPP법, PPP Codes 관련 정보는 필리핀 PPP센터 홈페이지(<https://ppp.gov.ph/>)에서 확인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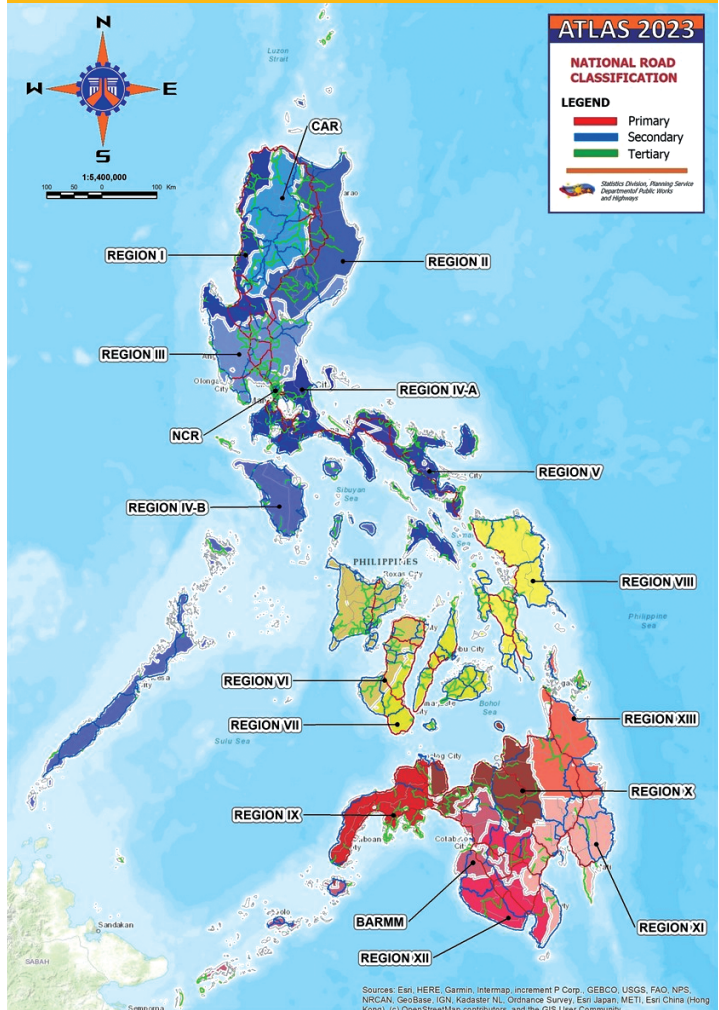
- PPP 프로젝트 목록 : <https://ppp.gov.ph/list-of-projects/>
- PPP법 원문 : <https://ppp.gov.ph/republic-act-no-11966/>
- PPP법 해설, PPP Codes 등 실무안내 : <https://ppp.gov.ph/ppp-code-faqs/>

10

도로, 교량 등을 포함한 인프라 건설·유지보수·운영관리 등을 관장하는 정부부처

- 3차 도로(Tertiary) : 지역적 기능을 수행하는 DPWH 도로(12,278km 구간)
- 지난 10년간 국도총연장은 약 980km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전히 도로밀도는 낮게 유지되고 있어, 약 7,000여 개 섬으로 파편화된 국토의 연결성을 강화하는 것이 필리핀 경제성장의 가장 큰 선결과제이자 인프라개발정책의 핵심사업으로 대두
- 대부분의 정부 프로젝트가 DPWH 및 교통부(Department of Transportation, DOTr) 소관 '연결성 강화'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중요도가 높은 분야임

필리핀의 지역별 국도망(2023년 기준) 출처 : 공공사업도로부(DPWH) 홈페이지 (검색일자 2025. 3. 12)



FUNCTIONAL CLASSIFICATION						Grand Total
Primary	%	Secondary	%	Tertiary	%	
7,454.00	21.20%	15,432.54	43.89%	12,277.59	34.92%	35,164.13

○ NEDA에서 구축한 IFPs 이행 대쉬보드¹¹의 내용을 살펴보면, 66건의 도로 및 교량(Road and Bridge) 프로젝트가 추진 중이거나 계획됨(2024년 4분기 기준). 66건의 도로 및 교량 프로젝트에 약 2조 3,500억 페소가 투입될 예정임(일부 프로젝트는 2028년 이후까지 지속예정)

- DPWH를 시행청으로 하는 프로젝트가 6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사업시행 방식으로는 ODA사업은 27건, PPP형식으로 추진은 12건, ODA/PPP방식으로도 1건 추진되는 것으로 나타남
- 도로 및 교량 분야의 완료된 프로젝트는 단 4건인데 비해 사업기간이 2028년 이후인 프로젝트도 31건(ongoing 20건, pre-project 11건)으로 나타나 향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됨. 또한, 아직 개발 카운터파트도 정해지지 않은 프로젝트도 다수 확인됨
- 프로젝트 상세목록은 대쉬보드를 통해 확인가능하며, 한국기업이 참여한 도로 및 교량 프로젝트는 7건으로 일본 다음으로 많은 실적 기록
- 다만, 현재까지 한국기업이 참여한 프로젝트는 EDCF 타이드론 등 ODA 기반이므로 향후 필리핀 정부의 PPP 확대기조에 대응하고, 아직 카운터파트가 정해지지 않은 프로젝트의 많은 수가 PPP사업이라는 점에서 필리핀 PPP법, 절차, 가이드라인 등을 사전 파악할 필요가 있음

¹¹
<https://neda.gov.ph/infrastructure-flagship-projects/>

¹²
라구나 호수 순환도로 건설, PGN교량 건설은 역대 EDCF 최대규모로, 관련 내용은 관련 언론보도 참조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630566639050624&mediaCodeNo=25>)

프로젝트명	시행청	추정 비용	재원 계획	카운터 파트	지역	목표 연도	단계
Samar Pacific Coastal Road Project	DPWH	1.24	ODA	한국	VIII	2023	완료
Panguil Bay Bridge	DPWH	8.03	ODA	한국	X	2024	완료
Laguna Lakeshore Road Network Development (Phase I) (라구나호수 순환도로 1단계) ¹²	DPWH	181.02	ODA	ADB, AIIB, 한국	NRC, IV-A	2028	승인
Capas-Botolan Road Project	DPWH	5.9	ODA	한국	III	2028~	승인
Panay-Guimaras-Negros Inter-Island Link Bridge (PGN교량 건설)	DPWH	187.53	ODA	한국	VI	2028~	승인
Consolacion-Liloan Bypass Road Project	DPWH	32.74	ODA	한국	VII	2028~	제안
Samar Pacific Coastal Road II	DPWH	7.50	ODA	한국	VII	2028~	승인

철도

13

<https://pnr.gov.ph/about-contact-us/who-we-are/corporate-profile.html>(검색일자 2025.3.16.)

○ 철도 관련 관리·감독관청은 교통부(DOTr)이며, 국철은 교통부 산하 필리핀국철(Philippine National Railways, PNR)이, 도시철도는 각 노선마다 운영사가 다름(LRT - I, II : LRTA, MRT : DOTr, PNR Orange-line : PNR)

- (국철) PNR이 운영하는 국철은, 루손 섬 내부를 연결하는 유일한 철도로 메트로 마닐라에서 남부를 잇는 레드 라인은 현재 운영이 중단되었고, 노스 메인 라인(그린 라인)과 사우스 메인 라인(오렌지 라인)이 운영 중임¹³



- (도시철도) LRT 2개 노선, MRT 1개 노선, PNR 1개 노선 등 총 4개 노선이 운행 중이며, 노선총연장은 104km임. 철도수송분담률은 5%에 불과함

MANILA METRO RAIL TRANSIT MAP



- 필리핀 정부는 철도수송분담률을 높여 심각한 교통체증 완화, 접근성 향상, 물류효율성 증대, 탄소배출 감축 및 지속가능한 교통시스템을 구축하고자 PDP 2023-2028 및 BBM 프로그램에 따른 철도 인프라 개선을 추진
 - 197개 IFP 중 철도 프로젝트는 23개로 전체 프로젝트 기간 동안 약 4조 400억 페소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임(DOTr이 시행청임)
 - 대부분의 철도 프로젝트는 2027년 이후부터 추진될 것으로 보이며, 일본, 중국이 참여한 일부 프로젝트 외 아직 제안사는 선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앞서 2020년 현대건설은, 필리핀 남북철도 제1공구(마닐라 말로로스 ~ 클락 간 53km 구간) 건설사업을 수주¹⁴한 바 있으며, 최근에는 필리핀 철도개발의 핵심으로 꼽히는 1,700km의 구간 루손섬 철도망 건설 프로젝트에 한국 철도업체 20여 개사가 컨소시엄(Luzon Railway Consortium, LRC)을 구성, 최초 제안한 바 있음¹⁵

공항

- 필리핀은 7,000여 개 섬으로 구성된 다도해 국가로, 육상연결이 어려운 지역이 많아 항공운송이 필수적임. 항공운송은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 관광산업과 해외노동자의 송금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자연재난 대응의 중요 인프라로도 활용됨
 - 항공수송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필리핀의 항공 관련 인프라 수준은 아세안 국가 중에서도 낮은 것으로 평가됨¹⁶
- 필리핀의 공항 관련 주무관청은 DOTr 산하 필리핀민간항공청(Civil Aviation Authority of the Philippine, CAAP)으로, 필리핀 공항운영·관리, 항공산업 규제, 관제 등의 업무를 수행
 - CAAP에 따르면, 필리핀 주요 공항은 85개로 CAPP의 공항분류체계에 따라 3등급으로 구분(국제선-니노이아퀴노국제공항 등 11개 공항, 국내선-33개 공항, 일반공항-41개 공항)
 - 또한, 대부분의 공항 운영·관리총괄은 CAPP에서 수행하나 마닐라(니노이아퀴노 국제공항), 세부(막탄세부국제공항), 클락(클락국제공항), 수빅(수빅베이국제공항) 등 4개 주요 국제공항은, 각각의 항공청이 운영·관리함¹⁷

¹⁴ https://www1.hdec.kr/kr/newsroom/news_view.aspx?NewsSeq=46&NewsType=LATEST&NewsListType=news_clist(검색일자 2025.3.16.)

¹⁵ <https://www.re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545>(검색일자 2025.3.16.)

¹⁶ <https://www.ocis.go.kr/environment/all-content?ntnCd=112&tocCd=225#tab1>(검색일자 2025.3.18.)

¹⁷ <https://www.ocis.go.kr/environment/all-content?ntnCd=112&tocCd=225#tab1>(검색일자 2025.3.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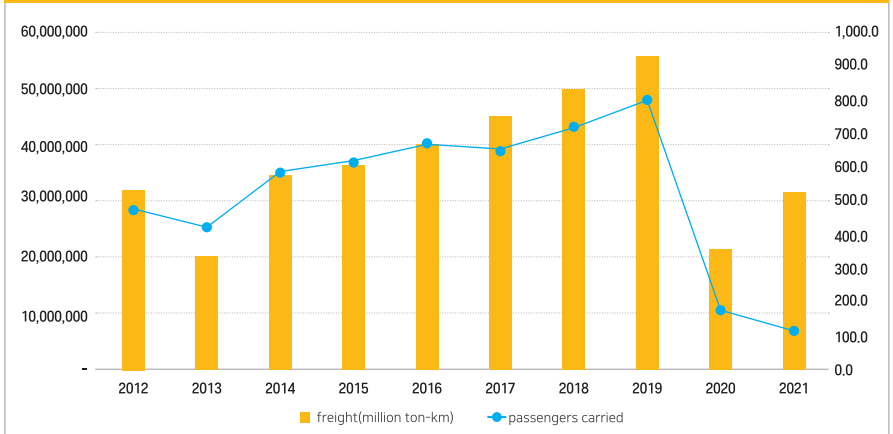
주요 공항 위치도

출처 : <https://www.ocio.go.kr/environment/all-content?ntrCd=112&tocCd=225#tab1> (검색일자 2025.3.18)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기준, 항공수송실적은 여객수송 47,776천명, 화물수송은 926.9백만 톤으로 집계(World Economic Indicators)

필리핀의 항공수송(여객 및 화물) 실적(2012~2021) 출처 : World Economic Indicators(검색일자 2025.3.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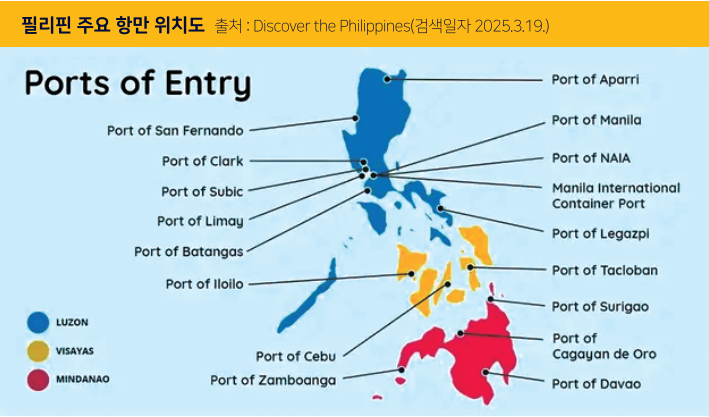


○ 필리핀 정부는 신규 공항 건설, 기존 공항 확장 및 개선, 항공서비스 개선 (항공관제) 등 공항 인프라 확충 및 개선을 위한 프로젝트를 계획, 추진하고 있음

- 전체 197개 IFP 중 공항/항공서비스 관련 프로젝트는 17개(1조 1,234억 페소 규모)로, 대부분 PPP방식으로 추진
- 현재, 17개 프로젝트 중 한국이 참여하는 프로젝트는 1건으로, 2024년 한국수출입은행의 지원으로 2030년 개항예정인 두마게테 신공항 건설 프로젝트 (New Demaguete Airport)임(시행청은 DOTr임)
- 두마게테 신공항 건설 프로젝트는 전체 4,000억 원(약 170억 페소) 규모의 대규모 프로젝트로, 인천국제공항공사를 비롯한 한국 엔지니어링 3개사가 참여를 희망, 추진 중임
- 한편, 2024년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필리핀 최대 관문공항이자 수도공항인 마닐라 니노이아퀴노국제공항 개발운영 PPP사업을 수주한 바 있음

항만

- 필리핀은 2,000여 개 이상의 섬에 인구가 분산되어 있어 도서 간 연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필리핀 전역의 약 1,300여 개 항만을 통해 국내물류와 여객 이동의 90% 이상이 이루어짐(항만을 통해 수출입되는 상품 및 원자재가 전체의 98%에 달함)
- DOTr이 항만개발 및 운영 관련 국가정책 수립 및 감독을 수행하며, DOTr 산하 필리핀항만청(Philippine Ports Authority, PPA)이 국가항만 개발 및 운영·관리를 총괄하고 있음
 - 대부분의 국가항만은 PPA가 운영·관리하나 세부 지역 항만은 세부항만청(CPA), 수빅만개발청(Subic Bay Metropolitan Authority, SBMA)은 독자적인 수빅자유항(Subic Free Port)을 관리하며 민간부문과 공동으로 시설개량을 추진하고 있음¹⁸
 - 1,300여 개 항만 중 국제화물선박 입항이 가능한 항구는 Manila, Subic, Batangas, Cebu, Iloilo, Cagayan de Oro, General Santos, Zamboanga항만 등이 있음



[필리핀 항만 해상운송 실적(2023년 기준)] 출처 : Philippine Ports Authority(2024)

구분	수송량
여객 수송 (Passenger Traffic)	73,636,783명
RORO 트랙픽 (Roll-on/Roll-off, 차량수송)	10,784,735대
화물 수송 (Cargo Throughput)	272,462,354 MT (백만 톤)
컨테이너 처리량 (Container Throughput)	7,508,123 TEU
선박 입항 횟수 (Ship Calls)	562,888회

¹⁸ <https://www.ocis.go.kr/environment/all-content?ntnCd=112&tocCd=224#tab1>(검색일자 2025.3.19.)

○ 필리핀 정부는 신규 항만·컨테이너항 건설 및 개선, RORO(차량수송) 네트워크 개선 등 항만 인프라 확충 및 개선을 위한 프로젝트를 계획, 추진하고 있음

- 전체 197개 IFP 중 항만 프로젝트는 6개(2,277억 페소 규모)로, 대부분 ODA 또는 PPP방식으로 추진
- 현재, 6개 프로젝트 중 한국이 참여하는 프로젝트는 1건으로, 2024년 HJ 중공업이 수주한 2,800억 규모 세부 신컨테이너항만 건설 프로젝트임(EDCF 차관으로 추진)

전력·에너지 전환

○ CIA Worldfactbook에 따르면, 필리핀의 전력접근성은 2022년 기준, 전 국민의 94.8%(도시 지역 98%, 농촌 지역 91.1%)로 표면상 전력접근에 대한 큰 이슈는 없는 것으로 보이나 실제, 발전설비 노후화 및 신규설비 건설지연, 송전선 부족 등 투자부족에 기인한 전력부족과 높은 전기요금 등으로 오랜 기간 어려움을 겪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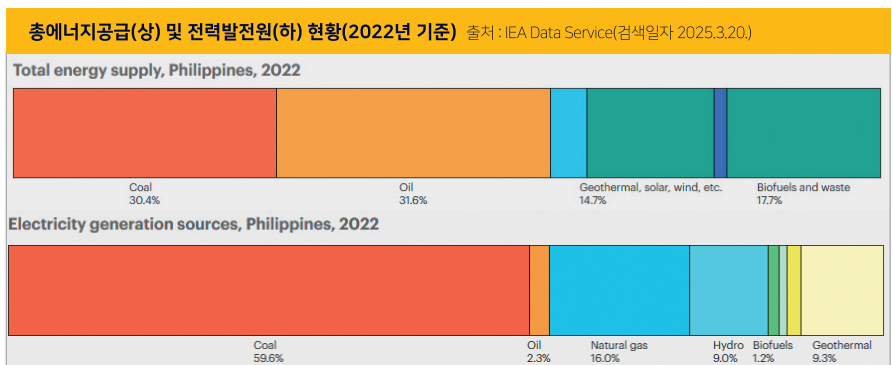
- 필리핀의 전력·에너지는 에너지부(Ministry of Energy, MOE)에서 관장하며, MOE 산하 국가전력공사(National Power Corporation, NPC)는 주로 비도심 지역의 소규모 발전설비를 담당, 2001년 전력산업개혁신법 제정을 기점으로 신규 전원개발은 민간발전사(PPPs)가 담당함¹⁹

○ 필리핀의 에너지믹스, 전력생산 및 소비량 등 전력·에너지 관련 현황은 다음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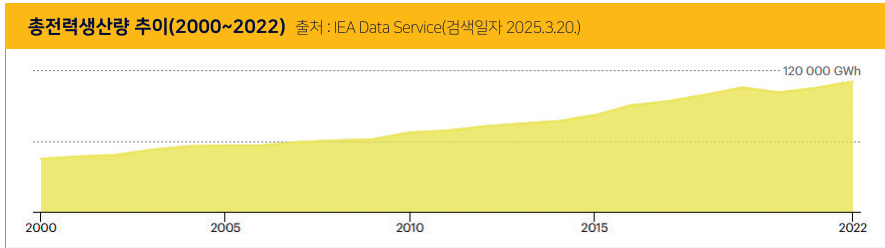
-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최종 소비자에게 공급된 총 에너지량인 총에너지공급은 석탄·석유·천연가스 등 화석연료 비중이 전체 에너지공급량(2,628,087J)의 약 66%(1,739,916J)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¹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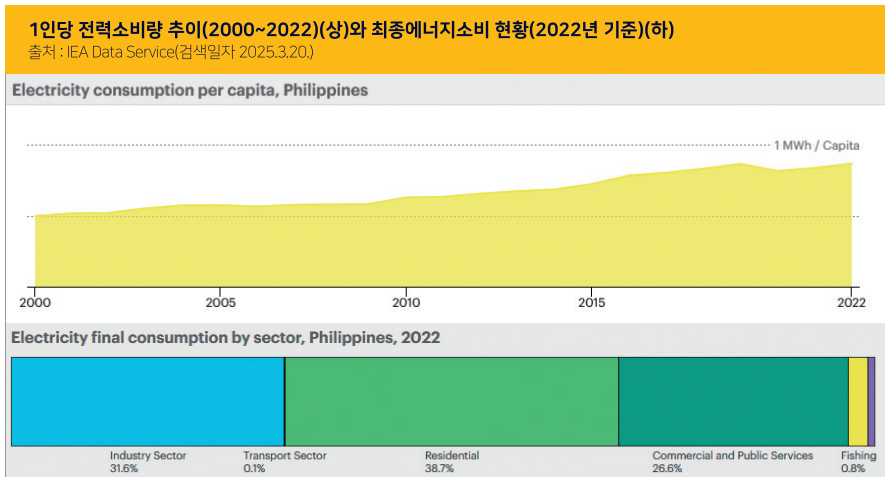
https://energy.ketep.re.kr/globalenergy/site/main/board/trend_digest/6043
검색일자 2025.3.20.)



- 2022년 기준, 필리핀의 총전력생산량(total electricity production)은 총 115,515GWh로 글로벌 36위, 역내 12위에 해당



- 2022년 기준, 필리핀의 1인당 전기소비량(Electricity consumption per capita)은 0.872MWh로 지난 20여 년간 7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생산된 전기는 주거용(38.7%), 산업용(31.6%), 상업 및 공공서비스용(26.6%) 등으로 소비



- MOE는 안정적인 가격의 전력공급 보장, 에너지 인프라의 기후변화 적응력 및 재난 대비 역량 강화, 2028년까지 전국민 전력공급 100% 달성 등을 목적으로 '전력개발계획 2023-2050(Power Development Plan 2023-2050, PDP 2023-2050)'을 수립, 추진 중임

- 2028년까지의 필리핀개발계획 달성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에너지공급이 필수적인바 향후 전력수요 증가에 대비하고 재생에너지 및 친환경발전을 추진위해 PDP 2023-2050을 수립
- 발전·송전·배전, 전력시장 개편, 지역 전력 보급 확대(Off-Grid), 신재생에너지 확대 및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효율성 개선 및 탄소저감 등 전력·에너지 관련 단기·중기·장기 로드맵이 포함

○ MOE는 이해관계자와 협의하여 '국가재생에너지프로그램 2020-2040 (National Renewable Energy Program 2020-2040, NREP 2020-2040)을 수립함²⁰

- NREP 2020-2040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전망을 살펴보면,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를 통한 전력생산 비율을 50%이상 끌어올릴 것을 목표²¹로 하며,
- 신규 발전용량은 태양열(27,162MW), 풍력(16,650MW), 수력(6,150MW), 지열(2,500MW) 및 바이오매스(364MW)를 포함하여 총 52,826MW가 추가될 것으로 전망
- NREP 2020-2040 수립을 통해 에너지 정책 및 규제 변화를 기반으로 재생 에너지 개발과 활용을 촉진하고, 다양한 메커니즘을 도입하여 시장 참여자와 최종 소비자의 적극적인 재생에너지 시장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20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022

21

KOTRA해외시장뉴스,
2024b

02 투자 여건

투자환경과 제도

○ 필리핀은 세제 개혁, 외국인투자 제한 완화 등 투자환경 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있음

- 2024년, 법인세율 인하(25%→20%), 투자제한 분야 외 외국인지분 100% 허용 등이 주요 변화로 관찰되며, 5~6%대의 GDP성장률 전망과 두터운 젊은 인구층, 디지털전환 가속화 등은 對필리핀 투자매력도를 높이는 요인으로 평가

○ 필리핀의 외국인·민간투자를 관장하는 기관은 필리핀 투자청(Board of Investment, BOI), 필리핀 경제구역청(Philippine Economic Zone Authority, PEZA)이 대표적인 투자 인센티브 제공기관임. 이 외에도 특정 특별경제구역을 기반으로 하는 SBMA, 클락개발공사(Clark Development Corporation, CDC)도 주요 투자유치기관으로 알려져 있음

22

4~6년 간 면제

23

KOTRA해외시장뉴스,
2025

24

감가상각, 직접노동비용,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국내원재료구매비,
전력비, 제조 및 관광산업
재투자비용, 전시회·
무역사절단·박람회 비용,
운영업손실 이월공제,

25

기존에는 지자체마다
세율이 상이하여 기업들이
지역별로 다른 세 부담을
감수해야 했으나 CREATE
MORE법에서 최대 2%로
고정하는 지방세 간소화
정책 도입하여 세 부담
완화(KOTRA해외시장뉴스,
2025)

○ 정부는 위의 투자유치기관 등록을 통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조세
인센티브가 대표적인

- 대표적인 조세면제 항목은 법인세로, 조세 인센티브의 합리화 등을 위해 일정기간
면제기간(Income Tax Holiday, ITH)²²을 두고 운영하고 있음
- 필리핀 정부는 2021년, 코로나19 팬데믹을 극복하고 외투 증가를 위해 “법인세율
인하(30%→25%), 중소기업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CREATE(Corporation
Recovery and Tax Incentives for Enterprise)법을 시행
- 그러나, CREATE법 시행 이후에도 인접국인 베트남, 태국(각각 20%), 말레이시아
(24%)와 비교했을 때 법인세율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을 제공하는 국가로 이전하는 현상 가속화²³
- 이에, 필리핀 정부는 조세경쟁력 확보를 위해 법인세율 추가 인하(25%→20%),
특별법인소득세율(SCIT) 및 추가 감면 혜택(EDR)²⁴ 적용기간 연장(17년→27
년), 지방세 일원화²⁵ 등의 내용이 담긴 ‘CREATE MORE법’ 시행령(IRR)에 공식
서명(‘25.2)

[CREATE MORE법에 따른 지역별·유형별 인센티브 내역(수출기업)]

출처 : 필리핀 재정인센티브검토위원회(FIRB); KOTRA해외시장뉴스(2025) 재인용

구분	투자유치기관 승인 기업			재정인센티브검토위원회(FIRB) 승인 기업		
	1단계	2단계	3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NCR	ITH 4년 + EDR/SCIT 10년 또는 EDR/SCIT 14년 (총 14년)	ITH 5년 + EDR/SCIT 10년 또는 EDR/SCIT 15년 (총 15년)	ITH 6년 + EDR/SCIT 10년 또는 EDR/SCIT 16년 (총 16년)	ITH 4년 + EDR/SCIT 20년 또는 EDR/SCIT 24년 (총 24년)	ITH +5년 + EDR/SCIT 20년 또는 EDR/SCIT 25년 (총 25년)	ITH 6년 + EDR/SCIT 20년 또는 EDR/SCIT 26년 (총 26년)
대도시, 대도시 외곽/ 인접지역, NCR 인접지역	ITH 5년 + EDR/SCIT 10년 또는 EDR/SCIT 15년 (총 15년)	ITH 6년 + EDR/SCIT 10년 또는 EDR/SCIT 16년 (총 16년)	ITH 7년 + EDR/SCIT 10년 또는 EDR/SCIT 17년 (총 17년)	ITH +5년 + EDR/SCIT 20년 또는 EDR/SCIT 25년 (총 25년)	ITH 6년 + EDR/SCIT 20년 또는 EDR/SCIT 26년 (총 26년)	ITH 7년 + EDR/SCIT 20년 또는 EDR/SCIT 27년 (총 27년)
기타 지역	ITH 6년 + EDR/SCIT 10년 또는 EDR/SCIT 16년 (총 16년)	ITH 7년 + EDR/SCIT 10년 또는 EDR/SCIT 17년 (총 17년)	ITH 7년 + EDR/SCIT 10년 또는 EDR/SCIT 17년 (총 17년)	ITH 6년 + EDR/SCIT 20년 또는 EDR/SCIT 26년 (총 26년)	ITH 7년 + EDR/SCIT 20년 또는 EDR/SCIT 27년 (총 27년)	ITH 7년 + EDR/SCIT 20년 또는 EDR/SCIT 27년 (총 27년)

[CREATE MORE법에 따른 지역별·유형별 인센티브 내역(내수기업)]

출처 : 필리핀 재정인센티브검토위원회(FIRB); KOTRA해외시장뉴스(2025) 재인용

구분	투자유치기관(IPA) 승인 기업			재정인센티브검토위원회(FIRB) 승인 기업		
	1단계	2단계	3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NCR*	ITH 4년 + EDR 10년 또는 EDR 14년 (총 14년)	ITH 5년 + EDR 10년 또는 EDR 14년 (총 15년)	ITH 6년 + EDR 10년 또는 EDR 16년 (총 16년)	ITH 4년 + EDR 20년 또는 EDR 14년 (총 24년)	ITH 5년 + EDR 20년 또는 EDR 25년 (총 25년)	ITH 6년 + EDR 20년 또는 EDR 26년 (총 26년)
대도시, 대도시 외곽/ 인접지역, NCR 인접지역	ITH 5년 + EDR 10년 또는 EDR 14년 (총 15년)	ITH 6년 + EDR 10년 또는 EDR 16년 (총 16년)	ITH 7년 + EDR 10년 또는 EDR 17년 (총 17년)	ITH 5년 + EDR 20년 또는 EDR 25년 (총 25년)	ITH 6년 + EDR 20년 또는 EDR 26년 (총 26년)	ITH 7년 + EDR 20년 또는 EDR 27년 (총 27년)
기타 지역	ITH 6년 + EDR 10년 또는 EDR 16년 (총 16년)	ITH 7년 + EDR 10년 또는 EDR 17년 (총 17년)	ITH 7년 + EDR 10년 또는 EDR 17년 (총 17년)	ITH 6년 + EDR 20년 또는 EDR 26년 (총 26년)	ITH 7년 + EDR 20년 또는 EDR 27년 (총 27년)	ITH 7년 + EDR 20년 또는 EDR 27년 (총 27년)

○ 토지임대의 경우, 임대법에 따라 외국인투자자는 50년 동안 사유지 임대가 가능하며 추가로 최대 25년까지 연장할 수 있음(단, 임대토지는 투자목적으로만 사용)

○ 한편, 1991년 외국인투자법(Foreign Investment Act)을 제정하였으며, 이후 외투 증진과 자국산업 보호 간의 분쟁을 줄이기 위해 '외국인자본 제한 리스트(Negative List)'를 발효(1994년 최초 발효)²⁶

- 외국인투자법에서는 Negative List(List-A, B)²⁷에 속하지 않는 산업은 외국인자본 100%를 인정하며, Negative List에 포함되는 산업은 산업군별로 외국인자본을 인정하지 않거나 최대 40%까지만 인정²⁸
- 통신, 철도 및 지하철 운영, 고속도로 및 유료도로(Expressways and Tollways) 운영, 항공사 및 공항 운영, 물류 국내배송 등 공공유틸리티 운영(Operation of public utilities) 분야는 외국인 자본 100% 허용²⁹

²⁶ 현재, 12차 Negative List에 따라 규제(22.6 발효)

²⁷ Negative List A : 헌법 및 개별법률, 특정기관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자본 소유가 제한되는 분야
Negative List B : 국가안보, 국민건강, 중소기업 보호 등의 목적으로 제한되는 분야

²⁸ 12차 발효에 따른 전체 규제산업군 목록은,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ation/actionNatlemDetail.do?pageNo=&pagePerCnt=10&SITE_NO=3&MENU_ID=220&CONTENTS_NO=1&uperCd=3&ctgySn=414&lowerCtgySn=&pRegnCd=01&pNatCd=608#)에서 확인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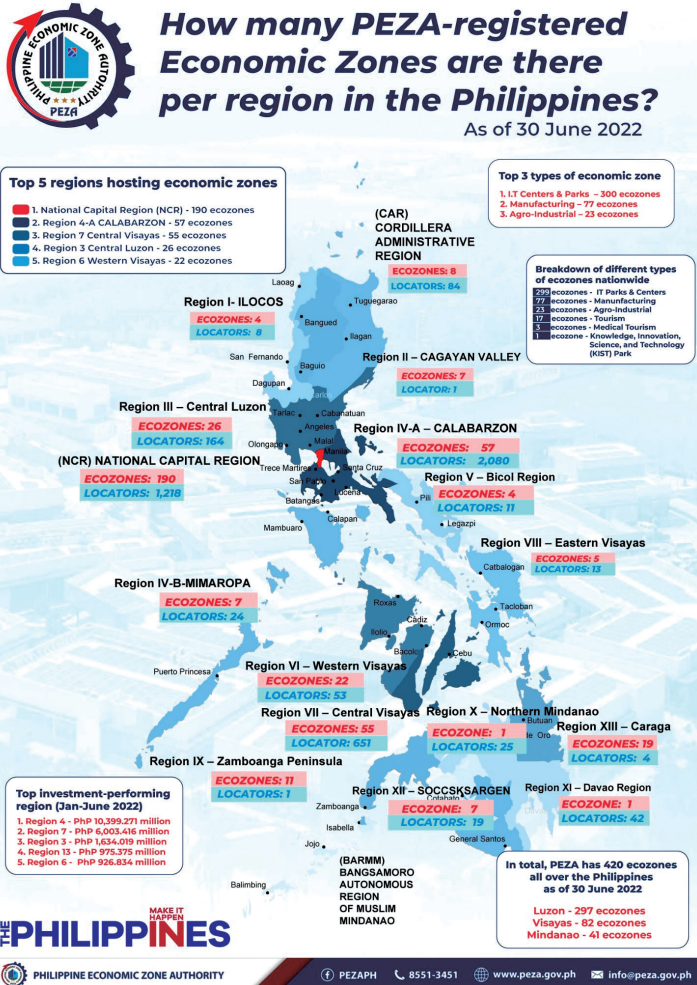
²⁹ KOTRA해외시장뉴스, 2024b

○ PEZA는, 특정지역 또는 기업 자체 소재지를 특별경제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으며³⁰, 현재 5개 유형의 419개 특별경제구역을 지정·운영 중임(2023년 4월 기준)

- 1)제조특구(Manufacturing Economic Zones) 78개소, 2)정보기술센터(Information Tech Park/Centers) 297개소, 3) 관광수출기업(Tourism Export Enterprises) 17개소, 4)농산업특구(Agro-Industrial Economic Zones) 24개소, 5)의료관광단지(Medical Tourism Parks/Center) 3개소

(PEZA 등록) 지역별 특별경제구역 현황(2022년 6월말 기준)

출처 : IPEZA(검색일자 2025.3.31)



30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ation/actionNatlemDetail.do?pageNo=&pagePerCnt=10&SITE_NO=3&MENU_ID=220&CONTENTS_NO=1&uperCd=3&ctgySn=414&lowerCtgySn=&pRegnCd=01&pNatCd=608#
(검색일자 2025.3.20)

- PEZA 등록 투자자에 대한 인센티브는 재정적/비재정적 인센티브로 구분

PEZA의 인센티브 목록(재정적/비재정적) 출처 : IPEZA(검색일자 2025.3.31.)

Fiscal Incentives

Income Tax Holiday (ITH)			
Location	Tier I	Tier II	Tier III
National Capital Region (NCR)	4 years	5 years	6 years
Metropolitan areas or areas contiguous and adjacent to NCR	5 years	6 years	7 years
All other areas	6 years	7 years	7 years

AFTER ITH, Export-oriented enterprises may enjoy Special Corporate Income Tax (SCIT) Rate of 5% OR Enhanced Deduction (ED)

10 YEARS

Domestic Market Enterprises can enjoy ITH of 4 to 7 years depending on the location and industry priorities, followed by ED for 5 years.

Timeline on enjoyment of Incentives

Income Tax Holiday
(4 to 7 years)

5% Special Corporate Income Tax (SCIT)
Rate OR Enhanced Deduction
(5 or 10 years)

Regular CIT Rate of 25%

After enjoyment of incentives, companies can only register again if they are engaged in a new activity eligible under the SIPP

Non-fiscal Incentives

Tax- and duty-free Importation of capital equipment, raw materials, spare parts or accessories

Domestic sales allowance of up to 30% of total sal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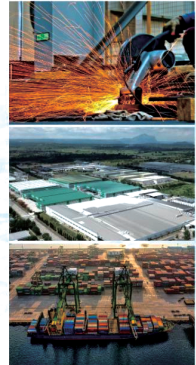
VAT exemption on Importation and VAT zero-rating on local purchases for goods and directly related to its registered activity to include telecommunications, power and water bills

Exemption from payment of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 taxes and fees for the period of availment of the 5% SCIT incentive

Employment of foreign nationals

Long-term land lease of up to 75 years

PEZA 2-year special non-immigrant visa issued to expats and their dependents as well as foreign workers (PEZA Vis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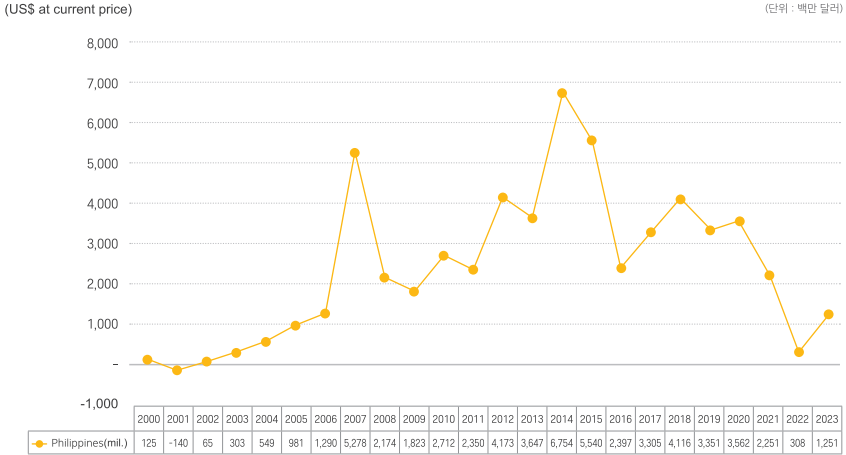


외국인투자 동향

○ FDI 동향

- UN무역개발회의(UNCTAD)에 따르면, 필리핀의 FDI 순유입액(net inflow)은 매년 등락을 반복하고 있고,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외부 충격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을 보임
- 2010년대 중반까지 안정적인 FDI 유입을 유지했으나 최근 들어 변동성이 커지고 있음
- 2022년 급감 이후 2023년 반등은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으며, 향후 정부의 에너지·제조업·운송물류 등 주요 전략산업 중심의 투자유치 노력이 FDI 회복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됨

필리핀의 연도별 FDI 유입액 추이(2000~2023) 출처: UNCTAD Stat(검색일자 2025.3.31.)



주. 필리핀정부 통계와 다를 수 있음

- 한편, 필리핀 통계청(Philippines Statistics Authority, PSA)이 발표한 2024년 4분기 기준 외국인투자 승인통계를 살펴보면, BOI, PEZA, SBMA, CDC, BOI-Bangsamoro(BOI-BARMM)³¹ 등 5개 투자유치기관이 승인한 외국인투자 총액은 577억 페소로 전년 동기 대비 85.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³²

³¹ 방사모로 무슬림 민다나오 자치구역(BARMM)의 투자유치 및 경제개발을 촉진하는 투자유치기관

³² <https://psa.gov.ph/statistics/foreign-investments>(검색일자 2025.4.3.)

- (국가별) 한국은 전체의 45.3%에 해당하는 261.6억 페소를 투자하여 동기간 가장 많이 투자한 국가였으며, 다음으로 네덜란드(91.9억 페소, 15.9%), 일본(41.1억 페소, 7.1%) 등의 순으로 집계
- (산업별) 2024년 4분기 승인된 외국인투자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산업은 제조업으로 전체의 52.9%인 305.5억 페소였으며, 다음으로 운송 및 창고업(118.7억 페소, 20.6%), 전기·가스·증기 및 공조업(76.8억 페소, 13.3%) 등의 순으로 집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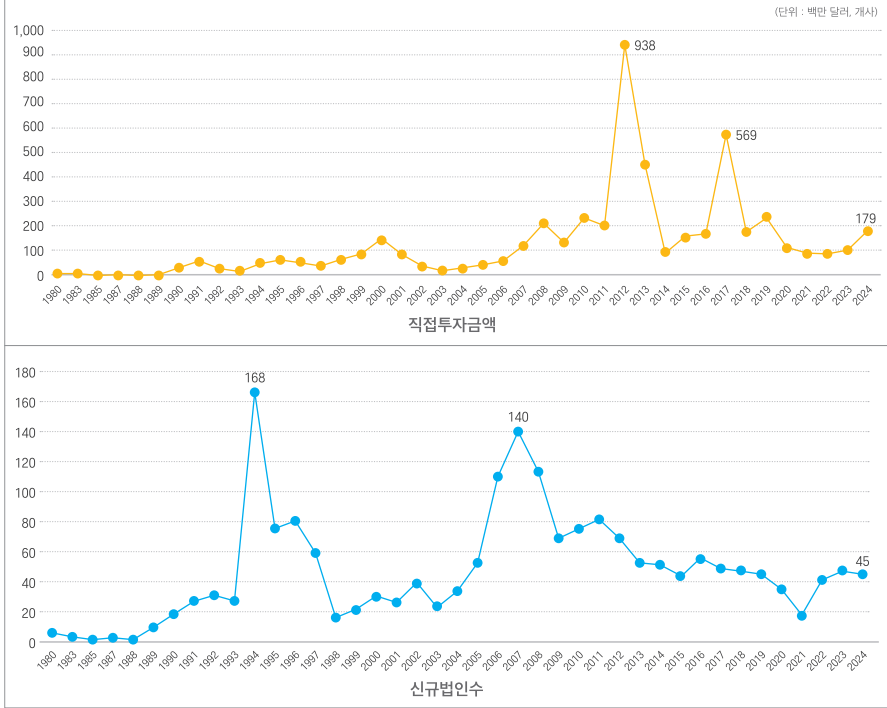
한국의 對필리핀 직접투자 현황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직접투자통계에 따르면, 1980~2024년 누계기준, 한국의 對필리핀 직접투자금액은 약 51.2억 달러, 신규 투자법인은 1,931 개사로 아세안 국가 중에서 직접투자규모가 상위 수준에 해당

- 2012년에는 약 9.4억 달러로 對필리핀 직접투자 최대 투자액수를 기록

한국의 對필리핀 직접투자금액(상) 및 신규법인수(하) 추이(1980~2024)

출처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직접투자통계(검색일자 2025.3.31.)



- 2022년 신고금액 기준, 업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82백만 달러), 부동산업(20백만 달러), 도·소매업(11백만 달러),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6.3백만 달러) 등의 순으로 나타나 한국기업의 對필리핀 직접투자는 제조업·서비스업에 집중되는 경향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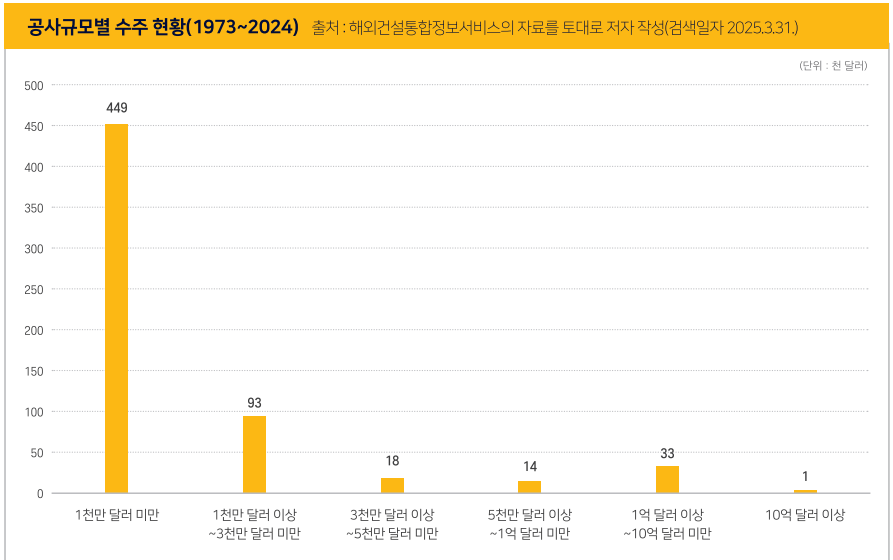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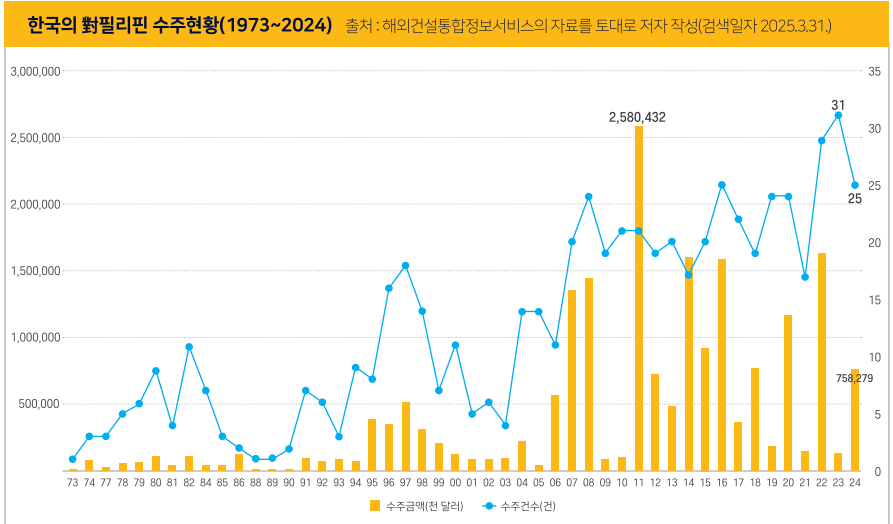
분야(업종대분류)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제조업	51	10	82,381	86	46,548
부동산업	30	6	20,520	55	15,073
도매 및 소매업	6	3	11,169	15	10,672
금융 및 보험업	1	0	10,379	0	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1	4	6,330	10	4,575
교육 서비스업	3	1	4,200	7	1,613
건설업	12	3	2,442	12	1,208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5	1	2,188	7	2,411
정보통신업	8	9	1,673	10	1,986
숙박 및 음식점업	2	0	1,050	11	721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1	0	1,017	1	1,017
광업	5	2	537	5	271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3	2	398	5	379
운수 및 창고업	6	0	348	5	148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3	1	123	2	93
합계	147	42	144,755	231	86,715

03 한국의 對필리핀 수주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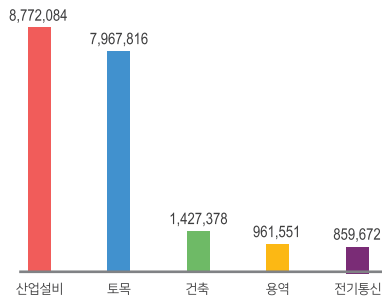
전체 수주 현황

- 1973년부터 2024년까지의 對필리핀 수주실적(누계 기준)은 총 608건, 약 199억 달러로, 동기간 전세계 수주총액 약 1조 달러의 0.2%, 아시아 지역 수주총액 약 3,180억 달러의 6.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규모별) 전체 608건 중 1천만 달러 미만 수주건수가 449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억 달러 이상의 대형 수주는 34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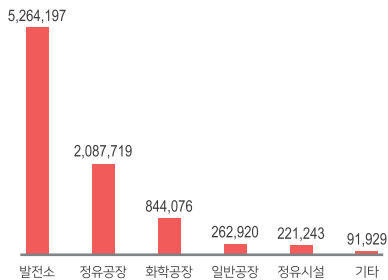
- (공종별)산업설비(전체수주금액의43.9%,87.7억달러),토목(39.9%,80억달러), 건축(7.1%, 14억 달러), 용역(4.8%, 9.6억 달러), 전기통신(4.3%, 8.6억 달러) 순으로 집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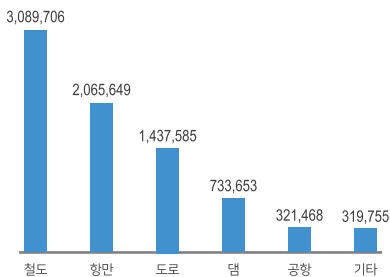
전체공종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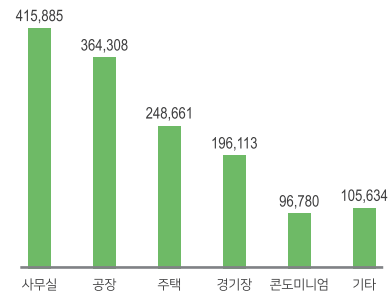
산업설비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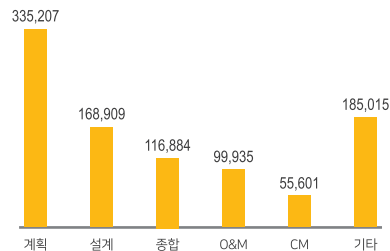
토목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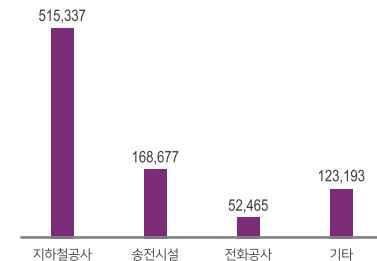
건축 분야



용역 분야



전기통신 분야



세계은행
(World Bank)

○ 세계은행의 對필리핀 개발프로젝트는, 주택건설, 도시교통 분야에서 2건이 추진 중임(2025년 4월 기준)

[세계은행에서 추진 중인 對필리핀 개발협력프로젝트]

출처 : Worldbank Projects(검색일자 2025.3.31.)

연번	프로젝트명	승인규모(달러)	승인일
1	Metro Manila Flood Management Project (메트로 마닐라 홍수관리 프로젝트)	415,206,400	2017-09-28
2	Cebu Bus Rapid Transit (BRT) Project (세부 BRT 프로젝트)	141,000,000	2014-09-26

아시아
개발은행
(Asian
Development
Bank, ADB)

○ ADB의 對필리핀 개발프로젝트는, 에너지, 교통, 물공급 및 기타 도시 기반시설·서비스 분야에서 총 61건의 프로젝트가 추진 중임(2025년 4월 기준)

- 에너지 분야 18건, 교통 분야 30건, 물공급 및 기타 도시기반시설·서비스 분야 13건으로 교통 분야 이슈해결에 집중하고 있음

[ADB에서 추진 중인 對필리핀 주요 개발협력프로젝트] 출처 : ADB Projects(검색일자 2025.3.31.)

분야	프로젝트명	승인일
에너지	Advancing Energy Transition and Regional Power Trade in the Greater Mekong Subregion and Southeast Asia	2024-12-17
	Energy Transition Support Program	2024-11-28
	Climate Change Action Program, Subprogram 2	2024-11-26
	Decarbonization of Hard-to-Abate Industrial and Maritime Sectors	2024-10-18
	Supporting Offshore Wind Port Development Planning	2024-02-05

분야	프로젝트명	승인일
교통	Preparing and Implementing Climate- and Disaster-Resilient Transport Projects	2024-12-18
	Advancing Low Emission Zones in Southeast Asia	2024-12-13
	Laguna Lakeshore Road Network Project	2024-11-07
	Laguna Lakeshore Road Network Project Tranche 1	2024-11-07
	Bataan-Cavite Interlink Bridge Project	2023-12-12
수자원 및 기타 도시 인프라	Southeast Asia Resilient and Water Secure Cities Facility	2024-12-12
	Scaling Up Investments in Emerging Areas in the Water and Urban Development Sector	2024-08-12
	Super-resolution Satellite Imagery as a Regional Public Good for Sustainable Development	2024-08-02
	Smart and Livable Cities in Southeast Asia	2022-12-21
	Southeast Asia Sustainable Tourism Facility	2021-12-13

주. 최근 승인 순, 5개 추출

아시아인프라 투자은행 (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AIIB)

○ AIIB의 對필리핀 개발프로젝트는, 교통, 수자원 분야에서 총 4건의 프로젝트가 추진 중임(2025년 4월 기준)

[AIIB에서 추진 중인 對필리핀 개발협력프로젝트] 출처: AIIB Projects(검색일자 2025.3.31.)

연번	분야	재원유형	프로젝트명	승인규모 (백만 달러)	승인연도
1	교통	Sovereign	Philippines: Bataan-Cavite Interlink Bridge Project and Tranche 1	350	2024
2		Sovereign	Philippines: Laguna Lakeshore Road Network (Phase 1) Project	188.18	2024
3		Sovereign	Philippines: Facility for Accelerating Studies for Infrastructure (FAST-Infra)	44	2024
4	수자원	Sovereign	Philippines: Metro Manila Flood Management	207.6	2017

33

<https://www.jica.go.jp/english/overseas/philippine/activities/index.html>(검색일자 2025.4.2.)

○ JICA는 연결성 강화(도로, 철도, 항만 등), 농업, 재난대응, 환경, 사회·경제·평화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對필리핀 개발협력사업을 오랜 기간 수행하고 있음

- 특히, 필리핀 정부의 BBM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마닐라 대중교통 개선, 철도 건설, 홍수 관리, 민다나오 분쟁지역 도로망 개발 등의 분야에서 필리핀 정부와의 협력 및 지원을 강화하고 있음

○ JICA에서 추진 중인 對필리핀 주요 개발협력사업 중 인프라 관련 프로젝트

목록은 다음과 같음³³

- JICA 주요 프로젝트목록 상 對필리핀 프로젝트는 총 88건으로 이 중, 인프라 관련 프로젝트는 20건으로 집계(2022년 12월 기준)

[JICA에서 추진 중인 對필리핀 개발협력사업(인프라)] 출처 : JICA(검색일자 2025.3.31.)

연번	구분	프로젝트명	대상지역
1	경제 인프라 개발	간선도로 우회 프로젝트 (3단계)	불라칸(Bulacan)
2		도로 업그레이드 및 유지보수 프로젝트	전국
3		센트럴 루손 연결 고속도로 프로젝트	타를락(Tarlac), 누에바 에시하(Nueva Ecija)
4		마닐라 대도시 교차로 개선 프로젝트 (6단계)	메트로 마닐라
5		다바오 시 우회도로 건설 프로젝트	다바오 시(Davao City)
6		마닐라 대도시 지진 내진교량 개선 프로젝트	메트로 마닐라
7		마닐라 대도시 종합 교통관리 계획 프로젝트	메트로 마닐라
8		민다나오 분쟁지역 도로망 개발 프로젝트	마긴다나오(Maguindanao), 라나오델수르(Lanao del Sur)
9		마닐라 대중교통 역량 강화 프로젝트	메트로 마닐라, 카비테(Cavite), 리잘(Rizal)
10		북-남 통근철도 프로젝트 (말롤로스-투투반)	메트로 마닐라, 불라칸(Bulacan)
11		마닐라 지하철 상설설계 연구	메트로 마닐라
12		마닐라 지하철 프로젝트 (1단계)	메트로 마닐라
13		북-남 통근철도 확장 프로젝트	메트로 마닐라, 라구나(Laguna), 불라칸(Bulacan), 팜팡가(Pampanga)
14		MRT-3 노선 개량 프로젝트	메트로 마닐라
15		세부-막탄 제4교 및 해안도로 건설 프로젝트	세부(Cebu)
16		필리핀 철도 연구원 설립 기술 지원 프로젝트	메트로 마닐라
17	산업 및 투자촉진	수빅만 지역개발 마스터플랜 수립 기술 지원 프로젝트	수빅만 자유무역지대(Subic Bay Freeport Zone)
18	환경 보호 및 기후변화 대응	폐기물 관리 역량 강화 프로젝트	메트로 마닐라, 퀘존시(Quezon City), 다바오(Davao), 세부(Cebu)
19	평화 및 사회경제 개발 (민다나오)	마라위 재건 및 복구 지원 프로그램	라나오델수르(Lanao del Sur)
20		방사모로 지역 사회경제 인프라 개선 프로그램	BARMM

- » Fitch Solutions, 2021. 「Asia Infrastructure Risk/Reward Index: Top-Performing Markets Gain Rewards From Post=Pandemic Construction Rebound」.
- » 관계부처합동, 2023. 「필리핀 국가협력전략」.
- » National Economic and Development Authority(NEDA), 2023a. 「Philippine Development Plan 2023-2028」.
- » _____, 2023b. 「Sustaining Gains, Enabling Transformation: Infrastructure Development in the Philippine Socioeconomic Agenda」.
- » KOTRA, 2024. 「2025 필리핀 진출전략」.
- » 산업통상자원부·한국산업기술진흥원, 2022. 「글로벌 산업기술·시장동향: 필리핀 2020~2040년 국가신재생에너지(NREP) 정책」.
- » Philippine Ports Authority(PPA), 2024. 「CY2023 Year-end Infographics」.
- » Ministry of Energy(MOE), 2023. 「Power Development Plan 2023-2050」.
- » KOTRA 해외시장뉴스, 2023. 「[기고]필리핀 외국인 직접투자를 통한 법인설립 시 외국인 소유 지분」, 2023년 2월 24일자.
- » KOTRA 해외시장뉴스, 2024a. 「필리핀의 변화를 이끄는 신규 PPP법안: 공공과 민간의 협력 강화」, 2024년 5월 7일자.
- » _____, 2024b. 「국가 재생 에너지 프로그램(NREP)이 이끄는 필리핀의 재생 에너지 혁명」, 2024년 2월 13일자.
- » _____, 2025. 「필리핀, CREATE MORE법 시행령(IRR) 공식 발표...투자 환경 변화 주목」, 2025년 3월 7일자.
- » 미국 상무부 국제무역청(ITA) <https://www.trade.gov/>
- » Global Infrastructure Hub InfraCompass <https://infracompass.gihub.org/>
- » 신흥지역정보 종합지식포털(Emerics) <https://www.emerics.org:446/>
- » Worldbank PPI <https://ppi.worldbank.org/en/ppi>
- » 필리핀 공공사업도로부(DPWH) <https://www.dpwh.gov.ph/>
- » 필리핀 교통부(DOTr) <https://dotr.gov.ph/>
- » 필리핀 PPP센터(PPPC) <https://ppp.gov.ph/>
- » 필리핀 국가경제개발청(NEDA) <https://neda.gov.ph/>
- » 필리핀 경제구역청(PEZA) <https://www.peza.gov.ph/>
- » NEDA IFPs <https://neda.gov.ph/infrastructure-flagship-projects/>
-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직접투자통계 <https://stats.koreaexim.go.kr/main.do>
- » 국토교통부 해외건설통합정보서비스 <https://www.ocis.go.kr/#tab1>
- » IEA Data Service <https://www.iea.org/data-and-statistics>
- » UN무역개발회의(UNCTAD) Stat <http://unctadstat.unctad.org/>
- » Worldbank Projects <https://projects.worldbank.org/en/projects-operations/projects-home>
- » ADB projects <https://www.adb.org/projects>
- » AIIB projects <https://www.aiib.org/en/projects/list/index.html>
- » JICA 국가별 프로젝트 <https://www.jica.go.jp/english/overseas/>
- » CIA Worldfactbook <https://www.cia.gov/the-world-factbook/>
- » 이데일리, 「필리핀 해상교량 건설에 10억 달러 이상 지원...EDCD 역대 최대」, 2024년 10월 7일자,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630566639050624&mediaCodeNo=25>(검색일자 2025.3.12.)
- » Maps Manila <https://ko.maps-manila-ph.com/>
- » 철도경제, 「[단독] 필리핀 1300km 철도망 건설... (컨) 제안사업 ‘급물살’」, 2024년 11월 6일자, <https://www.re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545>(검색일자 2025.3.16.)
- » 현대건설 <https://www.hdec.kr/>
- » World Economic Indicators <https://databank.worldbank.org/>
- » Discover the Philippines <https://www.discoverthephilippines.com/>
- » 세계에너지시장정보 <https://energy.ketep.re.kr/globalenergy/site/main/home>
- » 필리핀통계청(PSA) <https://psa.gov.ph/statistics/>



주요제도



도시화 관련 국가 정책
도시계획 및 개발 관련 법률
투자 관련 법률

IV 주요제도

01 도시화 관련 국가 정책

Vision 2040

○ 수립배경

- 필리핀은 최근 급속한 경제성장을 경험하고 있으나, 성장의 혜택은 아직 빈곤층까지 충분히 확산되지 못함
- 이에 필리핀 국가경제·개발청(National Economic and Development Authority)에서는 필리핀 국민들이 바라는 삶에 대한 의견을 체계적으로 수렴하고 정리

○ Vision 2040의 핵심 원칙 : 국민의 기본 자유 보장

- 경제적 자유(Freedom from want) : 생산적이고 품위 있는 삶을 영위할 기회 보장
- 공포로부터의 자유(Freedom from fear) : 평화롭고 안전한 환경 조성
- 지식 추구의 자유(Freedom to pursue knowledge) : 교육과 표현의 자유, 문화 보존 권리 보장

○ Vision 2040에서 필리핀 국민이 바라는 국가

- 모든 시민이 평등하게 번영을 누리는 나라
- 공정하고 질서 있는 사회에 의해 운영되는 나라
- 가족이 함께 살아가며, 문화적으로 다양한 나라
- 재난에도 회복력 있는 커뮤니티가 형성된 나라

○ 국민이 기대하는 구체적 국가상 및 이를 실현하기 위한 세부 목표

-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나라 : 국민 모두가 안정적인 소득을 가지고, 자녀 교육, 주거, 건강관리 등을 걱정 없이 누릴 수 있으며, 경제 성장이 모두에게 기회 제공
-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 : 법과 제도가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보호하고, 부자와 권력자에게만 유리하지 않은 공정한 시스템 운영
-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나라 : 생계를 위해 해외로 떠나는 부모가 줄어들고, 가족이 같은 공간에서 함께 살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사회

-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는 사회 : 지역적·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함으로써 각 지역의 정체성과 문화를 보존하며 발전
- 재난과 충격에 강한 회복력 있는 사회 : 자연재해나 갈등에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 탄탄한 사회 기반 구축
- 세부 목표

[Vision 2040 실현을 위한 세부 목표]

국민이 기대하는 구체적 국가상 및 이를 실현하기 위한 세부 목표

- 가족 4인 구성
- 자가주택 보유
- 교통수단 이용이 자유롭고, 해외여행도 가능
- 부부 모두 경제활동 참여 (여성의 경제적 기회도 보장)
- 부채 없는 생활
- 노후와 위기 상황 대비를 위한 충분한 저축
- 모든 자녀가 대학 교육까지 이수
-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빈곤에 빠지지 않음

○ 실행방안(Vision for the Country : Prosperity and Justice for All)

- 모두를 위한 번영, 건강, 교육,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 가족과 함께하는 삶의 5가지 부문으로 제시

부문	실행 방안
Prosperity for All (모두를 위한 번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Job security : 안정적인 소득이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임시 계약직이 아닌 장기 고용을 통해 계획을 세우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 • A living wage : 최소 생계를 넘어, 가족을 부양하고 저축도 가능한 수준의 임금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고등교육 졸업자조차도 저임금 일자리만 찾을 수 있는 현실 개선 필요 • Good jobs in the country : 해외취업을 희생이 아닌 선택으로 만들기 위해, 필리핀 내에서 양질의 일자리 제공 필요 • Career growth, savings, and retirement : 단순 생계유자가 아닌, 자기실현과 미래 설계가 가능한 직업시장이 필요하며, 은퇴 후에도 소득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또한 필요 • Entrepreneurship : 창업을 부의 축적 및 자유로운 삶의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빈곤층의 창업 애로 해소를 위해 정부 차원의 창업지원 및 금융 접근성 제고 필요
Health (건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비 부담은 국민 생활의 가장 큰 불안 요소 중 하나 • 공공 병원의 의료 서비스 질 개선 및 약품·의사 부족 해소가 요구 • 특히, 예방적 관리(preventive healthcare)에 대한 국가적 지원 필요
Education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 교육이 경제적 자립과 중산층 진입의 필수 경로로 인식됨에 따라, 모든 자녀를 대학까지 졸업시키는 것이 국민 공통의 최우선 목표 • 초등학교는 비교적 접근이 용이하지만, 고등학교, 대학교 진학은 경제적 제약으로 어려움
Just and fair society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overned with order and unity : 법과 질서를 제대로 집행하여 사회 전반에 질서를 확립하는 국가조성 필요 • Positive politics : 현재의 부정적인 정치문화(부패, 이권 다름, 파벌정치)에 대한 국민 불만 해소를 위해 공공선을 목표로 한 정치, 부패가 없는 정부 희망 • Citizen-centered government : 시민의 권리 실현을 가로막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는 과도한 행정절차, 비효율, 부패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효율적이고 투명한 행정 체계 구축 필요 • Attention to the regions : 비사야, 민다나오 등 일부 지역에서는 중앙정부의 무관심과 소외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자치 강화, 특히 연방제(federalism)에 대한 요구 존재
Families stay together (가족과 함께하는 삶)	<ul style="list-style-type: none"> • Vibrant, culturally diverse, and resilient communities : 필리핀 각 지역의 고유 문화와 다양성을 존중하는 국가 발전을 위해 지역의 정체성 보존과 공동체 회복력 강화 중시 • Communities without conflict : 민다나오 등에서 발생하는 무장 갈등을 종식시키고, 지속가능한 평화를 통해 주민들의 안정적인 삶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 • Communities resilient against disasters : 자연재해에 강한 지역사회 구축을 위해 재건과 장기 복구 체계 마련 필요 • Livable cities : 쾌적하고, 안전하고, 접근성 좋은 도시환경 조성 필요

Philippine Development Plan 2023~2028 (PDP 2023~2028)

- 필리핀 정부가 2023년부터 2028년까지 추진하고자 하는 경제 및 사회 전환 계획의 핵심 방향으로, 단순한 경기 회복이 아닌 심층적인 경제·사회 시스템의 구조적 전환을 지향
 - 수립 배경 : 코로나19 이후 건강, 교육, 일자리, 식량안보 등 다방면에서 드러난 국가적 취약성을 극복하고 경제 및 사회 대전환을 위해 「PDP 2023~2028」을 수립

- 비전 및 목표 : “안정적이고, 숨쉬기 편하고, 안전한 삶”을 달성하기 위하여 “
번영하고 포용적이며 회복력 있는 사회를 위한 경제적, 사회적 변혁 달성” 추진
- 주요 전략 목표

[PDP 2023-2028 주요 전략 목표]

PDP 2023-2028 주요 전략 목표

- 개인과 가족의 역량 개발 및 보호: 건강, 교육, 주거, 사회보호
- 생산 부문의 혁신과 고용 창출: 농업, 산업, 서비스 부문 현대화 및 고도화
- 지속가능한 환경 조성과 제도 개선: 재정건전성, 인프라, 평화, 거버넌스, 기후변화 대응 등

○ 핵심 전환 전략

[PDP 2023-2028 핵심 전환 전략]

구분	주요 내용
디지털 전환 (Digitaliz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 행정 서비스의 효율성, 투명성 제고 • 사회보장제도와 고용 매칭 시스템 개선
서비스화 (Servicific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와 서비스 간 경계를 넘는 연계 강화 • ICT, 창의산업, 관광, 물류 등 서비스산업 고도화 및 고부가가치화
역동적인 혁신 생태계 (Dynamic Innovation Ecosyste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식창출에서 상용화까지 전주기적 지원 체계 구축 • 산학연 협력 강화 및 스타트업 육성
연결성 강화 (Enhanced Connectivit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 및 물리적 연결성 동시 확장 • 도시간, 농촌-도시 간 인프라 연계 강화
지방정부 및 민간과의 협력 (Greater Collaboration with LGUs & Private Secto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andanas-Garcia 판결에 따라 지방정부 재정자율성 확대 • 민관협력(PPP) 강화 및 민간 투자 촉진

○ 성과목표(2023~202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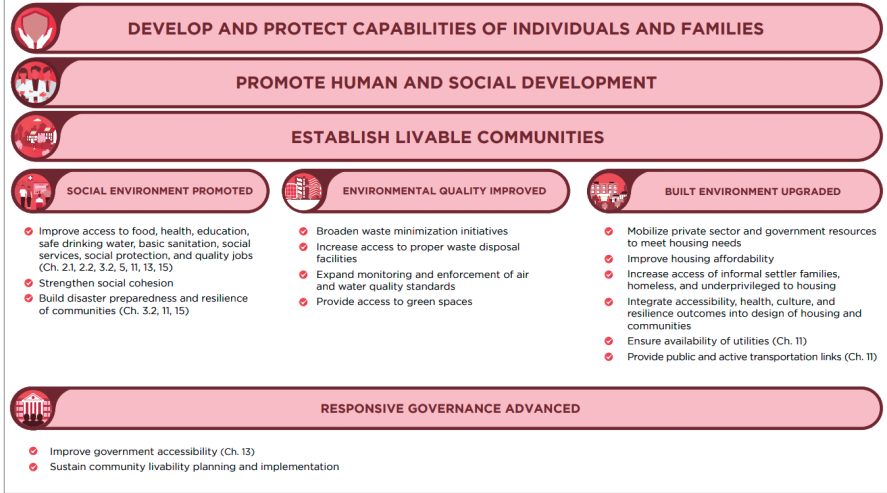
- 경제성장률 : 연평균 6.5~8% 유지
- 빈곤율 : 2028년까지 9%로 감소
- 실업률 : 4~5% 달성
- 1인당 국민소득 : 2025년까지 중상소득국 진입(GNI 기준)
- 재정건전성 확보 : 재정적자 및 정부부채의 GDP 대비 비율 점진적 축소
- 글로벌 경쟁력 지수 : 상위 33% 진입
- 혁신지수 순위 : 2028년까지 43위 진입

○ 주요 전략 목표 중 도시계획 및 개발 관련 사항

- 주요 전략 목표 중 “개인과 가족의 역량 개발 및 보호”의 추진 전략 중 “인간 및 사회 발전 증진”의 하위 전략으로 “살기 좋은 공동체 구축”을 목표로 ▲사회 환경 증진, ▲환경 질 개선, ▲건축 환경 개선, ▲대응적 거버넌스 발전을 제시
- 주요 전략 목표 중 도시계획 및 개발과 관련 있는 항목은 건축환경 개선과 대응적 거버넌스 발전에 포함

[도시계획 및 개발 관련 주요 전략 목표]

전략 목표	세부 내용
건축환경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 및 정부 자원 동원을 통한 주거 수요 대응 : 연간 100만 호 주택 건설을 목표로 설정하고, 주택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한 자원 확보를 위해 국가 및 지방정부뿐만 아니라, 정부 금융기관 및 민간 은행을 통해 자금 동원 추진 • 주택의 경제적 접근성 향상 : 모기지금융, 직접건설, 커뮤니티 주도 개발 등을 통한 주거보조 지속 추진과 비공식정착민(ISF)에 대한 추가 보조금 제공, 저소득 ISF 및 초기 가정을 위한 임대보조제도 추진 • 비공식정착민(ISF), 노숙인, 빈곤층의 주거 접근성 확대 : ISF 및 노숙인 수요 파악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온사이트, 도시 내, 근거리 재정착 프로그램 시행, 형식적 주거 권리를 감당할 수 없는 노숙인을 위한 임시주택 또는 기숙사 제공 등 • 주택 및 커뮤니티 설계 시 접근성, 건강, 문화성, 회복탄력성 통합 : 최소 건강기준, 접근성, 문화적 적정성, 기후 및 재해 회복력, 에너지 효율, 녹지공간, 적극적 이동성, 기술혁신, 도시화 추세, 주거 선호도 반영 • 기반시설(Utilities) 확보 보장 : 건축 및 공정 단계 개선을 통한 입주 전 필수 유틸리티(상수도, 전력, 통신, 위생) 확보 보장 • 대중교통 및 능동적 이동 연결망 구축 : 지역과 경제·사회·문화시설을 연결하는 지속가능하고 저렴한 교통수단 제공
대응적 거버넌스 발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커뮤니티 거주 적합성(livability)의 계획 및 실행 지속 : 커뮤니티 주도의 정주 적합성 계획 수립을 지속하고, 도시확산(urban sprawl)에 대응하기 위해 ‘People’s Plan’을 온사이트, 인시티(in-city), 인근지역 재정착 프로그램에 적용 확대 등 • 포괄적 토지이용계획(CLUP)의 역할 : 커뮤니티의 거주 적합성 형성에 기여하며, 조상 대대로 내려온 토지, 문화유산, 생물다양성 등 부문별 이슈 보호를 보장 • 환경 수용능력(carrying capacity) 평가 : 자연환경 훼손 가능성이 있거나 회복 불가능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수용능력 평가를 시행하고, CLUP, 종합개발계획(CDP) 등 지방계획의 정책 수립과 규제에 활용 • 광역도시권 거버넌스와 연결 : 거주 적합성이 향상된 커뮤니티 간 상호 연결을 통해 도시권 통합(agglomeration) 가속



02 도시계획 및 개발 관련 법률

도시개발 및 주택법 (Urban Development and Housing Act)

개요 및 구성

○ 법 개요 및 목적

- 목적 : 도시개발 및 주택공급에 대한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프로그램을 규정하며, 국가와 민간의 협력을 통해 도시 내 저소득층과 무주택자의 주거안정 보장
- 세부 목표
 - 도시빈민 및 무주택자에게 저렴한 주택, 기본 서비스, 고용기회 제공
 - 토지의 합리적 개발과 이용을 통해 도시기능 개선, 경제활동 촉진
 - 도시 팽창을 분산적 도시망 체계로 유도
 - 소유권 보장과 소규모 토지소유자의 권리 존중 병행
 -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 주민 참여 촉진

○법의 적용범위

- 적용범위 : 모든 도시 및 도시화 가능 지역의 토지가 대상이며, 우선개발지역, 슬럼개선, 재정착지역이 포함
- 적용 제외 대상 : 농지개혁법 적용 토지 및 국방, 생태보전, 종교·교육 목적 등으로 사용 중인 토지 등

○법의 구성 체계

- 총 13개 장, 49개 조항으로 구성
- 13개의 장은 명칭, 국가정책, 정의, 적용범위 및 면제대상, 국가 도시개발 및 주택 기본계획, 토지이용, 조사, 취득 및 처분, 사회주택, 우선개발지역 및 슬럼, 도시재생 및 재정착, 커뮤니티 모기지 프로그램, 연계전략, 시행체계, 재원조달 등으로 구성

[도시 계획 및 건축 관리법의 내용적 구성]

장	제목	주요 내용
1	명칭, 국가정책, 정의	명칭, 국가정책 및 목표, 주요 정의
2	적용범위 및 면제대상	적용 범위 및 제외 대상
3	국가 도시개발 및 주택 기본계획	국가 도시개발 및 주택 프레임워크
4	토지이용, 조사, 취득 및 처분	토지조사, 대상지 선정, 취득 우선순위, 취득 방식, 강제수용, 처분 및 감정평가, 처분 제한 등 사회주택을 위한 토지 행정의 전 과정
5	사회주택	사회주택의 정의, 수혜 대상, 민간의무, 인센티브, 기본 서비스 및 수혜자 참여 방안 등
6	우선개발지역 및 슬럼	우선개발지역(APD), 지역개선계획 대상지(ZIP), 슬럼개선 및 재정착 대상지(SIR)에 대한 우선적 지원과 권리 보장
7	도시재생 및 재정착	도시재생, 이주 및 재정착, 불법점유자 대응, 전문 불법거주자 처벌 등
8	커뮤니티 모기지 프로그램(CMP)	커뮤니티 모기지 프로그램의 정의와 인센티브, 협회구성에 관한 사항
9	연계전략	관련 전략 (교통, 환경, 인구이동 등)
10	시행체계	지방정부와 정부의 주택관련 기관 등 프로그램 이행 주체
11	재원조달	프로그램 재원조달 및 자금운용 관련 사항
12	경과규정	-
13	일반조항	-

도시 계획 및 개발 관련 사항

○ 국가 도시개발 및 주택 프레임워크(National Urban Development and Housing Framework, NUDHF)(제6조)

- 주택·토지이용규제위원회(HLURB)가 주택·도시개발조정위원회(HUDCC)의 지휘 아래, 모든 지방정부 및 관련 공·사기관과 협의하여 수립
- 도시 및 도시화 가능 지역에 대한 종합계획으로서, 기존의 도시계획, 토지이용계획, 주택 프로그램, 교통·공공시설·인프라·환경·인구이동 등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 및 민간의 모든 활동을 검토·정비

○ 토지조사(제7조)

- 지방정부가 조사를 담당하며, 3년마다 갱신하여 조사 결과는 HUDCC에 보고
- 조사항목 : 주거용 토지, 정부 소유 토지, 미등기 또는 방치된 토지, 기타 토지

○ 토지 취득방식(제9, 10조)

- 협상매입, 공동개발, 기부, 교환, 토지은행, 강제수용 등
- 1년 이상 아무런 개선 없이 방치된 도시 내 비농업용 토지의 경우, 강제수용 가능
※ 강제수용은 최후의 수단이며, 불가항력 예외 인정 및 소규모 소유자 토지는 제외

○ 사회주택 관련 사항(제15~24조)

- 사회주택은 무주택 빈곤층에 대한 주거 공급의 핵심 전략
- 임대나 사용수익권(Usufruct) 등은 일시적 방식으로, 수혜자는 일정 기간 후 프로그램에서 자립하도록 유도
- 수혜자 요건 : 필리핀 시민 중 법 제3조에서 정의된 빈곤층 및 무주택 시민이면서 도시·농촌을 불문하고 부동산 미소유자이어야 하며, 전문 불법점유자 또는 불법점유 조직원이 아닌 경우에만 수혜 가능
- 민간의 균형주택 개발 의무 및 인센티브(제18조, 20조)

[민간의 균형주택 개발 의무 및 인센티브]

구분	주요 내용
민간의 균형주택 개발 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 개발자는 새로운 주택단지 개발 시 전체 면적의 20% 이상, 또는 전체 사업비의 20%에 상응하는 사회주택 개발 의무 부여 • 같은 시·군 내에서 우선 시행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신규 정착지 개발, 슬럼 정비 또는 재정착 지역 개발, 지방정부나 주택기관과의 합작사업, 커뮤니티 모기지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수행 가능
민간 개발자의 사회주택 참여 시 인센티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0일 이내 인허가 발급을 보장하는 원스톱 창구 운영 및 각종 세금 면제(사업 관련 소득세, 사회주택 대상 원지의 양도소득세, 시공사 대상 부가가치세, 원지 및 완공지에 대한 이전세, 사회주택 목적 기부 토지에 대한 증여세 등)

개요 및 구성

○ 법 개요 및 목적

- 목적 : 생명, 건강, 재산, 공공복리를 보호하고, 환경관리 원칙에 부합하는 안전한 건축환경 조성
- 공공의 생명, 건강, 재산, 복리를 보호
- 환경 보호와의 조화
- 계획적 도시 발전 유도
- 안전하고 적절한 거주 환경과 생활 여건 보장
-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개발 도모

○ 적용범위

- 전국 모든 시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 및 민간 건축물에 적용 : 새로운 건축물의 설계, 건축, 확장, 변경, 보수, 이설, 철거에 대해 다루고 있으며, 이외에 부속시설 또는 기계설비의 설치 및 해체 또한 동법을 준수해야 함
- 단, 다음은 적용에서 일부 제외되거나 조건부 허용 : 전통 토착 가옥(Indigenous family dwellings) 또는 임시 구조물*

* 정부 승인을 받은 경우

○ 법의 구성 체계

- 총 21개 장, 215개 조항으로 구성
- 21개의 장은 행정 및 집행에 관한 내용부터 허가 및 검사, 건축물 구조, 건축물의 용도, 채광과 환기 위생, 화재, 간판 등 건축물의 세부적인 사항까지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음

[국가 건축법의 내용적 구성]

장	제목	주요 내용
1	일반 규정	법의 목적과 적용 범위, 주요 정의 등
2	행정 및 집행	공공사업부 장관의 집행 권한 및 기술인력 구성과 건축공무원의 자격, 권한, 임무 규정 등
3	허가 및 검사	건축 허가 신청, 처리 절차, 유효기간, 철회 조건 등 규정
4	건축물의 구조 유형	건축재료에 따른 건축물의 구분
5	화재구역에 관한 요건	도시 내 화재위험도에 따라 Fire Zone 지정 관련 사항
6	내화구조 요건	자재별 내화등급 시간 정의 및 내화 기준 및 시험방법 등
7	건축물의 용도별 분류 및 일반 요건	건축물의 용도별 분류

장	제목	주요 내용
8	채광 및 환기	자연 채광 및 통풍을 위한 창면적, 통풍구, 환기량 기준
9	위생	건축물의 상수도, 오수처리, 소음방지, 해충방지 요건
10	도로 위 건축물 돌출 구조물	발코니, 차양, 캐노피 등 도로 위 구조물의 돌출 허용 범위 규정
11	공사 또는 철거 중 보행자 보호	공사 중 보행자 보호시설(울타리, 캐노피, 우회로 등) 설치 의무
12	일반 설계 및 시공 요건	구조설계, 기초, 바닥, 지붕, 피난로 등 건축 구조 일반기준
13	전기 및 기계 설비 규정	전기 및 기계 설비는 각각 Philippine Electrical/Mechanical Code 준수
14	사진 및 엑스레이 필름	가연성 필름의 저장 및 처리 시 방화시설, 자동소화시스템 의무화
15	프리패브 건축	프리패브 구조물에 대한 설계강도, 접합부, 내구성 시험 기준
16	플라스틱 자재	플라스틱 자재의 내화성능, 허용면적, 적용부위 기준
17	금속 도장 부스	도장부스의 금속재질, 환기량, 방화막 등 안전기준
18	유리 및 유리창	유리 설치 시 풍압, 내충격성, 테두리 지지조건 등 기술 기준
19	컴퓨터의 사용	건축 설계 시 컴퓨터 프로그램의 공식 인증 및 문서화 의무
20	간판	간판의 위치, 구조, 재료, 도로 돌출 한계, 전기설비 규정
21	경과 및 최종 규정	기존 건축물의 적용범위, 법령 간 충돌 시 우선 적용 규정

도시 계획 및 개발 관련 사항

○ 건축물의 필요 요건(제104조)

- 안전성 : 구조적 안전 확보
- 위생 및 건강 : 채광, 환기, 급배수 등
- 내화성능 및 재난 대응성
- 쾌적한 주거환경 : 공간 배치, 채광, 통풍
- 미관 : 주변 환경과 조화
- 에너지 및 자원 효율성

○ 건축 예정지의 필요 요건(제105조)

- 위험요소로부터 이격 : 홍수 지역, 화산, 지진대, 공장, 매립지 등으로부터 일정 거리 확보
- 오염원과의 거리 확보 : 하수, 분뇨처리장, 매연배출 시설 등과 일정 거리 유지
- 토지이용계획 및 지역조례와의 적합성
- 접근성 : 도로, 수로 등과 연결되는 부지
- 부적합한 부지에 대한 건축은 금지되며, 위반 시 허가 불가

○ 건축물의 용도 구분(제701조)

- 모든 건축물은 용도(또는 점유 성격)에 따라 Group A부터 Group J까지로 분류

[건축물의 용도별 분류]

그룹	용도
A	일반 주거용 주택 (단독주택)
B	공동주택, 호텔, 아파트 등 (10인 이상 수용)
C	교육·유흥시설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
D	의료 및 복지시설 (병원, 정신병원, 요양원, 교도소 등)
E	업무·상업시설 (사무실, 상점, 정비소 등)
F	일반 산업시설 (냉장창고, 발전소, 펌프장 등)
G	저장 및 위험시설 (가연물, 화약, 정비창 등)
H	1,000명 미만 수용의 집회시설 (극장, 체육관 등)
I	1,000명 이상 수용의 집회시설
J	부속시설 (차고, 율타리, 창고, 급수탑 등)

○ 용도 변경(제702조)

- 기존 건축물을 다른 용도 그룹으로 변경하려면 해당 그룹의 구조 및 화재안전 기준을 충족해야 함
- 단, 변경 후의 용도가 기존보다 위험도가 낮은 경우, 일부 기준은 완화 가능

○ 혼합 용도 건축물 : 두 가지 이상 용도를 가진 건물의 경우 다음 기준을 적용 (제703조)

- 전체 건물은 가장 엄격한 용도 기준을 기본으로 적용
- 단층 건물에서 공간이 구분되어 있으면 각 부분의 용도 기준 적용 가능
- 부속공간(면적의 10% 이내)은 주요용도 기준을 적용

○ Group A 주거용 주택의 최소 요건(제708조)

- 건축면적 : 대지의 최대 80%~90% 이내
- 배치 간격 : 경계선으로부터 최소 2m 이상
- 채광·환기 : 창은 바닥면적의 최소 10% 확보
- 위생설비 : 변기 1개 이상, 배수시설 필수
- 구조 : 기초(깊이 600mm 이상), 목재 기둥(기준 치수 표(Annex B-1)에 따라 규정), 계단(폭 750mm 이상, 단높이 200mm 이하), 전기 및 기계설비(관련 기술기준(전기법, 기계법) 준수) 등

○ Group B~J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기준 : 장관이 별도로 제정(제709조)

개요 및 구성

○ 법 개요 및 목적

- 목적 : 민간 부문의 필수적 역할을 인정하고, 민간 기업과 투자를 장려하며, 필리핀 노동력, 국산 자재 및 국산품의 우선 사용을 촉진
 - 특별경제구역·산업단지·수출가공구역 등의 통합적 관리 제도 마련
 - 전략지역을 고도화된 산업·관광·금융 중심지로 개발
 - 전후방 산업 연결 및 고용 유발을 위한 외국·국내 투자 촉진
 - 필리핀 해외 자본의 본국 송환 유도
 - 선진국과의 기술협력을 통한 산업 현대화
 - 헌법 내에서 일부 지역에 별도 관세영역(Customs Territory) 부여
- 적용대상 : 특별경제구역(농공업, 상업, 관광, 금융 중심지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 지역)

[특별경제구역의 종류]

구분	세부 사항
산업단지(IE)	통합 관리, 인프라 제공, 표준공장 등 포함
수출가공구역(EPZ)	수출지향 생산지, 관세 및 세금 면제
자유무역지대(FTZ)	입국항 인접, 재포장·가공 허용, 단 국내 이동 시 관세 부과
관광 및 레크리에이션 센터	-

○ 법의 구성 체계

- 총 6개 장, 51개 조항으로 구성
- 6개의 장은 특별경제구역 설치 목적, 정의, 지정기준 등의 일반적 사항과 필리핀 경제구역청의 지배구조, 특별경제구역 내의 운영, 특별경제구역 내 노사화합, 중앙정부 및 관련 기관과의 관계 등으로 구성

[특별경제구역법의 내용적 구성]

장	제목	주요 내용
1	목적 및 설치, 특구의 성격과 유사 제도와의 조화	특별경제구역 설치 목적, 정의, 지정기준, 지역목록, 독립관세영역 지정 등 제도적 기반을 규정
2	지배구조	PEZA(필리핀 경제구역청)의 설치, 이사회 구성, 권한, 청장의 역할, 인사 및 조직 체계 명시
3	특별경제구역 내의 운영	입주기업 등록, 세제 혜택, 외환 송금, 국내판매 제한, 토지임대·전환, 환경보호 등 운영 규정
4	특별경제구역 내 노사화합	노사관계, 고용조건, 외국인 근로자 비율 제한, 노사정 협의체, 고용계약 기준 제정 등
5	중앙정부 및 관련 기관과의 관계	지방정부·민간과의 관계, 기존 산업단지의 기능 이전, 중앙정부의 감독·자원 이관 등
6	기타 조항	예산 조달, 법률 해석, 시행규칙 제정, 기존 법령과의 관계 정리, 경과규정 등

도시 계획 및 개발 관련 사항

○특별경제구역의 설치(제5조)

- 초기에 지정된 40여 개 지역의 명칭과 위치 명시
예 : 바탄주, 리파시, 카가안데오로시, 다바오시, 세부, 라구나, 팔라완 등
- 설치 방식은 민간 주도, 지방정부 주도(국가 지원), 국가 주도 3가지로 규정
- 각 특구의 경계는 필리핀 경제구역청(Philippine Economic Zone Authority, PEZA)의 권고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확정

○기타 지역 지정 기준(제6조)

- 국가·지역 개발계획에 명시된 성장거점일 것
- 인프라, 전력·수자원, 노동력과 토지(확장성 포함) 보유 여부
- 전략적 입지 및 밀수 통제 가능성
- 해당 기준 미충족 지역은 민간 또는 지방정부 주도(BOT 방식)로만 개발 가능하며, 5년 내 일정 수준의 발전을 이뤄야 함

○ 특별경제구역의 인센티브(제23~24조)

[특별경제구역의 인센티브 구분 및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재정적 장려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통령령 제66호(PEZA 설립 근거) 또는 행정명령 제226호 (1987년 종합투자법, Omnibus Investment Code)에 따른 세제 혜택 수혜 가능 • 현지 자재를 사용하는 수출업체는 1994년 수출개발법에 따른 세액공제를 추가 수혜 가능
국세 및 지방세 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동산세를 제외한 모든 국세 및 지방세 면제 • 대신, 입주 기업은 총수입의 5% 납부(3% 중앙정부, 2%는 해당 지자체 재무국)

○ 토지 수용권(제29조)

- 정부는 토지 통합, 통로 확보, 환경자산 보호의 경우, 사유지를 수용하거나 매입할 수 있는 권한 보유
- 수용 시 이주자에게 보상 제공, 농지개혁 수혜자는 주택부지 및 우선 고용 혜택 부여

○ 외국인의 토지 및 건물의 임대(제30조)

- 외국인 투자자는 최대 50년(추가로 25년 갱신 가능) 범위 내에서 토지·건물 임대 가능
- 임차권은 양도·이전 가능하되, 조건 준수 필요

종합투자법 (Omnibus Investments Code)

개요 및 구성

○법 개요 및 목적

- 다양한 투자 인센티브 법률을 통합한 투자진흥의 기본법 역할

○8가지 핵심 정책 원칙

[종합투자법의 8가지 핵심 정책 원칙]

핵심 정책 원칙	주요 내용
투자 장려 대상과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산업 : 제조업, 농업, 임업, 광업, 관광, 기타 산업 분야 • 목적 : 고용 창출, 자원 활용 및 생산성 향상(토지, 광물, 수산 등), 기술력 향상 및 산업기반 구축, 국제경쟁력 확보 및 수출 증대, 낙후지역 개발과 산업의 지역 분산
사회적·생태적 조화 강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 촉진은 지역사회 및 생태환경과의 조화를 전제 • 필요 시 지역사회와의 협의(consultation with affected communities)를 의무화
인센티브 부여 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 실패 보완 및 경제발전 기여도에 따라 차등 보상 • 인센티브 제도는 효율적이고 단순하게 운영 • 일반 원칙 : 인센티브는 등록 또는 운영 시작일로부터 최대 10년까지만 부여
민간 부문 중심의 경제 성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는 민간을 경제 성장의 주체로 인정 • 불필요한 규제는 철폐하고, 자율규제(Self-regulation) 유도
정부의 역할은 '지원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는 경쟁자가 아닌 촉진자(facilitator)로서 제도와 인프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역할
내국 자본과 외국 자본의 역할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외국 자본의 상호보완적 역할 인정 • 정부는 자본의 역할 정의 및 진입 여건 마련 담당
산업 평화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사 관계의 안정은 경제성장의 필수 조건으로 인식 • 정부는 산업평화 유지에 적극적으로 개입
인센티브의 시한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센티브는 초기 설립 및 성장 단계에서만 제공 • 일반적으로 10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특정 조항에서만 연장 허용

○법의 구성 체계

- 서문과 6개의 Book, 최종 조항으로 구성
- 서문은 법의 목적과 투자청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이외에 인센티브가 부여되는 투자, 인센티브 없는 외국인 투자, 다국적 기업의 지역 분사 설립, 지역 창고를 설립하는 다국적 기업, 특별 투자자 거주 비자, 수출가공구역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

[종합투자법의 내용적 구성]

구분	제목	주요 내용
서문	서문	법률의 목적 및 투자청의 구성과 권한에 관한 사항
Book I	인센티브가 부여되는 투자	선호 투자 분야(투자 우선순위 계획, 기업 등록), 기본 권리 및 보장, 등록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저개발 지역 기업 인센티브 등
Book II	인센티브 없는 외국인 투자	※ 외국인투자법으로 대체
Book III	다국적 기업의 지역 본사 설립	다국적 기업의 라이선싱, 해외근무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역 본부 인센티브
Book IV	지역 창고를 설립하는 다국적 기업	창고 설립 자격, 창고 내 물품에 대한 세제 혜택, 보관 기간, 물류·통관 규정 등
Book V	특별 투자자 거주 비자	특별 투자자 거주 비자 발급요건
Book VI	수출가공구역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외국인 고용에 관한 사항, 수출가공구역 내 물품에 대한 세제, 추가 인센티브 등
최종 조항	최종 조항	-

주요 내용

○기업의 등록 요건(제32조)

- 일반적으로 내국인 지분 60% 이상 필요
- 외국인이 100% 소유 가능 조건 : 선도산업(pioneer), 수출 70% 이상, 필리핀인 지분 확보 계획 수립 등

○외국인 및 등록 기업의 헌법상 권리 보장(제38조)

- 투자 원금 및 수익의 자유로운 송금
- 정당한 보상 없는 수용 및 징발 금지
- 기술이전 계약에 따른 외화 송금 허용
- 전시 또는 국가비상사태 하에서만 일시적 재산 사용 가능

○투자 우선순위 계획(IPP)

- 선호 활동, 수출 활동, 특별법에 의한 우선순위로 구분하여 제시

구분	분야	주요 내용
선호 활동	농산물 가공 및 제조업	할랄/코셔 포함 식품, 산업재, 중간재 및 소비재 제조. 기술기준, 수입대체, 신기술 활용 요건 등
	농업, 어업 및 임업	상업적 생산, 종묘장/부화장, 저장/가공 시설 포함
	전력 서비스	IC설계, IT-BPM, 창의산업, 항공기 MRO, 충전소, 산업폐기물처리, 통신, 엔지니어링 등
	의료 서비스	종합/전문병원, 약물재활센터, 외래진료시설 등
	대량 주택	저가/임대 주택 등
	인프라 및 물류	화물 및 승객을 위한 공항 및 항구, 항공, 육로 및 수상 운송(항공 운송, 육상 대량 운송, 수상 운송, 매스 레일), LNG 저장 및 재기화 시설, 석유 및 가스 파이프라인, 대량 물 처리 및 공급, 교육/학습 시설, 산업단지, PPP 프로젝트, 유료도로 등
	혁신동인	연구개발, 우수 센터, 혁신센터, 사업 육성 허브, 신기술의 상용화
	포괄적 비즈니스 모델	농업 및 관광 부문의 중대기업(MLE)이 중소기업(MSE)에게 가치 사슬의 일부로 사업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 활동
	환경 또는 기후 변화 관련 프로젝트	제품의 제조/조립과 에너지 효율 관련 시설의 설립 포함등
	에너지	석탄, 석유, 가스 등 기존 연료, 폐열 및 기타 폐기물을 활용하는 발전 프로젝트. 배터리 에너지 저장 시스템 구축 등
수출 활동	수출제품 제조/서비스	비전통적 수출 제품, 수출 지분 요건(50~70%). 콜센터, IT-BPM 서비스 등
	산업용 수목 조림	상업용 조림
특별법	광물 채굴 및 가공	자본 장비 인센티브 대상. 탐사/채굴/가공 등록 가능.
	재생에너지	RE 발전소, 장비 제조 포함
	관광	숙박, 교통, MICE, 관광 교육 등

○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출처 : 필리핀 투자위원회 홈페이지(<https://boi.gov.ph>)

인센티브	BOI	PEZA	CDC/ SBMA	CEZA	AFAB	APECO	ZCSEZA
소득세 면제 (ITH)	4~6년(최대 8년)		모든 지방세 및 국제 면제		4~8년		4~6년
ITH 보너스	조건 충족 시 최대 3년						조건 충족 시 2년
총소득에 대한 특별세율	해당 없음	ITH 후 총소득의 5%	총소득의 5%		ITH 후 총소득의 5%		
자본재 및 부품 수입	0% 관세	면세					0% 관세
항만세 및 수출세 등	면제		없음	면제			
외국인 고용	• 외국인인 프로젝트 등록 후 5년 이내 감독·기술·자문직 고용 가능 • 사장, 총괄 관리자 등은 장기 고용 가능 • 배우자 및 21세 미만 자녀 동반 가능						

외국인투자법

(Foreign
Investments
Act)

개요 및 구성

○ 법 개요 및 목적

- 외국인의 투자 유치와 장려를 목적으로 하며, 단순한 자본 유입을 넘어서 기술 이전, 고용 창출, 수출 촉진, 소비자 복지 향상 등을 도모
- 수출지향 기업은 100% 외국인 소유가 가능하고, 내수지향 기업은 일정 조건하에 외국인 지분 제한이 있음.
- 외국인 소유 기업은 점진적으로 필리핀인을 고용 및 파트너로 참여시키고 기술 이전을 촉진해야 함

○ 주요 용어의 정의

- 필리핀 국적 : 필리핀 국민 또는 자본의 60% 이상이 필리핀인에게 귀속된 법인
- 외국인 투자 : 외국인이 자산(외화 등)을 필리핀에 실제로 이전하고, 중앙은행에 등록한 투자
- 수출기업 : 생산물의 60% 이상을 수출하는 기업
- 내국시장기업 : 대부분의 생산물을 필리핀 국내에 판매하는 기업
- 외국인 투자 제한 리스트 : 외국인 지분이 제한되는 분야의 목록으로, 리스트 A와 B로 구분

○법의 구성 체계

- 장의 구분 없이 총 18 조항으로 구성
- 내용적으로 구분해보면 서문은 법의 제목과 목적, 주요 용어의 정의 등 법의 개요를 다루고 있으며, 이외에 적용 범위 및 등록 절차, 외국인 투자제한 리스트, 전(前) 필리핀 국민의 투자 권한에 관한 내용, 기타 주요 규정으로 구성

[외국인투자법의 내용적 구성]

구분	해당 조항	주요 내용
서문	제1~3조	법률의 제목 및 목적, 주요 용어의 정의
적용 범위 및 등록 절차	제4~7조	외국인투자법의 적용 대상, 외국인의 사업 등록 및 소유에 관한 내용, 인센티브 관련 사항 등
외국인 투자 제한 리스트	제8조	외국인의 투자제한 사업 목록
전 필리핀 국민의 투자 권한	제9~10조	필리핀 국적을 상실한 前필리핀 국민의 투자 권한에 관한 내용
기타 주요 규정	제11~18조	환경보호, 행정제재 등 기타 규정

주요 내용

○외국인 투자법의 적용 제외 대상(제4조)

- 일반 은행법, 그 외 중앙은행(BSP)의 감독을 받는 은행 및 금융기관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
- 외국계 금융기관의 필리핀 진출은 본 외국인투자법이 아닌 별도의 금융 관련 법률 및 규정 준수 필요

○외국인의 투자 등록(제5조)

[외국인의 투자 등록 관련 사항]

구분	주요 내용
등록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은 사전 승인 없이 투자 가능 • 단, 다음의 경우는 제외 : 제3조(a)에서 정의된 필리핀 국적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기타 법령상 외국인에게 자격이 부여되지 않는 경우
등록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 설립 : 증권거래위원회(SEC) 등록 • 개인기업/소상공인 등 : 무역산업부 산하 무역규제 및 소비자보호국(BTRCP) 등록
BOI(투자청) 등록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BOI 등록 필수 • 종합투자법(OIC, Omnibus Investment Code of 1987)에 따른 규정 준수
합작기업 설립 시 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이 국내 시장용 합작투자를 추진할 경우, 대주주의 비-필리핀 국적 여부, 파트너의 성명과 주소 등 공개 • 일정 조건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SEC가 등록을 거부 가능

○ 외국인의 투자활동 소유 및 조건(제6~7조)

[외국인의 투자활동 소유 및 조건]

구분	주요 내용
수출기업 (Export Enterpris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리스트 A 또는 B에 포함되지 않은 업종의 경우, 외국인은 100% 소유 가능 • 단, 해당 기업은 BOI에 등록하고, 수출비중(60% 이상) 충족 여부를 지속적으로 보고 • 수출 비중을 충족하지 못하면, 국내 판매 비중을 40% 이하로 제한
내국시장 기업 (Domestic Market Enterpris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도 100% 내국시장 기업 소유 가능 • 단, 다음의 경우 제외 : 헌법상 금지된 분야, 제8조에서 명시한 외국인 투자 제한 리스트에 포함된 업종

○ 외국인의 투자 제한 리스트(제8조)

[외국인의 투자 제한 리스트]

구분	주요 내용
리스트 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헌법 및 기존 법률에 따라 외국인의 소유가 금지되거나 제한된 분야
리스트 B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방 및 안보 관련 산업 : 화기, 탄약, 군수품, 폭발물, 발연물 등의 제조, 수리, 저장, 유통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전문기술이 있는 외국인 기업에 한해 국방부 장관의 예외 승인 가능 • 공중보건 및 도덕적 보호 : 위험약물의 제조 및 유통, 도박, 나이트클럽, 바, 술집, 무도장, 마사지샵, 찜질방 등 • 중소 내국시장기업 보호 조항 : 납입자본금이 20만 달러 이하인 내국시장기업은 외국인 투자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과학기술부 장관이 인정한 고급기술 보유 기업인면서, 상시 50명 이상 고용하는 10만 달러 이상 자본금을 보유한 기업의 경우 외국인 참여 허용

[참고문헌]

- » Vision 2040(2017), National Economic and Development Authority
- » Philippine Development Plan 2023-2028, National Economic and Development Authority (NEDA)
- » 필리핀 투자청 홈페이지 <https://boi.gov.ph>
- » 도시개발주택법(Urban Development and Housing Act, REPUBLIC ACT No. 7279)
- » 국가 건축법(National Building Code of the Philippines, PRESIDENTIAL DECREE No. 1096)
- » 특별경제구역법(Special Economic Zone Act, REPUBLIC ACT NO. 7916)
- » 종합투자법(Omnibus Investments Code, EXECUTIVE ORDER No. 226)
- » 외국인투자법(Foreign Investments Act, REPUBLIC ACT No. 7042)

P 해외개발
Preview



개발사례



특별경제구역(SEZ) 조성사례

필리핀 국민주택 프로그램
(4PH 프로그램)

V 개발사례

01 특별경제구역(SEZ) 조성사례

경제구역 개요

- 필리핀 경제구역청(Philippine Economic Zone Authority, PEZA)은 외국인 투자를 위한 필리핀 내 경제구역 설립을 촉진하는 기관
 - 또한 대통령이 PEZA 특별경제구역(Special Economic Zone, SEZ)으로 선포한 전국의 특정지역 내에서 수출지향형 제조 및 서비스 시설에 대한 투자자의 사업운영을 지원하고 촉진하는 임무를 맡고 있음
- 필리핀 경제구역청(PEZA)에 따르면, 2023년 4월 기준으로 총 419개의 경제구역(Economic Zones)이 지정되어 있음
 - 경제구역은 유형에 따라 제조 경제구역(Manufacturing Economic Zones) 78개, 정보기술단지(Information Technology Parks/Centers) 297개, 관광수출기업(Tourism Export Enterprises) 17개, 농공업 경제구역(Agro-Industrial Economic Zones) 24개, 의료관광단지(Medical Tourism Parks/Centers) 3개로 구분



특별경제구역 개요

○ 1995년 특별경제구역법(Special Economic Zone Act) 제정으로 특별경제구역 제도 도입

- 특별경제구역(SEZ)은 정부가 농업, 공업, 상업, 관광/레크리에이션 지역으로 균형있게 개발하기 위해 지정한 지역
- SEZ는 산업단지(Industrial Estates), 수출가공구역(Export Processing Zones), 자유무역지대(Free Trade Zones), 관광 및 레크리에이션 센터(Tourist & Recreational Centers) 등 유형으로 구분
- 당시 선택된 투자지역은 다음과 같음

No	Zone	Area(ha)	Location
1	Baguio City Export Processing Zone	114	Loakan Road, Baguio City
2	Luisita Industrial Park	29	San Miguel, Tarlac
3	Angeles Industrial Park	32	Bacolor, Pampanga
4	Subic Shipyard Special Zone	52	Subic, Zambales
5	Bataan export Processing Zone	1,600	Mariveles, Bataan
6	Cavite Export Processing Zone	276	Rosario, Cavite
7	Tabangao SEPZ	86	Tabangao, Batangas
8	Victoria Wave Industrial Estate	50	Bo Malaria, Tala
9	First Cavite Industrial Estate - SEPZ	54	Dasmarinas, Cavite
10	Gateway Business Park - SEPZ	100	Gen Trias, Cavite
11	Laguna Technopark - SEPZ	71	Sta Rosa, Laguna
12	Toyota Sta. Rosa (Laguna) - SEPZ Industrial Complex	25	Sta Rosa, Laguna
13	Laguna Int'l Industrial Park - SEPZ	32	Binan, Laguna
14	Carmelray Industrial Park - SEPZ	44	Canlubang, Laguna
15	Light Industry & Science Park I	67	Cabuyao, Laguna
16	Light Industry & Science Park II 54	65	Calamba, Laguna
17	Mactan Export Processing Zone	119	Lapu-lapu, Cebu City
18	Mactan Export Processing Zone II	63	Lapu-lapu, Cebu City
19	Leyte Industrial Dev. Estate	425	Isabel, Leyte

출처 : https://training.itcilo.org/actrav_cdrom1/english/global/frame/epzppi.htm

○ 한편, 기지 전환 및 개발법(Bases Conversion & Development Act)에 따라 다음 지역을 특별경제구역(SEZ)으로 지정

- 수빅 해군 기지(Subic Naval Base)
- 클라크 공군 기지(Clark Air Base)
- 캠프 존 헤이(Camp John Hay)
- 월리스 공군 기지(The Wallace Air Station)
- 오도넬 송신기 기지(The O'Donnell Transmitter Station)
- 산 미구엘 해군 통신 기지(The San Miguel Naval Communications Station)
- 마운트 스타 리타 기지(The Mt. Sta. Rita Station)

클라크 특별경제구역 (CSEZ)

○ 필리핀 정부는 1993년 클라크 특별경제구역(Clark Special Economic Zone, CSEZ)을 지정, 새로운 산업도시 및 국제여객 및 화물을 위한 민간항공단지로 개발하고자 함

- CSEZ에는 Angeles City에 위치한 클라크 공군기지(Clark Air Base)와 그 확장 지역, Pampanga주의 Mabalacat 및 Porac 자치시, Tarlac주의 Capas 자치시가 포함되며, 면적은 약 28,041ha에 달함
- CSEZ의 행정은 기지 전환 및 개발청(Bases Conversion & Development Authority, BCDA)으로 이관되었으며, CSEZ 개발을 감독하기 위해 BCDA의 자회사인 클라크개발공사(Clark Development Corporation, CDC)를 설립
- 클라크 공군기지를 포함하는 CSEZ의 Main Zone 내에 위치한 기업에는 특정 인센티브가 제공되며, CSEZ의 나머지 지역에 위치한 기업에는 제한된 인센티브가 제공됨

○ 클라크 공군기지(Clark Air Base) 지역은 자유무역지대(Freeport Zone)로 지정되었으며, 2007년 SEZ에서 분리

- 이후 클라크 자유무역지대(CFZ)와 클라크 특별경제구역(CSEZ)은 별도의 지역으로 간주되었지만, 때때로 이를 합쳐 "클라크 자유무역지대 및 특별경제구역(CFEZ)"이라고 부르기도 함

○ 이후 2018년, BCDA와 CDC는 CFEZ 내의 4개 개발사업인 Clark Freeport Zone, Clark Global City, Clark International Airport, New Clark City를 "Clark: It Works. Like A Dream"이라는 하나의 브랜드 하에 "districts"로 그룹화하였음

클라크 자유무역지대 및 특별경제구역(CFEZ) 위치도

출처 : https://en.wikipedia.org/wiki/Clark_Freeport_and_Special_Economic_Zo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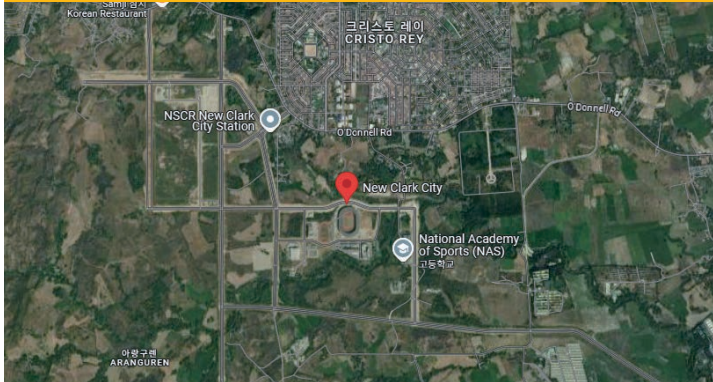
CFEZ내 주요 개발사업 출처 : 구글지도(<https://www.google.com/maps>)



뉴 클라크 시티

○ 뉴 클라크 시티(New Clark City)는 계획도시로서 클라크 특별경제구역(CSEZ)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약 9,450ha에 달함

- CFEZ 내 주요 개발사업인 Clark Freeport Zone, Clark Global City, Clark International Airport에서 북측으로 멀리 떨어진 타를라크(Tarlac)주의 밤반(Bamban)과 카파스(Capas) 자치시에 위치
- 수도 마닐라가 자연재해와 교통체증으로 확장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자 이를 타개하기 위한 전략으로 신도시를 계획
- 2016년 착공하였으며, 가장 먼저 건설된 뉴 클라크 시티 육상경기장과 수영장에서 2019년 동남아시아 경기대회 개최



○원래 친환경 개발을 강조한 클라크 그린 시티(Clark Green City)가 제안되었으나 두테르테 정권에서 뉴 클라크 시티로 개칭

- 120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스마트 도시를 목표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며, 부대시설로 필리핀 대학교 캠퍼스와 각종 연구단체, 국립 스포츠 아카데미 건물이 들어설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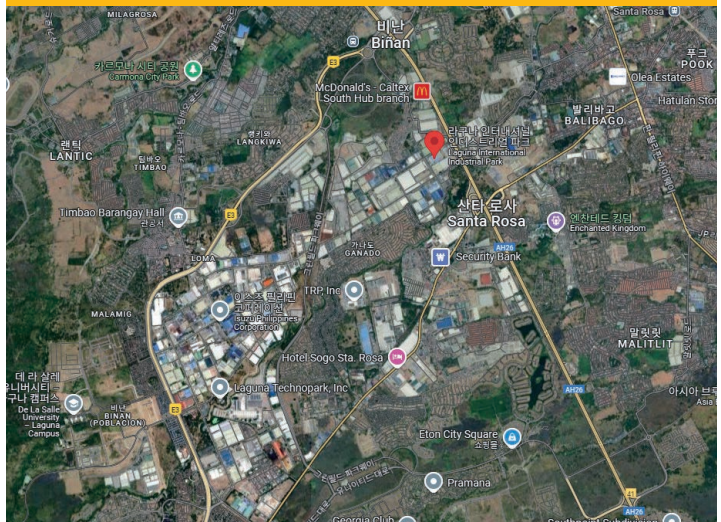
○뉴 클라크 시티는 주요 기능에 따라 여러 지구로 나뉘는데, 2022년 현재 3개 지역에서 개발이 진행 중

- 중앙정부행정센터(National Government Administrative Center, NGAC) : 200ha 규모로 필리핀 정부의 시설과 사무실이 계획. NGAC 내부에는 통합 운영 및 재해복구센터가 있는데, 이는 수도 마닐라가 재해로 인해 운영이 불가능해질 경우 중앙정부의 백업 운영센터 역할을 하도록 설계되었으며, 대통령 실의 위성 사무실도 포함
- 필리베스트 뉴 클라크 시티(Filinvest New Clark City) : 288ha 규모의 혼합용도 및 산업지구로 물류, 전자 상거래, 경공업, 지역 및 국제기업의 데이터 센터 운영을 위한 창고 및 공장을 수용할 비즈니스 허브인 Innovation Park가 포함될 예정
- 한 리저브(Hann Reserve) : 450ha 규모의 부지에 Accor, Marriott International, PGA와 협력하여 Hann Development Corporation이 럭셔리 산악 리조트로 개발할 예정. 이 리조트에는 18홀 챔피언십 골프장 3개와 PGA 산하 선수개발시설, 호텔(Banyan Tree, Angsana, Sofitel, Emblems, The Luxury Collection, The Westin), 복합상업센터, 10ha 규모의 공원이 들어설 예정

라구나 국제 산업단지

- 라구나 국제산업단지(Laguna International Industrial Park, LIIP)는 1992년 Samsung Corp와 Solid Corp의 합작법인인 Laguna International Industrial Park, Inc.(LIIP)에 의해 개발
 - 이는 필리핀이 상당한 진전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투자인프라 지원분야에 민간부문이 참여하라는 정부의 요청에 따른 것
- LIIP는 마닐라에서 약 30km 떨어진 Laguna주 Biñan시에 위치한 산업단지로 전력, 통신, 용수, 도로, 중앙하수처리시설(STP) 및 기타시설을 완비
 - 총면적은 117ha며, 이 중 30ha가 필리핀 경제구역청(PEZA)에 할당
- 1993년 1월 라구나 국제산업단지협회(Laguna International Industrial Park Association, Inc., LIIPAI)를 설립
 - LIIP 내 업무 및 상업지역의 전반적인 복지, 자산, 서비스 평판을 증진 및 보호하고, LIIP 내 부동산 소유자, 임차인 및 거주자의 이익과 복지를 위해 설립
 - 1995년 11월 6일 체결된 협정서에 따라 산업단지 관리권은 개발업체(LIIP)에서 협회(LIIPAI)로 이관

라구나 국제산업단지 위치도 출처 : 구글지도(<https://www.google.com/maps>)





02 필리핀 국민주택 프로그램(4PH 프로그램)

개요

- 인간정주 및 도시개발부(Department of Human Settlements and Urban Development, DHSUD)는 주택관리, 인간정주 및 도시개발을 담당
 - 모든 필리핀 국민에게 적절하고 저렴한 주택을 즉시 제공하기 위한 국가 전략을 개발하고 채택하며,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산하기관의 정책, 프로그램, 프로젝트를 조정하는 역할
- 필리핀 국민주택 프로그램(Pambansang Pabahay Para sa Pilipino, 4PH)은 2022년 9월 국가의 현재 주택수요를 해결하기 위해 구상
 - 행정명령 34호(2023)는 대통령의 4PH 프로그램을 행정부의 대표 주택프로그램으로 선언하였음
 - 이 프로그램은 주택부문의 두 가지 주요 병목 현상인 저렴성과 자금 접근성으로 인한 부담을 완화할 혁신적인 프레임워크를 특징으로 하며, 인간정주 및 도시개발부(DHSUD)에서 프로그램의 실행을 주도

추진현황

- 인간정주 및 도시개발부(DHSUD)는 '국민주택'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개발 상호기금 또는 Pag-IBIG 기금이 승인한 130억 페소의 회전신용 한도를 인용
 - 2023년 12월 Pag-IBIG 기금 이사회는 국립주택청(National Housing Authority, NHA)과 사회주택금융공사(Social Housing Finance Corporation, SHFC)에 각각 120억 페소와 9억 2,900만 페소의 회전신용 한도를 승인
 - 신용 한도를 통해 NHA와 SHFC는 4PH 프로그램의 달성을 위해 11,000호 이상의 주택을 개발하고 건설할 수 있게 됨
- 2023년 말 기준 '국민주택'을 대표하는 17개 프로젝트가 전국적으로 다양한 개발 및 건설 단계에 있음
 - DHSUD 장관은 바콜로드 시(Bacolod City)의 아센소 유흠 레지던스(Asenso Yuhum Residences)에서 약 300호가 매각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앞으로 몇 달 안에 더 많은 주택이 인도될 것으로 예상
- 행정명령 34호는 '국민주택'을 정부의 대표 프로그램으로 선언하고 정부소유 및 통제기업을 포함한 모든 정부기관 및 기구에 이용가능한 토지목록을 제출하도록 지시
 - 행정명령 35호는 인간정주 및 도시개발부(DHSUD)가 이끄는 파시그 강 도시 개발을 위한 기관 간 위원회(Inter-agency Council for the Pasig River Urban Development)를 창설

파사이 시티 프로젝트 (Pasay City Project)

- 인간정주 및 도시개발부(DHSUD)는 4PH 프로그램에 따라 수도권의 도시재개발과 비공식 정착촌의 재개발을 위한 파사이 시티 프로젝트를 시범적으로 실시
 - DHSUD는 2024년 7월 파사이 시 지방정부 및 마닐라 국제공항청(MIAA)과 합의각서(MOA)를 체결하여 프로젝트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
 - 합의각서(MOA)는 파사이 시에서 4PH 프로젝트를 건설하는 동안 이전해야 하는 비공식 정착촌 가족(Informal Settler Families, ISFs)을 위한 임시 거주지를 설립하는 내용으로, 자격을 갖춘 수혜자에게 영구 주택이 인도될 때까지 진행

○ 현재 임시 거주지의 개발 및 건설이 진행 중

- 임시 거주지는 4PH에 따른 최초의 유형으로, 국민주택 프로그램에 따라 그들의 신규주택을 건설하는 동안 수혜가족이 거주
- 이 사업은 조립식 자재를 사용하여 임시 거주지를 건설하고, 비공식 정착촌에 ISF를 위한 살기 좋은 커뮤니티를 개발하는 것을 포함. 임시 거주지는 비공식 정착촌에서 약 2km 떨어진 공항 근처에 전략적으로 위치
- 임시 거주지에는 야외 공원, 놀이터, 농구장 등의 편의시설이 갖춰질 예정

**SHFC의
4PH
프로젝트**

○ 사회주택금융공사(SHFC)는 필리핀 국민주택 프로그램(4PH)의 시행에서 핵심 역할을 담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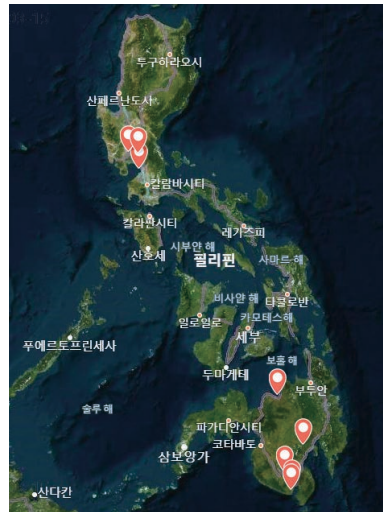
- SHFC는 인간정주 및 도시개발부(DHSUD) 산하의 주요기관으로서, 비공식 및 공식부문의 저소득 가정에 사회주택 자금조달 솔루션을 제공

○ 사회주택금융공사(SHFC)에 따른 4PH 수혜자격을 얻으려면 지원자는 커뮤니티 협회(Community Association, CA) 회원이어야 함

- 지원자는 인간정주 및 도시개발부(DHSUD) 또는 다른 정부기관에 등록된 커뮤니티 협회의 회원이어야 함
- CA는 정부의 인프라 사업, 법원 명령에 따른 철거, 재해 또는 재난으로 영향을 받는 위험지역에 사는 가정 및 재정착 지원이 필요한 가정 등 주택이 필요한 가정을 대리해야 함

○ 사회주택금융공사(SHFC)는 현재 8개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며, 프로젝트의 수혜자는 약 53,500명임

No	커뮤니티 협회(CA)	수혜자
1	라비스타 홈스 (LA VISTA HOMES)	9,420
2	크리스탈 피크 (CRYSTAL PEAK)	8,352
3	밸리 뷰 레지던스 (VALLEY VIEW RESIDENCES)	10,400
4	피플스 빌 호아이 1,2,3단계 (PEOPLE'S VILLE HOAI PHASE 1,2&3)	8,200
5	젠산 홈스 R12 호아이 (GENSAN HOMES R12 HOAI)	5,780
6	커뮤니티 재정착 수혜자 호아이 (COMMUNITY RESETTLEMENT BENEFICIARIES HOAI)	2,601
7	그린벨트 2단계 호아이 (GREENBELT PHASE II HOAI)	4,624
8	피플스 플랜 빌 (PEOPLE'S PLAN VILLE)	4,155



출처 : 사회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https://www.shfc.dhsud.gov.ph:2384/>

[참고문헌]

- » 매일경제, “필리핀 라구나공업단지 국내사 참여 내달완공” (1993.02.20.자)
- » 엄은희, 2018. “필리핀 경제특구의 성격 변화와 까비테 지역의 한국 투자기업”, 『아시아연구 21(3) : 51-84』.
- » KOTRA 해외시장뉴스, 2011. 「필리핀 산업단지 / 주요 공단 소개」.
- » 라구나 국제산업단지, <http://liip.com.ph/>
- » 필리핀 경제구역청, <https://www.peza.gov.ph/>
- » 인간정주 및 도시개발부, <https://dhsud.gov.ph/>
- » 국가주택청, <https://nha.gov.ph/>
- » 사회주택금융공사, <https://www.shfc.dhsud.gov.ph/>
- » 위키피디아, https://en.wikipedia.org/wiki/Clark_Freepoint_and_Special_Economic_Zone
- » 위키피디아, https://en.wikipedia.org/wiki/New_Clark_City
- » 나무위키, <https://namu.wiki/w/뉴%20클라크%20시티>
- » https://training.itcilo.org/actrav_cdrom1/english/global/frame/epzpippi.htm

지난 호 목록



Vol.1 2018. 9
인도(India)



Vol.2 2018.12
베트남(Vietnam)



Vol.3 2019. 6
미얀마(Myanmar)



Vol.4 2019. 12
볼리비아(Bolivia)



Vol.5 2020. 6
인도네시아(Indonesia)



Vol.6 2020. 12
러시아(Russia)



Vol.7 2021. 7
쿠웨이트(Kuwait)



Vol.8 2021. 12
페루(Peru)



Vol.9 2022. 6
파키스탄(Pakistan)



Vol.10 2022. 12
태국(Thailand)



Vol.11 2023. 7
사우디아라비아
(Saudi Arabia)



Vol.12 2023. 12
우크라이나(Ukraine)



Vol.13 2024. 6
폴란드(Poland)



Vol.14 2024. 12
르완다(Rwanda)



Vol.15 2025. 6
필리핀(Philippines)

토지주택연구원(Land & Housing Research Institute)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설 연구원으로서, 전문성과 현장성을 결합한 연구 개발을 통해 국가 정책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지원하고 대한민국의 미래가치를 창출하는 국내 최고의 토지주택도시 분야 종합 연구기관입니다.



PHILIPPINES

P해외개발
Preview